襄陽 地境里 住居址

(本文)

백홍기
고동순
심상육

2002

江陵大學校 博物館
原州地方 國土管理廳

표지사진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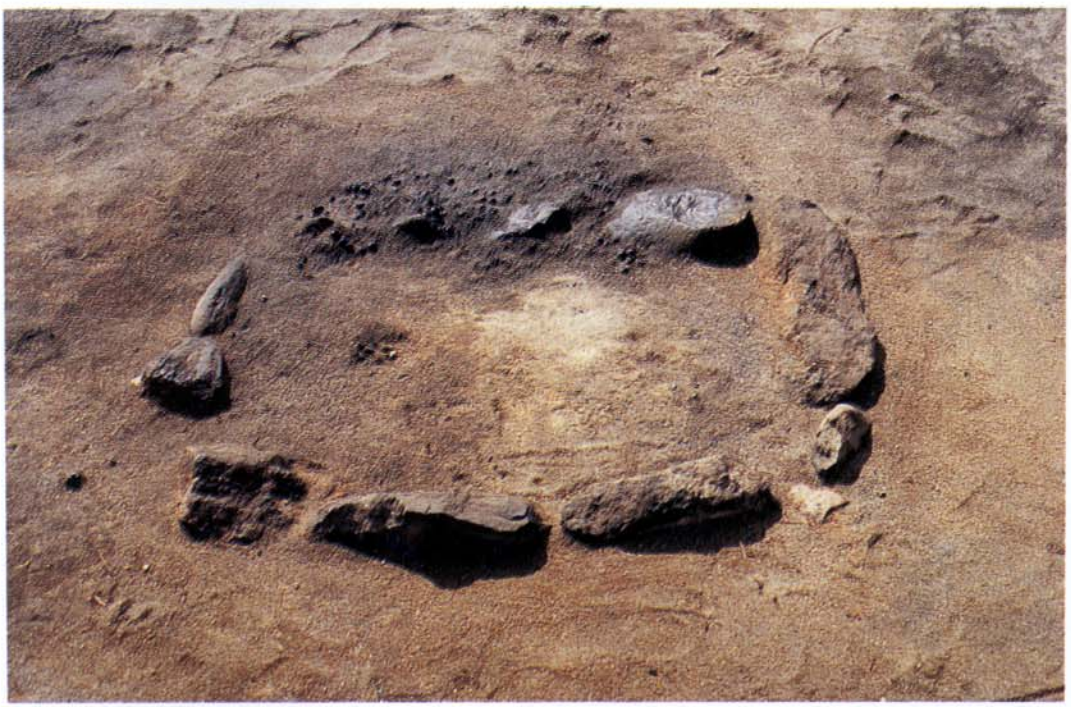
지경리 유적 전경



지경리 신석기시대 유구 전경



지경리 4호주거지 전경



지경리 4호주거지 화덕자리 전경



지경리 5호주거지 전경



지경리 야외노지 전경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지경리 S-4호 주거지 출토 빗살무늬토기

目　次

Ⅰ. 머리말 ····· 13
Ⅱ. 동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 여건 ····· 15
Ⅲ. 조사경위 및 경과 ····· 16
Ⅳ. 유적의 위치 및 자연· 고고학적 환경 ····· 17
1. 유적의 위치 ····· 17
2. 자연·고고학적환경 ····· 17
Ⅴ. 조사방법 및 층위 ····· 20
1. 조사방법 ····· 20
2. 층위 ····· 20
Ⅵ. 조사내용 ····· 22
1. 遺構와 遺物 ····· 22
1) 住居址 ····· 22
① 1호 住居址 ····· 22
② 2호 住居址 ····· 28
③ 3호 住居址 ····· 28
④ 4호 住居址 ····· 34
⑤ 5호 住居址 ····· 61
⑥ 6호 住居址 ····· 68
⑦ 7호 住居址 ····· 115
⑧ 8호 住居址 ····· 122
⑨ 9호 住居址 ····· 123
⑩ 10호 住居址 ····· 128
2) 野外施設 ····· 134
① 小割石遺構 ····· 134
② 野外爐址 ····· 134

3) A지구 교란층 출토유물 ····· 135
4) B지구 ····· 146
2. 考察 ····· 162
1) 遺構 ····· 163
① 住居址 ····· 163
② 野外爐址 ····· 167
2) 遺物 ····· 169
① 土器 ····· 170
② 石器 ····· 180
3) 土器編年 및 竝行關係 ····· 184
Ⅵ. 맺음말 ····· 186

부 록

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 189
Ⅱ. 지경리 출토 토기에 대한 재료과학적 분석 ····· 195

Ⅰ. 머리말

中東部地域에서는 1980년대 오산리유적의 발굴조사에 의하여 下位層과 上位層에서는 東北地方의 平底系 土器가 主流를 이루며, 上位層에서는 中西部地域의 尖底系 櫛文土器가 출토 되어 兩系土器의 선후관계가 확인되었다. 한편 오산리 B지구 2호주거지에서는 구연부에 短斜線文, 胴部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되는 中西部地域의 區分文系土器와 구연부에 斜格子文이나 三角形集線文이 施文되는 東南部地域의 太線文系土器와 類似한 土器要素가 혼합된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오산리 上位層에서 확인된 이러한 中東部地域의 尖底系 신석기문화와 東南部地域의 太線文系土器文化에 관해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못한 채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던중, 1995년에 地境里遺蹟이 발굴조사 됨으로써, 이미 오산리 上位層에서 확인된 바 있는 中東部地域의 尖底系 즐문토기문화와 東南部地域의 太線文系土器文化의 編年上의 位置 및 그 문화내용이 더욱 확실하게 파악되어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문화 연구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地境里遺蹟에서는 철기시대 住居址 7基가 확인되어 이 지역의 철기시대문화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가 추가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地境里遺蹟이 位置하는 砂丘地帶는 해발 7~9m의 낮은 砂濱地域이며, 일제시대 이래 공동묘지로 사용되어온 곳이고, 서쪽으로는 지경뜰이 펼쳐져 있는 곳이어서 현재의 경관으로 보아서는 신석기시대유적으로 보기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주문진 -인구간 7번국도의 확·포장공사에 의하여 표토가 삭평되기 전의 지표조사에서는 유적이 발견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와같이 의외의 지역에서도 중요한 유적들이 양호한 상태로 잔존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당시 地形環境에 대한 地形學的 연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地境里遺蹟의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지경뜰이 당시에는 潟湖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간행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장기간 지체되어 학계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끝으로 본 유적의 완벽한 조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유구의 사후 보존을 위해서 도로와 교량을 높이는 등 설계변동까지도 감수해 주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주) 고려개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에 게재하지 못한 철기시대 주거지 7基에 대한 보고문은 추후 집필 완료되는 대로 별도

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조사단의 직책은 발굴조사 당시 현직임)

단　　장 : 백 홍 기(강릉대학교 박물관장)
지도위원 : 한 병 삼(문화재위원)
김 기 웅(문화재전문위원)
장 경 호(문화재연구소장)
임 효 재(서울대학교 교수)
조 유 전(국립민속박물관장)
조사위원 : 최 몽 룡(서울대학교 교수)
한 영 희(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윤 근 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조 사 원 : 지 현 병(강릉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고 동 순(강릉대학교박물관 조교)
권 순 희(강릉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보 조 원 : 정 혜 윤(강릉대학교 사학과 조교)
김 동 민(강릉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박 영 구(강릉대학교 사학과 4년)
윤 석 인(강릉대학교 사학과 4년)
이 창 현(강릉대학교 사학과 2년)

2002년 12월　일

조사단장 백 홍 기

Ⅱ. 동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 여건

강원 영동지방은 한반도의 중부지방 동쪽부분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함경도,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서쪽으로는 한반도의 등줄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동해안 가까이에 연하여 남쪽으로 뻗어있다.

강원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이 동해 가까이에서 동해 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리기 때문에 큰 강과 퇴적평야는 없으나 군소 하천들이 발달되어있고 이 군소 하천이 바닷가와 만나는 부근에는 사구지대와 저습지가 발달되어 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파도의 활동이 활발하여 태백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하천들이 운반하는 토사가 하류로 유출된 다음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사빈과 사구를 형성한다. 따라서 동해안의 사구는 하천의 하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충적뜰의 앞쪽에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사빈에서 바람에 의하여 쌓인 모래언덕으로 동해안에는 이러한 사빈이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영동해안에는 고성 남강, 양양 물치천, 남대천, 화상천, 강릉 연곡천, 사천천, 남대천, 주수천 등 비교적 큰 하천들이 동해로 유입된다. 이들 하천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 태백산맥을 흘러내리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모래를 공급하며 따라서 사빈도 입자가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모래는 주로 여름철의 홍수시에 유출되는데 하구로 유출된 토사는 해안 물 흐름에 따라 주로 남쪽으로 운반된다.

이러한 사구와 사빈의 작용에 의하여 동해안에는 많은 석호가 발달되어 있다. 고성군의 화진포, 송지호, 속초시의 영랑호, 청초호, 양양의 쌍호 포매호, 강릉시의 경포호, 풍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석호의 사구, 사빈 지대에는 여지없이 신석기시대 유적과 철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지금까지 동해안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유적의 90%이상이 모두 이 사구지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석기시대 말기유적은 사구지대나 석호 주변의 해발 20~4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구릉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후기까지는 사구지대에서 생활하다 말기단계에서 주변구릉지대로 이주가 시작되어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영동지방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모두 구릉지대에서 발견되고 있다[1].

---

1) 백홍기 · 지현병, 1991.《강원영동지방선사문화연구Ⅰ》문화재연구소 · 강릉대학교박물관
백홍기 · 지현병, 1992.《강원영동지방선사문화연구Ⅱ》문화재연구소 · 강릉대학교박물관

Ⅲ. 조사경위 및 경과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유적지(신석기시대, 철기시대)가 발견된 지역은 동해안 중심도로인 7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는 구간으로 시공회사인 (주)고려개발에서 신축한 화상교 남쪽 면에 위치한다. 지경리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양양군 현남면 화상천 남쪽의 사구지대로 이곳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설치한 공동묘지 지역이다. 고려개발에서는 1994년 4월 28일 도로개설을 위해 유적의 남쪽 경사지 일부를 평탄 작업을 하던중 유적이 노출되었고 다음 날인 4월 29일 양양군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따라서 동 유적을 양양군에 신고하고 강원도 및 양양군 문화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답사한 결과 주변지역의 토층 잘린 면에서 많은 양의 櫛文土器片과 석기, 민무늬토기편, 타날무늬토기편이 채집되었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1994년 5월 2일자로 양양군에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와 함께 유적지 현상보존을 요청하고 시공회사인 고려개발측에도 일시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양양군에서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주문진-양양간 7번 국도 확장공사구간내에(지경리유적) 문화재가 매장되어있기 때문에 선형변경요청과 함께 공사에 앞서 반드시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유적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1994년 6월 25일자로 선형불가사유와 함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우리 박물관에 의뢰해 왔으나 시행청의 발굴조사비 미확보로 계속 미루어 오다 1994년 12월 1일자로 문화유적 발굴조사계획서를 제출요구하였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1994년 12월 9일자로 발굴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1995년 4월 8일자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4월 12일부터 시굴조사에 착수하여 약 40여 일간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결과(1995. 5. 21) 지경리 A, B지구는 정밀발굴조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판명되었으며 유적지가 전부 모래층으로 형성된 매우 특이한 지형이며 굴삭기의 삭토로 인한 유적의 단면이 급속히 무너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박물관은 1995년 6월 8일자로 발굴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7월 10일부터 1996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Ⅳ. 유적의 위치 및 자연·고고학적 환경

1. 유적의 위치 (그림 1)

지경리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리 8-13임(A지구) 일대와 현남면 원포리 98-1(전) 일대 지역으로 동해와는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떨어진 해안가 사구지대이다.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48′, 동경 에 해당된다.

동 지역은 주문진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양양방향으로 들어가다 보면 화상천이 나타나는데 이 화상천 남쪽 사구지대의 남서쪽 경사면과 화상천 북쪽 구릉의 끝자락 모래퇴적지에 유적이 분포한다.

따라서 유적의 남쪽지역을 A지구라 하고 북쪽지역을 B지구라 명칭하기로 하였다. A지구의 조사지역은 시굴조사 결과 약 2,000평 정도였고, 북쪽 B지구는 대부분 공사로 파괴되어 약간의 토층만 확인할 수 있었다.

A, B유적간의 거리는 화상천을 사이에 두고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B지구는 구릉의 끝자락 모래 퇴적지형인데 반하여 A지구는 사방이 트인 사구지대이다.

2. 자연 및 고고학적 환경

양양군은 북쪽으로 속초시와 고성군이 남쪽으로는 강릉시,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있고 동쪽으로는 동해가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동쪽 중간에 위치한다. 영동과 영서의 구분을 짓는 태백산맥이 동해 가까이에 있어 동쪽으로 급경사로 이루었고 서쪽으로는 고원과 산맥이 중첩되어있다.

영동지방의 연평균 기온은 10~13℃, 강수량은 1300~1400㎜이고, 영서지방의 연평균 기온은 10~11℃, 연 강수량은 1200~1300㎜이다.

겨울철의 영동지방은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따뜻한 편에 든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푄엔(Fohn)현상과 해양의 영향 때문이다. 푄엔현상은 바람이 산지로 넘어갈 때 산지를 넘어간 바람이 산지를 넘기 전의 바람보다 고온건조해지는 현상이다. 겨울철 우리 나라의 추운 날씨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찬 북서풍이

불어올 때 이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동지역에 이르면 푄엔현상으로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둘째는 동해의 넓고 깊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영동지방의 해안지대는 동해의 영향으로 겨울철은 덜 춥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된다.

이번에 발굴 조사한 지경리 지역의 지질은 주로 대보화강암(大寶花崗巖)이다. 대보화강암은 중생대 쥬라기에 형성된 암석으로 지하에 매우 깊이 있는 마그마가 지각 변동 시에 지하에 깊이 있는 기존의 암석사이로 나오다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보화강암은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에 걸쳐 널리 분포하고 있다. 강릉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대보화강암은 주로 흑운모(黑雲母)화강암이다.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장석, 석영 등의 흰색을 띠는 광물들과 여러 종류의 짙은 색을 띠는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다[2].

동해는 수심이 깊고 파도의 활동이 활발하여 태백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하천들이 운반하는 토사는 하구로 유출된 다음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사구를 형성한다. 따라서 동해안의 사빈은 하천의 하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충적뜰의 앞쪽에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해안에는 해안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사빈에서 바람에 의하여 쌓인 모래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에는 식생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주문진과 강릉 사이에는 이러한 사빈이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이곳 해안에는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남대천 등 비교적 큰 하천들이 유입한다. 이들 하천들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 태백산맥의 동해 사면을 흘러내리기 때문에 입자가 굵은 모래를 공급하며 따라서 사빈도 입자가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모래는 주로 여름철의 홍수 시에 유출되는데 하구로 유출된 토사는 해안 물 흐름에 따라 주로 남쪽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이들 하천 유역의 기반암은 주로 화강암이기 때문에 사빈의 모래는 주로 석영 장석 등의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빈의 색깔도 전체적으로 희게 보인다. 사구는 사빈의 배후에 대개 일렬로 배열되어있으나, 일련의 사구열이 해안선과 나란히 발달되어 있다[3]. 지경리 신석기유적은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삼형제봉(617m)과 만월산(628m) 일대에서 발원하여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화상천 하구 남쪽 50m 정도 떨어진 해발 7~

2) 유흥식, 1994. 〈명주군의 지리적 환경〉《溟洲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關東大學校 博物館 · 江原道.
3) 建設部國立地理院, 1994. 《韓國地圖》, p.177~8.

9m의 퇴적사빈지형의 남서쪽 경사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200m정도 모래사장이 펼쳐지다 바다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50m 정도에 화상천이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든다. 남쪽으로는 폭 250m, 길이 1.5㎞의 사빈이 길게 펼쳐지다 작은 구릉 넘어 석호인 향호와 접한다. 서쪽으로는 직삼각형모양의 넓은 지경뜰이 펼쳐져 있는데 당시에는 호수나 늪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에도 조금만 파면 모래가 노출된다.

서쪽의 지경뜰 건너에는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20~30m의 저구릉층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릉의 정상부에는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된다. 지경리유적의 당시 지형을 추정해 보면 유적의 남쪽으로 연결되는 1.5㎞ 크기의 사빈을 제외하면 서쪽으로는 호수 북쪽으로는 화상천, 동쪽으로는 동해가 위치한 것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지경리유적은 어로 채집형의 주거집단에 적합한 지형을 갖춘 유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듯이 동해안에는 태백산맥의 계곡에서 발원한 하천이 동해에 다다르는 지역에는 사구나 사빈 지대가 형성되거나 호수들이 발달되어 있어 이들 하천이 바닷가에 다다르는 남쪽지역이나 북쪽지역에는 예외 없이 신석기시대 유적과 철기시대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신석기시대 유적의 분포상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양양의 남대천 북쪽에 조산리유적, 남쪽에 가평리, 송전리유적, 동명천 남쪽의 오산리유적, 화광천 남쪽의 하조대유적, 화상천 남쪽의 지경리유적 , 강릉의 사천천 남쪽의 가둔지유적, 군성강 북쪽의 안인리유적 등 대부분의 신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 유적이 분포하고 말기유적은 하천 인근의 구릉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경리유적은 이러한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유적으로 남한에서는 가장 많은 어망추가 발견된 것을 보더라도 주로 어로 생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적지에서 300m~1.5㎞를 벗어나면 20~100m의 낮은 구릉이 태백산맥 밑에까지 분포하고 있어 사냥과 채집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V. 조사방법 및 층위

1. 조사 방법

지경리 유적이 발견된 지역은 해발 5~7m의 사구지대로 유적이 처음 발견되었을 시에는 주문진-양양간 7번국도 확포장공사 터파기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사진 3〉 따라서 도로의 동쪽 부분을 파내어 서쪽 저지대 쪽으로 일부 복토가 된 상태였고 서쪽 저지대도 나무굴체와 평탄작업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동쪽 절단면에는 주거지가 노출되어 있었고(6, 7호) 평탄작업이 끈난 지역에는 신석기시대의 각종 토기편과 어망추가 흩어져 있어 이미 유구가 거의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일단 유적의 북쪽에 위치한 화상천 다리 옆에 BM점을 설치하고 도로가 나는 방향의 중간을 기준으로 10×10m의 그리드를 설치하여 pit조사와 trench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와 교란층을 먼저 확인하였다. 〈그림 2〉

그리드는 일단 도로의 동서폭이 20m인 점을 감안하여 유구가 공사구역 밖으로 연결될 시에는 공사구역 밖이라도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정하고 폭 30m까지 그리드를 설치하였다. 길이는 토기편이 노출되는 지점까지인 200m까지 설정하여 길이 200, 폭 30 크기의 조사범위를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가 노출되는 범위는 그리드 0~140m이고,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그리드 40~120m의 공간 속에 주거지들이 노출되어 주로 그리드 40~140m의 범위에서 노출되었다. 또한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비교적 구릉의 높은 부분에 위치하고 철기시대 주거지는 신석기시대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 낮은 지역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주거지 3호, 8호 위에 철기시대 1호 주거지가 겹놓여 발견되기도 하였다.

조사는 먼저 피트와 트렌치 조사를 통하여 공사로 교란된 부분을 구분한 다음 일단 교란된 층을 모두 제거한 후 구지표와 파괴된 부분을 노출시켰다. 구 지표 부분에는 다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지의 윤곽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층위 (그림 3, 4 사진 4-②)

지경리유적의 위치는 동해와는 현재 300m 정도 떨어진 사구지대 정상부와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면에 위치한다. 동사구지대의 동쪽은 동해가 위치하고 북쪽끝에는 화상천이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든다. 서쪽으로는 호수가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사구지대가 1.6㎞까지 이어지다 구릉 끝부분에 연결되어 지경리유적은 길이 1.6㎞, 폭 300m 정도의 사구지대 북쪽 끝에 위치한다.

동지역은 이미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릉의 남쪽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복토가 이루어져 상면의 철기시대 유적과 신석기시대 상층유구(6호관련주거지)가 파괴되어 토기편과 석기들이 노출되어 있었다.

A지역의 토층은 공사파괴로 인하여 남쪽경사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구릉의 정상부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토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7호주거지가 중복되어 노출된 B3, 4그리드 지역에서는 주거지가 중복된 관계로 비교적 복잡한 층위로 나타나나 4호 주거지가 노출된 B10, 11그리드에서는 안정된 토층을 보이고 있다.

유적지의 정상부 동편 남-북으로 이어지는 B4 지점의 토층 자른 면에서 나타난 층위는 크게 5개 층위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제Ⅰ층 : 표토층, 두께 약 35㎝로 갈색 모래층으로 진흙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나. 제Ⅱ층:황갈색 모래층으로 두께 약 20~50㎝이다. 이 층에서는 신라시대의 토기조각 등이 출토되고 있다.

다. 제Ⅲ층: 흑갈색 모래층으로 두께 약 40~60㎝정도이다. Ⅲ층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경질민무늬 토기조각이 출토되고 있으나 거의 전부가 공사로 인하여 파괴되어 교란된 상태이다.

라. 제Ⅳ층: 흑갈색 모래층으로 두께는 약40~60㎝이다. 제Ⅲ층과 제Ⅳ층 사이에는 황갈색 모래층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Ⅳ층은 북쪽의 B3지점에서 끊어지면서 제2층과 제Ⅴ층이 곧 바로 겹치고, 남쪽의 B5지점에서는 각각 제Ⅲ층과 제Ⅴ층이 함께 연결되고 있다. 이층에서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조각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마. 제Ⅴ층 : 흑색 모래층으로 두께 약 60㎝다. 지역에 따라서 북편에서는 제Ⅱ층과 접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제Ⅳ층과 접하고 있으나 불분명하다. 이 층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는 아가리에 단사선문, 사격자문, 삼각집선문, 횡조선무늬를 새기고 바로 밑 동부에는 횡주어골무늬를 새긴 토기조각과 아가리에 점열집선문이 새겨진 토기조각들이 출토된다.

바. 제Ⅵ층 : 황갈색 모래층이며 생토층으로 추정된다.

Ⅵ 조사내용

이번 지경리 유적 조사 결과 상층에서는 철기시대 凸자형 주거지 7기와 하층에서 신석기시대 중기 유적인 주거지 10기와 야외노지 2기, 소할석 유구 1기를 발굴조사하였다. 〈사진 1, 2〉

철기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공사로 파괴되고 바닥만 남은 상태였으나 1호 주거지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주거지 중 가장 큰 규모로 볼 수 있는 길이 28m, 폭 8m 크기의 대형(72평) 주거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신석기시대 대부분의 주거지들은 주거지 위에 퇴적층이 높게 쌓여 있었고 수혈 깊이가 깊어 공사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특히 4호 주거지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주거지 발굴 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또한 6호주거지와 7호 주거지가 겹놓여 있어 선후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1. 遺構와 遺物

1) 住居址

① 1호 住居址 (그림 5, 사진 5~7)

● 遺構

S-1호 주거지는 C11트렌치의 탐색조사갱에서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의 일부가 노출되어 확장한 결과 현지표하 약 60㎝ 깊이에서 주거지의 전체윤곽선이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상면은 최근까지도 생활폐기물을 매몰했던 지역으로 교란된 토층을 걷어내자 곧 바로 흑갈색의 둥근 주거지 어깨윤곽선이 노출되었다. 조사는 먼저 주거지의 윤곽선 안에 +모양으로 둑을 남기고 퇴적된 흑갈색 모래층을 걷어내자 가평리, 오산리의 주거지 바닥과는 다른 형태로 바닥에 진흙을 깔지 않은 맨바닥으로 나왔다. 출입구는 남쪽에 폭 70㎝로 짧게 돌출되었으며, 밖에서 안으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처리하였다. 주거지 모양은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5m, 움 깊이 약 60㎝이다. 주거지의 어깨선 가장자리에는 약 60~70

㎝ 간격으로 서까래로 보이는 숯기둥 흔적이 중앙을 향하여 넘어진 상태로 나왔다. 화덕자리는 없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으로 살았던 주거지로 추정된다.

출입구 바로 안쪽에서 작업대로 보이는 돌(32㎝×18㎝×12㎝)이 나왔고, 주거지의 중앙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치우쳐서 바닥에서 약 35㎝ 높이에서 납작밑의 손잡이 달린 點列集線무늬토기 1점이 파손된 상태로 나온 것을 완형으로 복원하였고 출입구의 우측에서는 아가리에 단사선문을 새기고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을 새긴 대형토기가 파손된 상태로 나왔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ㅇ 兩耳壺鉢 (그림 6-①, 사진 43-①)

바닥에서 약간 뜬 상태에서 출토된 兩耳壺鉢로 파손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동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닥은 평저이나 약간 부른 느낌이 들 정도로 완만하다. 동부는 底部에서 바로 올라오다 동부 중간에서 최대폭을 이룬 후 서서히 좁혀지다 바로 직립의 口緣部를 만들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기벽 내외면은 물손질로 매끈하게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횡방향의 시문구자국이 여러개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4㎝와 5㎝ 아래에 각각 길이 2.5㎝ 크기의 손잡이를 종방향으로 만들고 그 안에 지름 1㎝ 크기의 타원형구멍을 종방향으로 뚫었다.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동부 최대폭까지 끝이 뾰족하고 둥근 시문구로 좌에서 우방향으로 가면서 점열문을 연속으로 압날시문하여 불규칙하지만 능형집선 모양을 만들었고 손잡이 위에까지 시문을 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진흙을 사용하였고 소성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내외면 황색과 갈색이 섞여있고 곳곳에 흑반이 남아있다.

크기는 높이 15㎝, 동부 최대폭 15㎝, 입지름 9.8㎝, 밑지름 7.4㎝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鉢形土器 (그림 6-②, 사진 43-②)

주거지 서쪽 경사면에서 출토된 鉢形土器로 파손된 것을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胴部는 口緣部에서 안쪽으로 완만하게 흘러내리다 바닥 가까이에서 급격히 꺾여(40°) 바닥으로 이어지나 바닥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야 바닥으로 추정된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서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과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 胴部 중간까지는 지름 2.5㎜ 크기의 끝이 둥근 施文具를 이용하여 우에서 좌방향으로 연속적으로 押捺하는 방법으로 모두 24줄의 점열문을 施文하였고 口緣 아래의 첫줄은 施文 후 口緣部를 만들어 눌리어져 있다. 口緣 施文 후 그 아래에는 口緣部에 施文한 방법으로 菱形文을 대칭으로 2개 施文하고 다시 새발자국 모양을 대칭으로 연속 2개를 施文하는 방법으로 종속문을 施文하였다. (구연문의 시문방향으로 볼 때 왼손잡이가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색깔은 외면 흑갈색, 내면 흑색을 띠고 내면에는 흑반도 보인다. 胎土는 精選된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조금씩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기벽의 內外면에는 슬립을 입히고 손으로 물손질하였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2.4㎝, 현존높이 19.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o 口緣部片 (그림 7, 사진 43-③)

주거지 동남쪽 바닥 모서리에서 파손된 채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口緣部 1/4 정도만이 남아있다. 대형 櫛文土器의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꺾쇠무늬를 좌에서 우방향으로 비스듬하게 9열 施文하고 그 아래에 종속문으로 거치문을 胴部중간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橫走魚骨文의 시문 순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며 시문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약간의 운모도 관찰되며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외면 흑갈색, 내면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54.6㎝, 현존높이 37㎝, 기벽두께는 불규칙한 편으로 1㎝이다

o 口緣部片 (그림 6-③, 사진 44-①)

바닥모서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며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 끝이 ㄱ자 모양의 시문구를 비스듬하게 연속압날하여 6열의 단사선문을 施文하고 그 아래 종속문으로 능형집선문을 연속으로 施文하였다. 胴部 중간에는 橫走魚骨文으로 추정되는 사선문이 우에서 좌로 비스듬히 연속으로 施文하였으나 결실되어 자세히는 알 수 없다. 시문 순서는 구연문과 동부문을 먼저 시문하고 종속문을 나중에 넣었다. 색깔은 內外 모두 적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8.4㎝, 현존높이 1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6-④, 사진 44-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부서진 것을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기벽보다 얇게 만들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아래에는 우에서 좌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꺾쇠문을 9열 압날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종속문으로 斜集線文을 음각施文하고 胴部에는 횡방향으로 사선문이 施文되어 있으나 결실되어 알 수 없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황갈색을 띤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과 작은 운모가 섞여 있다. 成形방법은 서리기로 쌓아 기벽 안쪽이 고르지 못하다. 크기는 현존높이 16.8㎝, 가로13㎝, 기벽두께는 1.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⑤, 사진 44-③)

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口緣部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얇게 成形 후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胴部는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우에서 좌방향으로 비스듬히 꺾쇠문을 촘촘히 8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 바로 붙여 橫走魚骨文을 押引施文하였다. 색깔은 내면 황갈색 외면은 흑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약간의 운모도 보이며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현존높이 10㎝, 가로 7.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8-①, 사진 44-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口緣部에 가까워지면서 胴部보다 얇게 成形 후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짧은 단사선문을 10열 압날施文하고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단사선문과 橫走魚骨文 사이에는 종속문으로 1열의 작은 파상무늬가 施文되어 있다. 색깔은 외면 흑갈색, 내면 적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가는 운모가루가 많이 관찰되며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3.2㎝, 현존높이 10.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胴部片 (그림 8-②, 사진 44-⑤)

바닥 가운데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器面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다. 口緣部文으로는 불규칙하게 압날시문된 1줄의 꺾쇠문이 남아있고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얕게 연속으로 施文하였다. 색깔은 외면 흑갈색 내면은 흑색을 띤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2㎝, 현존높이 9.6㎝, 기벽두께는 불규칙하며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③, 사진 44-⑥)

바닥 가운데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바로 아래에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시문구로 압날한 4열의 단사선무늬가 施文되어 있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4.2㎝, 세로 4㎝, 기벽두께는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④, 사진 44-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좁아지다 반듯하게 처리하였고 내면은 成形시 손자국이 남아있다. 口緣 바로 아래에는 2열의 점열문을 압날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1열의 꺾쇠문을 施文하였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고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다.

크기는 가로 2.8㎝, 세로 2.3㎝, 기벽두께 0.6㎝이다.

ㅇ 底部片 (그림 8-⑤, 사진 44-⑧)

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으로 尖底이다. 바닥 끝부분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사선문이 불규칙하게 施文되어 있다. 바닥은 먼저 점토로 속심을 만들고 외면에는 고운 점토를 입히고 안쪽에는 모래가 많이 섞인 갈색점토로 입혔다. 색깔은 속심 흑회색, 외면 황갈색, 내면은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2.7㎝, 두께 1.4㎝이다.

○ **胴部片** (그림 8-⑦, 사진 45-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다. 胴部 윗면에는 현재 5열의 단사선문이 비스듬히 남아있고, 그 아래에는 거치문이 施文되어 있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胎土는 점토로 가는 모래 크기는 석영과 작은 운모가 약간 섞여 있으며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6.8㎝, 세로 6.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 **胴部片** (그림 8-⑧, 사진 45-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 위쪽에는 좌에서 우방향으로 비스듬히 단사선문이 2열 남아있고, 그 밑에는 삼각집선문이 施文되어 있다. 시문은 단사선문과 삼각집선문이 방향을 바꾸어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은 흑갈색이다. 胎土는 점토에 작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8.4㎝, 세로 6.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 **갈돌** (그림 8-⑥, 사진 45-③)

바닥 동쪽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둥글고 납작한 냇돌로 만든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胴部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넓적한 일면에는 간 흔적이 남아있다.

크기는 가로 9.6㎝, 세로 13.8㎝, 두께 5.4㎝, 무게 1,077g이다.

○ **갈돌** (그림 8-⑨, 사진 45-④)

바닥 동쪽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삼각추 모양의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바닥은 장방형이고 바닥은 많이 사용하여 미끈하게 달았다.

크기는 가로 7.1㎝, 세로 10.5㎝, 두께 6.5㎝이다.

② 2호 住居址 (그림 9, 사진 8-①)

● 遺構

S-2호 주거지는 B7트렌치에서 주거지의 윤곽선이 나타나 남북쪽으로 확장한 결과 동서 3.7m, 남북 5.7m 크기의 타원형 주거지 윤곽선이 나타났다. 주거지 윤곽선에 +자로 뚝을 설정하고 pit를 넣어본 결과 바닥으로 추정되는 곳에 진흙 다짐을 한 흔적이 나타나 퇴적층을 제거한 결과 진흙바닥이 나왔다. 바닥의 크기는 동서 3.1m, 남북 4.7m에 넓이는 15㎡이고, 수혈깊이는 약 40㎝이다. 이 주거지가 노출된 층위는 5층 갈색모래층으로 주거지 모양과 바닥 등 주거지 윤곽선의 연결상태 등을 볼 때 신석기 주거지로 추정되나 바닥 조금 위 퇴적층에서 민무늬토기 底部片이 1점 출토되었을 뿐 다른 유물은 없었다. 따라서 이 주거지는 신석기시대에 폐기된 후 초기철기시대에 토기편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3호 住居址 (그림 10, 사진 8-②)

● 遺構

S-3호 주거지는 C9트렌치에서 윤곽선이 노출되어 북·남·서쪽으로 차례로 확장한 결과 서쪽에서 C-1호 주거지와 접하게 되어 C-1호 주거지를 정리한 결과 S-3호 주거지 서쪽 1/2정도 위에 C-1호 주거지가 설치되었다.

S-3호 주거지 윤곽선의 크기는 지름 5.8m 크기의 원형으로 추정되고 바닥은 남북 3.5m 크기의 방형으로 만들었고 수혈 깊이는 50㎝이다.

S-3호 주거지 위 30㎝에 C-1호 주거지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S-3호 주거지의 바닥은 파괴되지 않았다.

S-3호의 윤곽선 확인 후 퇴적토를 20㎝ 정도 제거하자 1~1.3m 간격으로 안쪽으로 넘어진 기둥의 흔적이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바닥은 진흙을 깐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모래가 약간 단단하게 다져있었고 화덕자리는 없었다.

출토유물은 북벽 남경사면에서 약간의 櫛文土器片이 출토되었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11-①, 사진 46-①)

바닥 가운데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많이 부서진 것을 복원하였으나 1/5 정도만이 남아 있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형은 동부에서 바닥을 향하여 완만하게 내려오다 바닥에 가까워올수록 점점 좁아진다. 바닥은 결실되어 알 수 없으나 尖底로 판단된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내면은 매우 거칠다. 외면 口緣部 바로 밑에는 짧은 꺾쇠문을 4열 압날施文하고 그 밑의 胴部에는 종주어골무늬를 상하로 나누어 5회와 3회씩을 施文하고 다시 그 아래에 橫走魚骨文 1열만 돌리고 그 밑은 無文으로 남겼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단단하지 못하다. 색깔은 속심은 황갈색이고 외면은 흑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5.2㎝, 현존높이 22.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1-②, 사진 46-②)

윤곽선과 바닥과의 경사면에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口緣部에서 3㎝ 아래에 지름 0.5㎝ 크기의 구멍이 밖에서 안쪽으로 뚫려 있다. 口緣 바로 아래에는 짧은 단사선문이 3열 施文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종주어골문이 3열,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이 밑으로 이어져 있다.

胎土는 비교적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기벽 내면에는 토기를 만들 때 쌓아올린 輪積法 흔적이 남아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8㎝, 높이 12㎝, 기벽두께 고른 편으로1㎝이다.

○ **口緣部片** (그림 11-③, 사진 46-③)

바닥 한가운데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파손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기공이 많이 생겼다. 외면 口緣部 바로 밑에는 6열의 단사선무늬가 押捺施文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종주 어골문이,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이 이어져 내려간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기벽 내면은 토기를 만들 때 쌓아 올린 輪積法 흔적이 남아있고 燒成은 바깥쪽이 안쪽보다 양호하다.

현존높이 1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12-①, 사진 46-④)

주거지 윤곽과 바닥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 口緣部 바로 밑에는 6열의 꺾쇠문이 施文 되어 있고 그 밑에는 橫走魚骨文을 좌·우로 맞대어 놓아 가운데에 사각형의 공백이 생겼다. 색깔은 속심 갈색, 외면은 암갈색을 띤다. 胎土는 비교적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약간의 운모도 관찰된다. 燒成은 양호하고 내면에는 토기 제작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2㎝, 현재높이 1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8㎝이다.

○ **口緣部片** (그림 12-②, 사진 46-⑤)

바닥 가운데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施文 후 口緣部를 외측으로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 첫 번째 施文 일부가 눌리어졌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꺾쇠문을 8열 施文하고 그 아래에 집선문이 施文되어 있다. 색깔은 內外 모두 적갈색을 띠고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약간의 운모가루가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10.4㎝, 세로 8.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12-③, 사진 46-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胴部 상부에서부터 점차

얇아져 입술부분에는 胴部두께의 1/2 정도로 얇게 만든 후 끝부분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 口緣 바로 아래에는 끝이 세갈래로 나뉘어진 시문구로 꺾쇠문을 깊게 4열 施文하였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7.6㎝, 세로 6.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2-④, 사진 47-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口緣部 밑으로는 현재 7열의 단사선무늬가 남아있다. 胎土는 속심 암갈색, 외면은 흑갈색, 적갈색을 띄고 있고, 燒成은 약하여 내면이 부스러진다.

크기는 가로 6.6㎝, 세로 5.5㎝,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입술로 가면서 점차 얇아지며 1㎝이다.

ㅇ **口部緣片** (그림 12-⑤, 사진 47-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단사선문을 불규칙하게 4열 施文하고 그 밑에 사선문이 이어지나 결실되어 알 수 없다. 색깔은 속심 외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5.5㎝, 세로 5.1㎝,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입술로 가면서 얇아지며 1㎝이다.

ㅇ **胴部片** (그림 12-⑥, 사진 47-③)

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대형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 외면은 물손질하여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일부 남아 있다. 胴部 상부에 左右橫走魚骨文의 가운데에 사각형의 공백을 남긴 무늬가 일부 남아있다. 색깔은 속심, 외면 모두 적갈색이고 胎土는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인 점토이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21㎝, 세로 1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2㎝이다.

○ **胴部片** (그림 12-⑦, 사진 47-④)

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의 成形은 輪積法으로 쌓아 올렸고 지름 0.7㎝ 크기의 구멍흔적이 남아 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을 촘촘하고 규칙적으로 押引시문하였다. 색깔은 내면 흑회색 외면 갈색, 적갈색을 띤다. 胎土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인 점토이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크기는 가로 19㎝, 세로 8.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 **胴部片** (그림 12-⑧, 사진 47-⑤)

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내면 기벽은 마모가 심하다. 외면 胴部에는 위쪽에 종주어골무늬 아래에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적갈색, 황갈색을 띤다. 胎土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인 점토로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크기는 가로 9.8㎝, 세로 6.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胴部片** (그림 13-①, 사진 47-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내면은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이 정연하게 施文되어있다. 색깔은 속심, 외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8㎝, 세로 7.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 **胴部片** (그림 13-②, 사진 47-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에는 단사선문과 종주어골문이 施文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內外면 모두 물손질하여 마무리 지었고 색깔은 속심, 외면 모두 적갈색을 이루나 일부에 흑반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크기는 가로 5.2㎝, 세로 5.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櫛文土器片** (그림 13-③, 사진 48-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片이다. 胴部 일부에 사선문끝이 施文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이고, 외면에 흑반이 남아있다. 외면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고 내면에는 토기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일부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크기는 가로 13.8㎝, 세로 8.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 **底部片** (그림 13-④, 사진 48-②)

바닥 북쪽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바닥으로 비교적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면 모두 물손질을 하였으나 외면은 매끄럽게 정리되었고 내면은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을 바닥 가까이까지 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직선을 바닥끝에까지 施文하였다. 색깔은 내면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 적갈색을 띠고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크기는 현재높이 1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 **底部片** (그림 13-⑤, 사진 48-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이다. 바닥은 비교적 뾰족하게 만들었고, 바닥 끝부분에는 토기 成形시나 토기 사용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흔이 많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內外면에는 슬립을 입힌 후 물손질하였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두께 1.5㎝, 현존높이 5.3㎝이다.

○ **底部片** (그림 13-⑥, 사진 48-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이다. 바닥 일부에는 방사상의 사선문이 施文되어 있다. 기벽은 成形후 슬립을 입히고 물손질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외면 적갈색, 내면 황갈색이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높이 3.4㎝, 두께 1㎝이다.

○ **魚網錘** (그림 13-⑦, 사진 48-⑤)

바닥에서 출토된 어망추이다. 작은 강자갈의 양 측면을 떼어내 얕은 홈을 내어 어망추

를 만들었다.

크기는 가로 3.8㎝, 세로 5.5㎝, 두께 1.8㎝이고, 무게는 44g이다.

④ 4호 住居址 (그림 14, 사진 11-②~21-①)

● 遺構

S-4호 주거지는 S-3호 주거지에서 북동편 약 20m의 거리에 위치하며 현 지표하 약 1.4m 깊이의 황백색의 모래층에서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한 결과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의 윤곽선이 노출되었다. 노출된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은 서편에서는 제 3층인 흑갈색 모래층과 접하고 있었으나, 동편에서는 제 4층인 황백색 모래층에서 노출된 점으로 보아 지경리의 모래 퇴적상태가 동에서 서로 경사졌음을 알 수 있고, S-1호 주거지보다는 약 1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다.

조사는 먼저 주거지의 윤곽선 안에 +모양으로 둑을 남기고 퇴적된 흑갈색 모래층을 걷어내자 바로 밑에서 간층인 백색모래층이 약 10~30㎝ 정도 퇴적되어 있고, 백색 모래층 밑에 또 다시 흑갈색 모래층이 나오고 바닥으로 연결되었다. 동벽에서는 퇴적층을 일부 제거하자 90~120㎝ 간격의 기둥흔적이 모두 안쪽으로 향한 채 모두 11개가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윤곽(어깨)은 남·북 7.6m, 동·서 7.4m이고 면적은 약 56㎡(16평)이나 주거지 바닥은 가로, 세로 각각 4m의 방형으로 만들었고 면적은 16㎡이다. 주거지의 어깨선은 S-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경사지면서 내려오고 바닥은 약간의 진흙 흔적이 남아있다. 어깨선에는 약 90~270㎝ 간격으로 서까래로 보이는 숯기둥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바닥 동쪽과 남쪽 모서리에는 지름 30㎝ 정도의 기둥자국이 남아있었다. 바닥과 벽의 경사면이 만나는 북벽 전체와 연이은 동·서벽 모서리 각각 1.5m부분에는 ㄷ자 형태로 통나무를 두었다. 주거지의 정 중앙에는 장방형의 화덕자리(1.1m×0.74m)가 나왔는데 안쪽에는 진흙이 얇게 깔려 있고 북편에 판석 1매(45㎝×13㎝)로 막음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는 작은 할석 11개를 놓았다. 화덕 남서쪽 모서리와 남쪽 1m 지점에서 많은 양의 도토리가 나왔다. 출토유물은 거의 대부분 주거지 바닥과 경사면 모서리 부분에서 5점, 경사면 아랫부분에서 9점이 출토되어 바닥과 중앙 경사면 위쪽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것과

는 대조를 이룬다. 또한 출토유물은 완전히 복원된 토기 14점과 갈판류 4점의 출토위치가 구분되는데 토기류는 남서모서리 부분에서 8점, 서북모서리 부분에서 5점이 출토되었고 갈판은 모두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들은 대부분 바닥이 모래에 박힌 채로 서 있거나 주저앉은 채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가 소실될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벽 경사면에서는 모두 6점의 토기가 엉킨 채 심하게 파손되어 출토되었는데 위쪽에 목탄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소실시 상부 목가구의 낙하로 토기가 파손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아래에는 양면을 많이 사용한 갈판이 봉형 갈돌을 위에서 덮은 채 출토되었고, 그 위에는 발형토기가 파손된 채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남쪽모서리 지점에서 갈판(34㎝×30㎝×4㎝)이 2조각으로 나왔고, 동편 모서리와 바로 인접한 지점에서 갈판 3점과 갈돌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주거지의 북동편 모서리의 경사면에서 아가리에 단사선문과 바로 밑에 横走魚骨文을 새긴 대형의 뾰족밑토기 1개체분이 파손된 상태로 나왔고, 바로 옆에서 목이 있는 옹형토기 1점이 나왔는데 어깨부분이 엽맥문을 종방향으로 가늘게 새겼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ㅇ 櫛文土器 (그림 16-①, 사진 49)

북벽 중간에서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서 있는 채로 발견된 항아리이다. 전체적 기형은 바닥은 평저이고 바닥에서 몸통으로 바로 연결되어 어깨까지 약간 둥글게 좁혀지며 올라오다 어깨부분에서 급격히 안쪽으로 좁혀 바로 口緣部를 만들었다. 口緣部 지름은 7㎝ 정도로 남자의 손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작고 입술은 끝을 약간 세웠다. 바닥은 평저이고 몸통보다 넓으며 따로 만들어 몸통과 붙임 것으로 보인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약간 남아 있다. 외면에는 끝이 작고 뾰족한 시문구로 口緣部, 동부, 底部까지 押捺手法으로 같은 문양을 촘촘하게 전면 시문하였다. 시문순서는 먼저 가운데 동부문을 시문하고 구연문과 底部문

을 시문한 것으로 보이며, 시문된 문양구획은 모두 같으나 다만 구연문만이 어깨와 口緣部 까지의 제한된 공간때문에 크기가 작게 시문되었다. 시문된 모양은 특이한 말꼬리모양으로 동부와 底部에는 각각 10개씩, 口緣部는 7개씩을 구획시문하였으며 각 부분의 문양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확인된다. 시문순서는 말꼬리 끝에서 위쪽으로 돌아가면서 압날시문하고 꼬리에서 몸통연결부분은 좌에서 우방향으로 몸통은 위쪽에서 아래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시문하였다. 말꼬리무늬의 꼬리부분은 종방향으로 8~9열, 몸통부분은 28~32열을 시문하여 동부와 底部문은 1구획당 약 720개, 구연문은 530개 정도씩의 점열문을 압날시문하여 전체적으로 18,000개를 시문한 것으로 보아 토기문양 시문자가 이 문양에 대한 강한 애착과 무언가의 표현의지가 들어있었던 것 같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적갈색이나 주거지가 불탈 때의 영향으로 대부분 흑갈색으로 변하였다.

크기는 높이 21㎝, 바닥지름 18㎝, 최대폭 19㎝이고, 구연지름은 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鉢形土器 (그림 16-②, 사진 50)

서벽 경사면과 바닥 경계에서 출토된 갈판 위에 3/4정도가 파손된 채 노출되었고 이보다 2.5m 떨어진 서벽 남쪽 윤곽선 아래에서 나머지 口緣部가 발견되어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전체적 기형은 발형이고 바닥은 평저이다. 동부는 바닥에서 口緣部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다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성형시의 얇은 손누름자국과 가는 횡선자국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구연 바로 아래부터 12줄의 점열문을 압날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능형문 29개를 세워서 시문하고 그 안에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시문구로 불규칙하게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몸통 중간 아래에도 구연문과 같이 13줄의 점열문을 횡방향으로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능형점열문을 35개 시문하였다. 동부 중간을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은 문양을 반복해서 시문하였으나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내려올수록 문양이 작아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상에서 하방향으로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갈색점토에 작은 모래 굵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소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색깔은 내외면 모두 갈색, 흑색을 띤다.

크기는 높이 15.5㎝, 폭 21.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17, 사진 51)

주거지 북쪽 경사면 바닥 가까이에서 토기 바닥이 모래에 묻혀 주저앉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기형은 구경이 높이보다 넓은 반란형으로 口緣部의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 바로 아래에는 5열의 단사선이 押捺施文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짧게 엇바꾸어 菱形의 빈 공간을 만들었다. 그 밑에는 橫走魚骨文을 胴部 중간까지 施文하였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橫走魚骨文의 간격이 넓어지고 흩어진다. 土器面은 물손질을 하여 매끄러우며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과 輪積法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관찰된다. 바닥에서 1.5㎝ 높이까지는 토기를 바닥에 심거나 성형시 회전에 의하여 패인 것으로 보이는 마찰흔이 관찰된다. 토기의 색깔은 내, 외 속심 모두 적갈색을 띠나 주거지가 불탈 때의 영향으로 검게 보이고 또한 흑반도 곳곳에 흡착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크기는 높이 39.6㎝, 입지름 43.4㎝, 두께 1.1㎝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18, 사진 52)

남쪽 경사면에서 여러 토기와 겹쳐서 부서진 채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결실되어 복원되었다. 기형은 반란형 尖底櫛文土器로 口緣部는 입술 끝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부터 胴部 중간까지는 종주어골문을 施文하였다. 底部 끝에는 회전에 의한 긁힌 자국이 약 3㎝ 높이까지 나타나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 갈색 등을 나타내고 흑반도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기벽은 물손질을 하여 매끈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고 成形은 輪積法으로 하였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4㎝, 높이 43.5㎝, 기벽두께 口緣部 0.5㎝, 기벽 두께는 口緣部가 동체부보다 얇으며 1.1㎝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19, 사진 53)

주거지 남쪽 경사면 중간지점에서 여러 토기가 겹쳐 파손된 채 출토된 것을 완형으로 복원하였다. 기형은 전형적인 반란형 尖底櫛文土器이고 底部가 다른 토기보다 뾰족한 편이다.

口緣部는 胴部 윗부분을 눌러 기벽보다 얇게 口緣部를 만들었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잘랐다. 底部는 비교적 뾰족하게 만들고 바닥에서 4㎝ 정도가지는 회전에 의하여 긁힌 자국이 남아있다. 口緣 바로 아래에는 左右對向 橫走魚骨文을 위에서부터 1/3까지만 施文하였고 橫走魚骨文 중간중간에 문양은 넣지 않은 菱形紋을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을 하여 매끄럽게 잘 정돈되어 있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과 輪積法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적갈색, 외벽은 흑갈색, 흑색 등을 띠고 있는데 이는 불에 탄 주거지가 검게 변한 것으로 보이고 燒成은 양호하다. 胎土는 사질성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높이 39.7㎝, 입지름 34.5㎝, 기벽두께 口緣 0.6㎝, 胴部 1.3㎝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20-①, 사진 54)

주거지 남쪽 경사면 중간지점에서 여러 토기와 겹쳐 파손된 채 출토된 것을 완형 복원하였다. 기형은 반란형 尖底櫛文土器이다. 口緣部는 胴部 윗부분을 연속하여 눌러 胴部보다 얇게 만든 후 입술 끝은 반듯하게 처리하였고 口緣部 내면에도 단사선문을 일부 施文하였다. 底部에서 胴部까지는 완만하게 이어지며 底部에서 5㎝ 위까지는 회전에 의하여 긁힌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緣部바로 아래에는 꺾쇠문을 11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종주어골문을 동체부 중간까지 施文하였다. 기벽외면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돈되어 있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과 輪積法의 흔적이 잘 남아있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 흑갈색을 띠나 이는 주거지가 불탈 때 탄소흡착 에 의한 흑반과 그을음의 영향으로 보인다. 胎土는 사질성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높이 34.8㎝, 입지름 29.5㎝, 두께는 口緣部0.5㎝, 胴部 1㎝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20-②, 사진 55)

바닥 북쪽 모서리에서 옆으로 넘어진 채 출토된 것을 완형으로 복원하였으나 口緣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형은 반란형 尖底櫛文土器이다. 口緣部를 胴部보다 약간 얇게 만들었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단사선문을 6열 施文하고 그 아래에 종속문으로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胴部의 무늬는 종속문에 이어 끝이 부드럽고 폭이 비교적 넓은 施文具로 橫走魚骨文

을 底部까지 施文하고 底部끝에는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기벽은 물손질을 하여 매끄럽게 잘 정돈되어 있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많이 나타났는데 底部쪽에 더 많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적갈색, 암갈색 등이고 흑반도 여러 군데 흡착되어 있다. 胎土는 사질성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높이 26.5㎝, 입지름 22㎝, 기벽두께 1.1㎝이다.

ㅇ 無文土器 (그림 21-①, 사진 56-①)

주거지 남벽 모서리 경사면에서 바닥쪽으로 쓰러진 채 파손된 것을 완형으로 복원하였다. 기형은 반란형 尖底민무늬토기이며 口緣部 넓이가 높이보다 넓다. 口緣部는 직립하고 입술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기벽의 외면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돈이 되어있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과 횡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은 적갈색 황갈색을 띠나 흑반이 많이 흡착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다.

크기는 높이 27.2㎝, 입지름 30.2㎝, 기벽두께 0.6~1.5㎝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21-②, 사진 56-②)

북쪽모서리 바닥에서 파손된 채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1/2정도가 결실되었다. 기형은 반란형의 尖底櫛文土器로 口緣部는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밑에는 조문을 2열 押捺施文하고 그 밑에 단사선무늬를 5열 施文하였다. 胴部무늬로는 종주어골문, 삼각집선문을, 그 밑에 橫走魚骨文을 바닥 가까이까지 시문 후 바닥에는 사선문을 방사상으로 施文하여 모두 6문양대를 만들었다.

기벽의 외면은 물손질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였고, 내면은 일부에 표면박리가 일어났고 바닥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황갈색, 흑색 외면 황갈색, 흑갈색을 띠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높이 22.3㎝, 입지름 21.4㎝, 기벽두께 0.6~1㎝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22-①, 사진 57-①)

주거지 남쪽 경사면 중간지점에 여러 토기와 겹쳐 파손된 채 출토된 것을 완형 복원시켰다. 기형은 전형적인 반란형 尖底 櫛文土器이다. 口緣部는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며

입술을 만들었다. 口緣部 아래에는 단사선문을 9열 압날施文하고 그 밑에 橫走魚骨文을 胴部 중간까지 施文하였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비교적 매끄럽게 정리가 되었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흑색을 띠고 외면은 흑회색을 띠는데 이는 주거지가 불탈 때 숯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높이 25.1㎝, 입지름 22.5㎝, 두께 0.5~1.1㎝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22-②, 사진 57-②)

주거지 남쪽경사면 중간지점에 여러 토기와 겹쳐 파손된 채 출토된 것을 완형으로 복원시켰으나 口緣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형은 포탄형 尖底櫛文土器이다. 口緣部는 내측을 약간 줄이고 입술 끝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口緣部 아래에는 5열의 희미한 점열문을 施文하였고 그 밑에 끝이 부드러운 施文具로 삼각집선문을 施文 후 그 밑에서 바닥까지는 사선문, 직선문을 불규칙하게 施文하여 바닥에서는 서로 교차되어 사격자문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기벽은 내, 외면 물손질하여 비교적 깨끗이 마무리 되어있고, 내면에는 토기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으며 輪積法으로 成形하였다. 색조는 속심 갈색, 흑색, 외면 황갈색, 흑색 등을 나타낸다.

크기는 높이 23㎝, 입지름 16.6㎝, 두께 0.5㎝~1.1㎝이다.

ㅇ 尖底항아리土器 (그림 23-①, 사진 58)

주거지 북쪽 경사면 바닥 가까이에서 토기 바닥이 모래에 묻힌 채 口緣部가 서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넘어진 채 파손되어 있었다. 底部는 다른 櫛文土器와 같이 尖底를 이루고 尖底에서 胴部쪽으로 완만히 올라 胴部 중간 위쪽에서 최대폭을 형성한 후 다시 완만하게 줄어들다 수직으로 목을 세운 尖底 항아리토기이다.

口緣部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고 목의 높이는 1.5㎝정도이다. 이 토기는 민무늬토기이나 어깨위쪽에 엽맥문 1조가 施文되어 있다. 기벽의 외면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리되었으나 燒成이 불량하여 외면에서 표면박리가 심하게 일어났다. 색조는 속심 황갈색, 적갈색이나 외면은 갈색, 명갈색 흑갈색을 띠고 곳곳에 흑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輪積法에 의하여 成形되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크기는 높이 32.9㎝, 입지름 11㎝, 胴部최대폭 25.3㎝, 기벽두께 0.6~1.1㎝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23-②, 사진 71-①)

4호 주거지 동남모서리에서 口緣部가 주거지 바닥쪽으로 향하여 넘어진 상태로 출토된 櫛文土器이다. 기형은 전형적인 반란형 토기로 바닥은 비교적 뾰족한 편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성형시 손누름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우에서 좌하방향으로 단사선문을 6열 압날시문하였고 그 아래에는 종속문으로 6열의 종주어골무늬를 시문하였고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바닥 밑에까지 시문하였다. 바닥끝에는 희미하게 사선문을 방사상으로 시문하였고 동부의 橫走魚骨文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시문하였다. 동부 중간의 橫走魚骨文은 위쪽부분은 가늘고 깊게 그 아래에 1/2정도는 넓고 얇게 시문하였다. 동부 상면과 하면의 시문도구는 다른 것을 사용한 듯하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여 단단한 편이다. 색깔은 내외면 모두 적갈색, 갈색을 띠나 군데군데 흑반이 남아있다.

크기는 높이 35㎝, 입지름 3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櫛文土器 (그림 24-①, 사진 59)

주거지 동벽 경사면 아랫부분에서 파손된 채 출토된 것을 복원하였으나 口緣部와 胴部 일부가 결실된 尖底櫛文土器이다. 口緣部쪽에는 현재 단사선문이 3열 남아있고 그 밑에 종주어골문을, 그 밑으로는 바닥 가까이까지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으나 尖底 바닥 끝부분에는 施文을 하지 않았다. 기벽 內外면에는 물손질을 하여 매끄럽게 정리되었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과 輪積法 마무리 손자국이 잘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조는 속심 갈색, 적색을 띠고 외면은 적갈색, 흑갈색을 나타낸다.

크기는 현존높이 22.8㎝, 기벽두께 0.7~1.2㎝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24-②, 사진 60-①)

주거지 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과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口緣部 바로 밑에는 단사선문을 9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 사각집선문을 비스듬히 교차施文하여 삼각형의 여백을 두었다.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을 밑에서 윗쪽방향의 순서로 촘촘히 施文하였고 胴部 중간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름 0.7㎝ 크기의 구멍을 뚫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외면 암갈색, 흑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6㎝, 현존높이 24㎝, 기벽두께 0.8㎝이고 고른 편이다.

○ 口緣部片 (그림 25-①, 사진 60-②)

남벽 경사면에서 여러 토기와 함께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바로 밑에는 단사선문을 정연하고 촘촘하게 6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胴部에는 끝이 부드러운 施文具로 밑에서 위쪽방향으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기벽 內外는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돈되었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약간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회갈색, 외면 회갈색, 내면 회갈색,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4㎝. 현존높이 12.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25-②, 사진 60-③)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성형시 손누름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緣部 밑에는 현재 점열문이 13열 압날시문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8.3㎝, 세로 6.6㎝, 기벽두께는 몸통에서 口緣部로 가면서 더 얇아지며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25-③, 사진 60-④)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안쪽의 두께가 좁아져 胴部보다 얇게 만들었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 口緣部 밑에는 6열의 단사선무늬가 희미하게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

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내면 황갈색이고, 외면은 표면이 약간 떨어져 나갔다.

크기는 가로 7.6㎝, 세로 5.8㎝,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25-④, 사진 60-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성형시 손으로 누른 성형자국과 가는 종선무늬가 남아있다. 胴部에서 口緣部에 가까워지면서 두께가 얇아져 口緣部는 胴部의 1/2 정도 얇게 만들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밑에는 7열의 단사선문을 押捺施文 하였고 그 밑에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사선무늬가 일부 남아있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6㎝, 세로 5㎝, 기벽두께는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25-⑤, 사진 60-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 口緣部 아래에는 단사선문을 7열 施文하고 그 밑에는 사선문이 일부 보인다. 색깔은 속심 암갈색, 외면 적갈색이고 胎土는 사질성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4.4㎝, 세로 5.7㎝, 기벽두께는 몸통에서부터 口緣部로 가면서 점차 얇아지며 몸통은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25-⑥, 사진 60-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口緣部로 가면서 얇아지며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은 口緣部 아래에는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고 기벽이 일부 떨어져나갔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벽 흑갈색이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가는 풍화암가루가 섞여 있다.

크기는 가로 5.5㎝, 세로 4.1㎝, 기벽두께는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25-⑦, 사진 60-⑧)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 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리되었다. 口緣部에는 좌에서 우방향으로 사선문이 1열 施文되어있다. 색깔은 속심 암갈색 외면 흑갈색이고 내면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5㎝, 세로 3㎝, 기벽두께 1㎝이다.

○ 口緣部片 (그림 25-⑧, 사진 61-①)

남벽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운모와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색깔은 속심 암갈색, 적갈색, 외면 흑회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11㎝, 높이 8.5㎝, 기벽두께는 불규칙하고 胴部에서 口緣部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며 0.9㎝이다.

○ 胴部片 (그림 25-⑨, 사진 61-②)

남벽 경사면에서 다른 토기와 함께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에는 끝이 갈라진 시문구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색이다.

크기는 가로 14㎝, 세로 11㎝,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0.9㎝이다.

○ 胴部片 (그림 25-⑩, 사진 61-③)

남벽 경사면에서 다른 토기와 함께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는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은 거친 편이나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左右對向 橫走魚骨文을 押引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흑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16㎝, 세로 11㎝,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1㎝이다.

○ 胴部片 (그림 25-⑪, 사진 61-④)

남벽 경사면에서 다른 토기와 함께 파손된 채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

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리되었고 내벽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과 문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 자국이 일부 남아있다. 외면은 위쪽에 종주어골문이 일부 남아 있고 아래쪽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색,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10㎝, 높이 9.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底部 (그림 26-①, 사진 61-⑤)

남벽 경사면에서 다른 토기와 함께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리되었으며 내벽에는 토기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底部는 尖底이고 胴部에서부터 橫走魚骨文을 底部 하단까지 施文 후 끝에는 방사상의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이고 크기는 현존높이 11㎝, 두께 1㎝이다.

○ 底部片 (그림 26-②, 사진 62-②)

남벽 경사면에서 다른 토기들과 함께 파손된 채 출토된 底部片이다. 바닥은 平底이고 바닥에서 胴部는 단이 없이 바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대야바닥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비교적 두꺼우며 胴部는 얇은 편이며 바닥을 동부와 붙인 것으로 보인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약간의 운모도 관찰된다.

크기는 추정 저부지름 14㎝, 두께 1.5㎝이다.

○ 갈판, 갈봉, 갈돌 (그림 27, 사진 62-①)

갈판 : 서벽 모서리 아래에서 봉형 갈봉을 밑에 두고 그 위에 갈라진 채 뒤집혀 출토되었다. 갈판의 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단면은 판석형으로 양면을 모두 사용하였다. 윗면은 종방향으로 연속사용하여 횡방향으로 잘록하게 마모된 말안장 모양이며 밑면은 중앙부분이 둥글게 마모된 것으로 보아 원형이나 타원형의 갈돌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모서리 부분도 거칠지 않게 매끄럽게 다듬었다. 크기는 길이 47㎝, 폭 27㎝, 두께는 5㎝이다.

갈봉 : 갈판 밑에서 출토되었다. 형태는 길이 25㎝, 폭 7, 두께 5㎝ 크기 정도의 잘 다듬은 석봉이다. 갈봉은 밑면만을 사용하여 한면만이 심하게 갈려 있으나 윗면은 불에 맞

고 풍화되어 많이 부서진 상태이다. 석질은 화강암이나 풍화가 심하여 잘 부서진다.

갈판과 갈봉, 갈돌이 1조로 출토되어 갈판의 폭과 갈봉의 길이가 같고 갈돌은 갈판의 밑면 사용으로 보인다.

갈돌 : 갈판 옆에서 출토된 갈돌이다. 납작한 타원형의 강자갈돌 양면에 사용흔이 조금씩 남아있다. 크기는 길이 11.4cm, 폭 8.5cm, 두께 3.6cm이다.

o 갈판조각 (그림 28, 사진 62-③)

바닥 남쪽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갈판으로 4쪽으로 갈라진 것을 복원하였으나 1/4 정도가 결실되었다. 석질은 사암이다. 전체적 형태는 장방형의 판석형으로 상면과 하면은 사용흔이 약간씩 남아있고 측면은 모양을 내기 위하여 다듬었으나 전체적으로 사용흔은 많지 않다.

크기는 길이 49cm, 너비 33cm, 두께 4.2cm이다.

o 갈판조각 (그림 26-③, 사진 63-①)

동벽 경사 아랫부분에서 출토된 갈판으로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석질은 사암이다. 형태는 장방형판석으로 추정된다. 상면과 하면 모두 사용하였으나 상면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측면의 일부를 다듬었다.

크기는 가로 26.5cm, 세로 18.6cm, 두께는 고른 편으로 3.9cm이다.

o 갈판조각 (그림 29-①, 사진 63-②)

동벽 중앙 경사면 아랫부분에서 출토된 갈판조각으로 일부만이 남아있다. 석질은 사암이다. 형태는 판석이고 양면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상면은 약간 파인 반면 거칠고 하면은 약간 둥글면서 매끄럽다. 측면은 모양을 내기 위하여 일부를 다듬었다.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1.6cm, 두께는 2.8cm이다.

o 화살촉 (그림 29-②, 사진 63-③)

바닥에서 출토된 무경식 화살촉으로 석질은 편암이다. 날개부분 한쪽이 결실되었다. 단면은 촉끝부분이 렌즈형이나 날개부분으로 갈수록 편육각형이 뚜렷하다. 촉의 날은 날카롭고 끝이 뾰족하다.

크기는 길이 7㎝, 폭 1.3㎝, 두께는 0.3㎝이다.

ㅇ **魚網錘** (그림 29-③, 사진 63-④)

바닥에서 출토된 석제 어망추이며 석질은 반화강암이다. 장타원형의 납작한 강자갈 장축의 양측면을 떼어내어 어망추를 만들었고 한면은 크게 깨뜨려 胴部의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크기는 길이 6.7㎝, 폭 4.8㎝, 두께는 2.1㎝이고, 무게는 82g 이다.

ㅇ **갈봉편** (그림 29-④, 사진 64-①)

바닥에서 출토된 갈봉편이다. 석질은 운모편암이다. 장방형의 갈봉편으로 추정되나 겉면 일부만 남아있어 그 형태는 추정키 어렵다. 외면에는 많이 갈아 반질거린다.

현존크기는 길이 12㎝, 폭 6.8㎝이고, 잔존두께는 1.5㎝이다.

ㅇ **고석** (그림 29-⑤, 사진 64-②)

동쪽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고석이다.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의 둥근 냇돌로 장축일면을 사용하여 일부가 깨어져 있다.

크기는 길인 14.3㎝, 폭 7.6㎝, 두께는 5.9㎝이고 무게는 958g이다.

ㅇ **갈돌** (그림 29-⑥, 사진 64-③)

바닥에서 출토된 갈돌이다.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의 둥근 냇돌을 자연그대로 사용하여 표면은 매끄러운 상태이다.

크기는 길이 11.6㎝, 폭 7.6㎝, 두께 6.7㎝이고 무게는 790g이다.

ㅇ **갈돌** (그림 29-⑦, 사진 64-④)

동쪽 경사면에서 출토된 갈돌이다.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의 납작한 냇돌을 자연그대로 사용하여 표면은 매끄러운 상태이다.

크기는 길이 10.3㎝, 폭 7.2㎝, 두께 3.8㎝이고 무게는 426g이다.

ㅇ **고석** (그림 29-⑧, 사진 64-⑤)

바닥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고석이다. 석질은 석영이다.

지름이 약 5㎝의 원형으로 器面은 거친 편이고 무게는 152g이다.

ㅇ 용도미상 石器 (그림 29-⑨, 사진 64-⑥)

바닥에서 출토된 장방형의 냇돌로 사용 흔은 보이지 않는다. 석질은 석영이다.

크기는 길이 9㎝, 폭 5.5㎝, 두께 2㎝, 무게 138g이다. 퇴적 Ⅰ층 출토유물

〈퇴적층 출토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30-①, 사진 65-①)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단사선문을 8열 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끝이 부드러운 施文具로 우방향에서 좌하방향으로 45°정도로 사선문이 남아있으나 이후로는 알 수 없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는 속심 흑갈색 외면 황갈색, 내면 황갈색, 암갈색이 섞여있다.

크기는 가로 9㎝, 세로 7.5㎝,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口緣部에 가까워질수록 얇아지며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0-②, 사진 65-②)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 口緣部 아래에는 꺾쇠문을 희미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10㎝, 세로 1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0-③, 사진 65-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는 물손질하였다. 口緣部 아래에는 현재 희미하게 꺾쇠문이 5열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세로7㎝, 가로 5.5㎝, 기벽두께는 고른 편이고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0-④, 사진 65-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약간의 운모가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5.5㎝, 세로 7㎝, 기벽두께는 동부에서 입술로 가면서 얇아지며 동부 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0-⑤, 사진 65-⑤)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외면은 물손질하여 매끄러우나 내면에는 박리가 일어 표면이 모두 탈락하였다. 口緣部 아래에는 간격이 넓은 사격자문을 施文하였고 口緣部 4.5㎝ 아래에는 지름 8㎜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약간의 운모도 보인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이고 표면에는 숯가루가 일부 흡착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7㎝, 가로 7㎝, 높이 6㎝, 기벽두께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0-⑥, 사진 65-⑥)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꺾쇠문이 7열 施文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사선문이 보이나 橫走魚骨文으로 추정된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가는 운모도 많이 보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6.5㎝, 세로 7㎝, 기벽두께는 口緣部 밑부분부터 얇아져 입술부분은 동부의 1/2두께정도로 胴部 0.8㎝, 口緣部 0.4㎝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0-⑦, 사진 65-⑦)

주거지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 안쪽의 일부를 깎아내어 입술은 가늘고 둥글게 만들었다. 口緣部 아래에는 현재 4열의 꺾쇠문이 남아있다. 기벽 內外에는 물손질을 하였으나 내면의 일부는 박리가 심하게 일어났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가는 운모도 보인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5㎝, 세로 5.5㎝, 기벽두께는 동부에 비하여 입술은 얇은 편으로 0.8㎝이다.

o 口緣部片 (그림 30-⑧, 사진 65-⑧)

퇴적Ⅰ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口緣部 아래에는 S자 모양의 단사선문이 5열 押捺施文되어있다. 기벽은 내 외면

名稱	圖面番號	圖版番號	文樣內容	整面方法	胎土	色調	두께(㎝)	口緣처리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⑨	66-①	조문 8 押捺施文	內外물손질	점토+모래크기석영	내-명갈색 외-암갈색	0.8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⑩	66-②	횡주어골문 우→좌방향으로	슬립 입힌 후 물손질	점토+모래크기석영	내-적갈색 외-적갈	0.8	口緣部 0.6㎝ 구멍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⑪	66-③	사격자문	슬립 입힌 후 물손질	점토+모래크기석영	내-명갈색 외-암갈색	1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⑫	66-④	단사선문 押捺	슬립 입힌 후 물손질	점토+모래크기석영	내-흑갈색 외-흑갈색	0.7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⑬	66-⑤	사각형문양을 押捺	물손질	점토+석영약간	속-적갈색 외-흑갈색	0.5	입술 둥글게
無文土器 口緣部편	30-⑭	66-⑥	무문	슬립 입힌 후 물손질	점토+석영+운모	속-회갈색 외-암갈색	0.9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⑮	66-⑦	꺾쇠문 押捺 (희미함)	물손질	점토+석영 많음	속-회갈색 內外-암갈색	1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⑯	66-⑧	좌→우방향 사선문	슬립 입힌 후 물손질	점토+석영	속-흑갈색 內外-적갈색	0.9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⑰	67-①	번데기문 押捺	물손질	점토+석영 많음	속-회갈색 內外-흑갈색	0.8	입술 외측으로 경사지게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⑱	67-②	꺾쇠문 押捺	물손질	점토+석영 많음	속-명갈색 외-적갈색	0.8	입술 둥글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⑲	67-③	횡주어골문	물손질	점토+가는 석영	속.내-흑색 외-암갈색	0.7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0-⑳	67-④	6열의 사선문 (불규칙)	물손질	점토+가는 석영+운모	내.속-흑갈색 외-적갈색	0.8	입술 반듯이

모두 물손질하여 매끄러운 편이나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어 굴곡이 형성되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암갈색, 외면 황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5.5㎝, 세로 9.5㎝, 기벽두께는 불규칙하며 胴部 1.2㎝, 口緣0.5㎝이다.

○ **胴部片** (그림 31-①, 사진 67-⑤)

퇴적 Ⅰ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 윗면에는 현재 7열의 꺾쇠문이 施文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시문구로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었다. 胴部 중간에는 아래, 위로 2㎝ 간격을 두고 지름 0.8㎝크기의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기벽 內外는 물 손질하여 정리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색깔은 內外 모두 갈색이나 군데군데 흑반과 흑색을 띤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약간의 운모도 관찰되며 소성은 양호하다.

가로 10.5㎝, 세로 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底部片** (그림 31-②, 사진 67-⑥)

퇴적1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이다. 底部 가까이까지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施文을 하지 않았다. 底部 끝부분에는 회전 흔적이 잘 남아있다. 成形은 輪積法을 사용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가는 운모도 약간 관찰되며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외면 명갈색 내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0㎝, 바닥두께 1.7㎝이다.

○ **底部片** (그림 31-③, 사진 67-⑦)

퇴적Ⅰ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으로 파손된 것을 복원시켰다. 기벽은 슬립을 입히고 물손질하였다. 기벽 안쪽으로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고 외면 일부에는 사선문이 시문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불량하다. 색깔은 內外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5㎝, 기벽두께 0.9㎝이다.

○ **底部片** (그림 31-④, 사진 68-①)

퇴적Ⅰ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이다. 底部 끝부분에서는 문양을 施文하지 않았고 바닥 아래에는 회전 흔적이 둥글게 새겨져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기벽은 물손질하여 깨끗이 정리되었다. 색깔은 속심 암갈색 외면 흑갈색, 내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재높이 7㎝, 바닥두께 1.8㎝이다.

ㅇ 魚網錘 (그림 31-⑤, 사진 68-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석제어망추이며 석질은 규장질암맥이다. 타원형의 납작한 강자갈 장축의 양측 면을 떼어내어 어망추를 만들었다. 한면은 탈락되어 없어졌다.

크기는 길이 6.3㎝, 폭 5.3㎝, 두께 1.1㎝이고 무게는 48g이다.

ㅇ 魚網錘 (그림 31-⑥, 사진 68-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석제어망추이며 석질은 화강암이다. 둥글고 납작한 강자갈 장축의 양측면을 떼어내어 어망추를 만들었다.

크기는 4.4㎝, 폭 4.7㎝, 두께 1.7㎝이고, 무게는 46g이다.

ㅇ 갈돌 (그림 31-⑦, 사진 68-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타원형의 둥근 돌을 이용하여 한면만을 사용하였고 윗면은 입자가 굵은 석영이 그대로 있다.

크기는 길이 10.9㎝, 폭 7.8㎝, 두께 5.3㎝이도, 무게는 562g 이다.

ㅇ 갈판조각 (그림 31-⑧, 사진 68-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갈판조각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현재 남은 상태는 판석형으로 양면을 모두 사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12.3㎝, 폭 6.8㎝, 두께 3㎝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2-①, 사진 69-①)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胴部 안쪽을 눌러 口緣部는 얇게 만들고 입술끝은 외측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

면하였고 내면에는 성형시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 口緣部 아래에는 6열의 단사선문을, 그 아래에는 삼각집선문을 희미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크고 작은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胴部 0.9㎝, 입술 0.5㎝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2-②, 사진 69-②)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 비하여 얇게 만들었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물손질하였고 특히 내면 口緣 아래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 口緣 바로 아래에는 4열의 단사선문을 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종속문으로 삼각집선문을 施文 후 胴部문으로 橫走魚骨文으로 施文하였다. 胎土은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재높이 13.7㎝, 가로 9.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2-③, 사진 69-③)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胴部에서 완만히 내려오다 바닥 가까이에서 안쪽으로 급격히 좁혀진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은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施文具로 횡으로 돌아가면서 점열문을 6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끝이 2구로 갈라진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施文은 바닥 가까이에서 안쪽으로 급격히 좁아지는데까지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조는 內外 모두 암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6㎝, 높이 12.4㎝,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2-④, 사진 69-④)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물손질하였고 기벽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口緣部 아래 4.5㎝에는 지름 0.7㎝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부정형의 문양을 횡방향으로 가면서 연속으로 4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끝이 부드러운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成形방법은 輪積法을 사용하였다. 색깔은 외면 암갈색, 내면 갈색, 회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7.6㎝, 현존높이 10.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3-①, 사진 69-⑤)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아래에는 단사선문 8열 施文하였는데 위쪽 2열은 押捺施文하였으나 나머지 6열은 押捺 후 약간 띄워 다시 압날하는 방식으로 施文하였다. 그 밑으로는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좌에서 우방향으로 비스듬히 施文하였다. 기벽內外는 물손질로 整面하였고 燒成은 약하여 일부가 부스러진다. 기벽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과 물손질자국이 잘 남아 있다. 胎土는 점토에 석영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6㎝, 현존높이 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3-②, 사진 69-⑥)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8열의 단사선문을 施文하였으나 위쪽 2열을 제외한 나머지 6열은 押捺을 깊이하지 않고 옆으로 뉘어서 얇게 押捺하는 방법으로 施文하여 2개의 가느다란 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 밑으로는 橫走魚骨文을 깊게 施文하였다. 기벽 內外면는 물손질로 整面하였고 특히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成形은 輪積法을 사용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색깔은 內外면 회갈색,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5㎝, 현존높이 12.1㎝,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2㎝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3-③, 사진 70-①)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아래에는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압날施文

후 완전히 떼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연속 押捺시문하였다. 그 밑에는 橫走魚骨文을 깊게 施文하였다. 기벽 내면에는 횡방향 물손질 흔적이 잘 남아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색조는 內外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8㎝, 현존높이 8㎝, 기벽두께는 1.1㎝로 고른 편이며 입술의 두께는 일정치 않다.

ㅇ 口緣部片 (그림 33-④, 사진 70-②)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손누름자국으로 인하여 매끄럽지 못하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좌에서 우방향으로 비스듬히 사선문이 施文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립이 섞여 있고 색깔은 內外면 명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가로 7.5㎝, 기벽두께는 몸통에서 口緣部로 가면서 점점 엷어지며 0.6~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3-⑤, 사진 70-③)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 내면에는 물손질 整面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口緣部 아래에는 끝이 2개로 나누어진 둥근 施文具로 횡방향으로 연속 6열 압날施文한 후 그 밑에는 끝이 비교적 날카로운 施文具로 깊게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5㎝, 가로 5.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33-⑥, 사진 70-④)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고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다. 口緣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胴部까지 규칙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운모로 관찰된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2.6㎝, 현존높이 8.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名稱	圖面番號	圖版番號	文樣內容	整面方法	胎土	色調	두께(cm)	口緣처리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①	70-⑤	상:사격자문	횡방향으로 물손질	점토+가는 모래	내-암갈색 외-적갈색	0.8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②	70-⑥	상:6열의 꺾쇠문 押捺 하: 횡주어골문	물손질	점토+가는 모래	내-적갈색 외-흑갈색	0.8	口緣部 0.6 cm 구멍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③	70-⑦	단사선문 4열	물손질	점토+석립	내-갈색 외-황갈색	0.7~0.9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④	70-⑧	무문	물손질	점토+가는 모래	內外 암갈색	1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⑤	70-⑨	상:횡주어골문-하:횡주어골문	횡방향으로 물손질	점토+가는 모래	內外 흑갈색	1	입술 둥글게
無文土器 口緣部편	34-⑥	71-①	좌→우사선문	횡방향으로 물손질	점토+굵고가는 모래	內外 암갈색	0.7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⑦	71-②	상:8열의 점열문 押捺 하: 좌에서 우방향 사선문	燒成불량	점토+가는 모래	속-회갈색 내-적갈색 외-암갈색	0.8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⑧	71-③	상:좌에서 우방향으로 사선문	燒成불량	점토+굵고가는 모래	내-적갈색 외-암갈색	1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⑨	71-④	꺾쇠문 깊게 押捺施文	물손질	점토+가는 모래	內外 암갈색	0.7	입술 외측으로 경사지게
櫛文土器 口緣部편	34-⑩	71-⑤	횡주어골문	물손질	점토+굵고가는 모래	내-적갈색 외-적갈색	1	입술 둥글게
무문토기 口緣部편	34-⑪	71-⑥	무문토기	횡방향으로 물손질	점토+가는 모래 +약간의 운모	內外 흑갈색 외-암갈색	0.9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胴部片	35-①	71-⑦	횡주어골문	물손질	점토+가는 석영 +운모	내-흑갈색 외-적갈색	0.7~0.9	
櫛文土器 胴部片	35-②	72-①	기벽외-횡주어골문 깊게 기벽내-횡조선문 얇게	물손질	점토+굵고가는 석영	內外 적갈색	1	
櫛文土器 胴部片	35-③	71-⑧	사격자문	물손질	점토+석립다수	內外-적갈색	1	

○ **底部片** (그림 35-④, 사진 72-②)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器面은 물손질로 整面하였고 內外면에는 고운 점토로 한겹 입혔다. 底部의 깨어진 부분을 곱게 다듬은 것으로 보아 접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지름 12㎝, 현존높이 4.1㎝, 기벽두께는 1.8㎝이다.

○ **底部片** (그림 35-⑤, 사진 72-③)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器面 內外는 고운 점토로 한겹 입히고 물손질 하였다. 바닥 끝부분의 기면은 사용으로 인하여 많이 떨어져 나갔고 횡방향으로 돌린 횡선자국이 약간 남아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외면 적갈색, 암갈색, 내면은 회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지름 11.8㎝, 현존높이 3.3㎝, 기벽두께는 1.6㎝이다.

○ **底部片** (그림 35-⑥, 사진 73-①)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器面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성형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바닥끝에까지 사선문이 방사상으로 施文되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3㎝, 기벽두께 1.1㎝이다.

○ **底部片** (그림 35-⑦, 사진 73-②)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器面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燒成은 약하다. 바닥에는 橫走魚骨文이 끝에까지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과 석립이 약간씩 섞여있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지름 10.2㎝, 높이 5㎝, 기벽두께 1.2~1.7㎝이다.

○ **底部片** (그림 35-⑧, 사진 73-③)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器面은 물손질하였으나 내면은 거친편이

다. 기벽에는 넓은 간격으로 사선문이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다. 색깔은 내면 황갈색 외면 갈색,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1㎝, 기벽두께 1.3㎝이다.

○ 底部片 (그림 35-⑨, 사진 73-④)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器面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서 박리가 일어났다. 외면 바닥은 많이 사용하여 달아 있고, 橫走魚骨文이 끝부분까지 施文되어 있다. 색깔은 내면 회갈색 외면 적갈색을 띠며 燒成은 비교적 양호하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석립과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크기는 가로 14㎝, 현존높이 5㎝, 기벽두께는 1.3㎝이다.

○ 底部片 (그림 36-①, 사진 73-⑤)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燒成은 양호하다. 문양은 바닥끝까지 사선문을 방사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흑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 기벽두께 1.3㎝이다.

○ 갈판 조각 (그림 37-⑪, 사진 74-①)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갈판 조각으로 석질은 사암이다. 갈판의 형태는 판석형이고 윗면만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갈려있다. 모서리는 모양을 내기 위해 일부 다듬었다.

크기는 길이 19.5㎝, 폭 13.2㎝, 두께 2.7㎝이다.

○ 갈판 조각 (그림 37-⑫, 사진 74-②)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갈판조각으로 석질은 사암이다. 갈판의 형태는 판석형이고 윗면만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갈려있다.

크기는 길이 9.3㎝, 폭 7.3㎝, 두께 3㎝이다.

○ 돌도끼편 (그림 38-⑤, 사진 76-①)

어깨선 근처에서 어망추와 함께 출토된 돌도끼片으로 석질은 화강암질편마암이다. 두

부는 결실되었고 날부분만 일부 남아있다. 날은 조개날로서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끝부분이 휘어져있다.

크기는 길이 6.7㎝, 폭 6.6㎝, 두께 3.21㎝이다.

ㅇ 갈봉편 (그림 38-①, 사진 74-③)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갈봉의 끝부분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갈봉의 단면은 방형이고 1면만을 사용하여 많이 달은 편이나 거칠다.

길이 8.4㎝, 폭 7㎝, 두께 5.6㎝이다.

ㅇ 돌칼 (그림 38-②, 사진 74-④)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돌칼의 일종으로 끝부분만 일부 남아있으며 석질은 화강암이다. 단면은 렌즈형이고 날은 조개날로서 양면을 갈아 날을 만들었으나 거친 편이다. 등부분은 조화를 맞추기 위해 여러 군데 떼어냈다.

크기는 길이 6.5㎝, 폭 5.5㎝, 두께 2.1㎝이다.

ㅇ 돌칼 (그림 38-④, 사진 74-⑥)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돌칼로서 석질은 화강암이다. 돌칼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한면만을 날로서 사용하였다. 날은 양면을 갈아 비교적 날카로운 날을 만들었다. 돌칼의 등은 여러 군데 떼어 불규칙하다.

크기는 길이 12.5㎝, 폭 7.2㎝, 두께 1.1㎝이다.

ㅇ 돌칼조각 (그림 38-③, 사진 74-⑤)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돌칼조각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돌칼의 형태는 장방형이나 양쪽이 결실되고 가운데에만 일부 남아있다. 날은 양쪽을 갈아 날을 만들었으나 거친 편이다. 등쪽은 안쪽으로 약간 휘어지며 날보다 두껍다.

크기는 길이 6.4㎝, 폭 3.7㎝, 두께 0.5㎝이다.

〈4호 생활면 출토 어망추〉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36-②	75-①	생활면	규장질암맥	타원형	7×6.1×2.5	128	
36-③	75-②	생활면	화강암	〃	7.5×5.8×2.2	138	
36-④	75-③	생활면	규장질암맥	〃	7.8×6.6×2	146	
36-⑤	75-④	생활면	규장질암맥	〃	8.1×7.2×1.6	130	
36-⑥	75-⑤	생활면	규장질암맥	〃	8.2×6.1×1.3	114	
36-⑦	75-⑥	생활면	규장질암맥	부정형	7.9×5.9×1.5	102	
36-⑧	75-⑦	생활면	규장질암맥	장타원형	7.8×5.3×1.7	100	
36-⑨	75-⑧	생활면	규장질암맥	타원형	7.8×5.9×2	114	
36-⑩	75-⑨	생활면	규장질암맥	장타원형	7.4×5.7×1.4	92	
36-⑪	75-⑩	생활면	규장질암맥	타원형	6.4×6×2.4	108	
37-①	75-⑪	생활면	화강암	타원형	6.7×5×2	80	
37-②	75-⑫	생활면	화강암	타원형	6.6×6×2	104	
37-③	75-⑬	생활면	규장질암맥	〃	7×6×1.4	100	
37-④	75-⑭	생활면	규장질암맥	〃	7.8×5.7×2.1	100	
37-⑤	75-⑮	생활면	규장질암맥	〃	7.6×6.2×1.7	78	
37-⑥	75-⑯	생활면	규장질암맥	부정형	6.2×5.6×1.2	38	
37-⑦	75-⑰	생활면	규장질암맥	타원형	5.7×5.6×1.4	46	
37-⑧	75-⑱	생활면	화강암	〃	5.3×5×1.4	54	
37-⑨	75-⑲	생활면	화강암	〃	6×4.6×1	48	
37-⑩	75-⑳	생활면	화강암	〃	8×6.2×2.5	158	

o 화살촉 (그림 38-⑥, 사진 76-②)

생활면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만입촉으로 매우 정교하게 마연하였다. 날부분은 양편에서 갈아 매우 날카로우며 胴部의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크기는 길이 7.2㎝, 폭 1.5㎝, 두께 0.2㎝이다.

o 화살촉 (그림 38-⑧, 사진 76-③)

생활면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니암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형만입촉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으나 석질이 단단하지 못하여 가는 흠집이 생겼다. 날부분은 양편에서 갈아 날카로우며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크기는 길이 5.8㎝, 폭 1.6㎝, 두께는 0.2㎝이다.

○ **화살촉** (그림 38-⑦, 사진 76-④)

생활면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형만입촉으로 매우 정교하게 마연되었다. 날부분은 양면에서 갈아 매우 날카롭고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크기는 길이 6.4㎝, 폭 1.5㎝, 두께 0.2㎝이다.

○ **화살촉** (그림 38-⑨, 사진 76-⑤)

생활면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형만입촉으로 매우 정교하게 마연하였다. 날부분은 양편에서 갈아 매우 날카롭고 살을 끼우기 쉽게 가운데 부분에 얕은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5.5㎝, 폭 1.4㎝, 두께 0.3㎝이다.

○ **화살촉** (그림 38-⑪, 사진 76-⑥)

생활면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형만입촉으로 정교하게 마연하였다. 날부분은 양편에서 갈아 매우 날카로우며 단면은 렌즈형이다.

크기는 길이 6.4㎝, 폭 1.7㎝, 두께 0.4㎝이다.

○ **화살촉** (그림 38-⑩, 사진 76-⑦)

생활면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형만입촉으로 추정되나 경부가 결실되었다. 날부분은 양편에서 갈아 매우 날카로우며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크기는 길이 6.5㎝, 폭 1.6㎝, 두께 0.2㎝이다.

○ **화살촉** (그림 38-⑫, 사진 76-⑧)

생활면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전체적인 기형은 유엽촉으로 추정되나 경부가 결실되었다. 날은 양편에서 갈아 매우 날카로우며 단면은 렌즈형이다.

크기는 길이 4㎝, 폭 1.5㎝, 두께 0.3㎝이다.

⑤ 5호 住居址 (그림 39, 사진 21-②~㉓)

● 遺構

S-5호 주거지는 S-4호 주거지 북쪽 7m 지점 현지표하 170㎝, Ⅱ층 갈색모래층에서 어깨윤곽선이 처음 노출되어 동북쪽 9m씩 확장한 결과 동-서 직경 5.1m, 남-북 5.8m 크기의 원형 윤곽선이 노출되었다. S-5호 주거지의 윤곽선은 다른 주거지에서 보이는 Ⅳ, Ⅴ층에서 겹치는 것과는 달리 Ⅱ층 갈색모래층에서 노출되었으며 불탄 주거지의 흔적은 없었다. 발굴조사 결과 주거지의 바닥 크기는 동-서 2.9m, 남-북 2.9m, 넓이 8㎡의 크기이고 형태는 말각방형이다.

바닥에는 진흙을 깔았고, 바닥 가운데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지름 60㎝ 정도의 불에 탄 붉은 소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화덕자리로 추정된다. 주거지 윤곽선까지는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 있는데 남쪽벽은 다른 3면의 벽보다 기울기가 더 낮고 길어 출입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출토유물로는 남쪽 출입구쪽 경사면에 구연부가 좁고 목이 있는 민무늬호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고, 주로 바닥 가장자리에서 10여 점의 토기편과 냇돌과 할석편이 많이 출토되었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o 壺形土器 (그림 40-①, 사진 77-①)

출입구로 추정되는 남쪽경사면에 口緣部 가 남쪽을 향한 채 옆으로 넘어져 출토되었으나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다. 토기의 기형은 최대폭이 어깨에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급격히 줄어들다 直立口緣을 만들었으나 입술부분은 결실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토기는 서리기 방법으로 成形하였으나 燒成이 약하여 쌓은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0㎝, 최대폭 22.5㎝, 기벽두께 0.8~1.2㎝, 口緣部 지름 10㎝이다.

○ **口緣部片** (그림 40-②, 사진 77-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5열의 꺾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황갈색을 나타낸다.

크기는 높이 5.5㎝, 가로 6㎝, 기벽두께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40-③, 사진 77-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약간 둥근 편이고 胴部에 비하여 얇게 만들었다. 기벽을 물손질로 整面하였고 口緣部 아래에만 짧은 多齒具를 비스듬히 押印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약간의 운모가 관찰되며 소성은 약하여 많이 부스러졌다. 색깔은 외면 흑갈색, 내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5.7㎝, 세로 5.7㎝, 기벽두께는 0.4~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40-④, 사진 77-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 는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口緣部 아래에는 점열횡선문을 3열 돌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끝이 무딘 시문구로 단사선문을 희미하게 押捺施文 후 口緣部를 정리하여 맨 위쪽 문양은 눌리어져 변형되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燒成은 약하여 내면이 떨어져 나갔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내면 명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6.7㎝, 세로 5㎝, 기벽두께는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40-⑥, 사진 77-⑤)

경사면에서 출토된 口緣部片이다. 口緣部 는 반듯하게 만들었고 기벽의 외면은 소문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5.9㎝, 세로 5.4㎝,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40-⑤, 사진 77-⑥)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횡선흔적이 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이 5열 押捺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이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4.6㎝, 현존길이 5.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1㎝로 胴部에 비하여 두께가 얇은 편이다.

o 口緣部片 (그림 40-⑦, 사진 77-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외측에서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하였고 燒成은 불량한 편이다. 口緣部 안쪽에는 유기물의 숯들이 흡착되어 있다. 문양은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짧고 무딘 多齒施文具를 비스듬히 押捺施文하는 방식으로 이어갔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7.3㎝, 세로 3.6㎝, 기벽두께 0.5~0.7㎝이다.

o 口緣部片 (그림 40-⑧, 사진 77-⑧)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아래에서부터 삼각집선문을 가늘고 선명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6㎝, 세로 4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o 胴部片 (그림 41-①, 사진 78-①)

주거지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에는 끝이 부드러운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불규칙하고 가늘고 얕게 施文하였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 있으며 成形은 輪積法을 사용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흑갈,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15.4㎝, 세로 14㎝, 기벽두께는 약간 고르지 못하고 1㎝이다.

ㅇ **胴部片** (그림 41-②, 사진 78-②)

주거지 경사면에서 출토된 胴部片이다. 胴部 위쪽에는 단사선문이 아래쪽에는 종속문으로 추정되는 종주어골문이 施文되어 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과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석립과 운모가 섞여있고 소성은 보통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9.5㎝, 세로 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胴部片** (그림 41-③, 사진 78-③)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윗쪽에는 단사선문이 아래쪽에는 종속문으로 추정되는 종주어골문이 施文되어 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7.7㎝, 세로 8.8㎝,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胴部片** (그림 41-④, 사진 78-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위쪽에는 점열횡선문을 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끝이 부드러운 施文具로 우에서 좌방향으로 비스듬히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나 내면은 거친 편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이나 일부에 유기물의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10㎝, 세로 5㎝, 기벽두께는 고르지 못한 편으로 0.9㎝이다.

ㅇ **胴部片** (그림 41-⑤, 사진 78-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이 선명하게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섞여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갈색, 內外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8.3㎝, 세로 5.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胴部片** (그림 41-⑥, 사진 78-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기벽이 약간 떨어졌다.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이 가늘고 얕게 施文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섞여 있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6.9㎝, 세로 4.5㎝, 기벽두께 1.1㎝이다.

ㅇ 胴部片 (그림 41-⑦, 사진 78-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은 거친 편이다. 胴部에는 사격자문이 施文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흑색이다.

크기는 가로 4.1㎝, 세로 5.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魚網錘 (그림 41-⑧, 사진 79-①)

바닥에서 출토된 토제어망추로 토기片을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 장축의 양끝을 떼어내어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4.6㎝, 폭 4㎝, 두께 1㎝이다.

ㅇ 魚網錘 (그림 41-⑨, 사진 79-②)

바닥에서 출토된 석제어망추이며 석질은 화강암이다. 타원형의 납작한 강자갈 장축의 양측면을 떼어내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4㎝, 폭 5.3㎝, 두께 2.2㎝이고, 무게는 110g이다.

ㅇ 갈봉편 (그림 41-⑩, 사진 79-③)

바닥에서 출토된 갈봉편으로 석질은 흑운모편마암이다. 갈봉의 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을 띤다. 갈봉의 양쪽은 결실되었고, 납작한 2면 중 1면은 반듯하게 다른 1면은 약간 둥글게 갈려있다.

크기는 길이 17.5㎝, 폭 6㎝, 두께 2.9㎝이고, 무게는 548g이다.

ㅇ 숫돌조각 (그림 41-⑪, 사진 79-④)

바닥에서 출토된 숫돌조각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단면이 삼각형인 숫돌로 많은 부분

이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다. 숫돌은 양면을 이용하였으나 밑면은 한쪽모서리만 사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14.2㎝, 폭 11.5㎝, 두께 2.7㎝이다.

ㅇ 숫돌조각 (그림 42-①, 사진 79-⑤)

바닥에서 출토된 숫돌조각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단면이 판석형으로 양면을 모두 이용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석질은 풍화되어 잘 부서진다.

크기는 길이 14㎝, 폭 10.3㎝, 두께 3.4㎝이다.

ㅇ 石斧 (그림 42-②, 사진 79-⑥)

바닥에서 출토된 석부의 일종으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괭이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질은 염기성암맥이다. 전체적 기형은 장방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중간에는 양쪽을 떼어 내어 결구에 용이하게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11.8㎝, 폭 7㎝, 두께 2.7㎝이고, 무게는 362g이다.

ㅇ 갈돌편 (그림 42-③, 사진 80-①)

바닥에서 출토된 갈돌편으로 기형은 원통형으로 추정되나 결실부가 커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석질은 백운모편암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8.7㎝, 폭 6.4㎝, 두께 1.5㎝이다.

ㅇ 추정고석 (그림42-⑤, 사진 80-②)

바닥에서 출토된 강돌로 모서리 부분을 3부분 타격하였다. 器面은 매끈하며 뾰족한 모서리쪽 1면이 마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석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길이 19.1㎝, 폭 10.6㎝, 두께 10.7㎝이다.

ㅇ 圓盤形石器 (그림 42-④, 사진 80-③)

바닥에서 출토된 원반형석기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기형은 납작하고 둥근 형태이고 사용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크기는 길이 12.7㎝, 폭 10.7㎝, 두께 1.7㎝이다.

⑥ 6호 住居址 (그림 43 , 사진 24~29-①)

● 遺構

S-6호 주거지는 B4 트렌치 상에 위치하며 도로확장공사시 주거지의 1/2이상이 파괴되었다. 남북으로 1m의 둑을 남기고 북쪽지역을 8m×13m로 확장한 결과 지름 10m의 주거지 윤곽선이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동쪽은 4호 주거지와 같이 Ⅱ층 갈색모래층에서 노출되었고, 서쪽은 Ⅳ층 흑갈색층에서 노출되었다. 6호 주거지에 동서로 두께 50㎝의 둑을 남기고 1차로 주거지 안에 퇴적된 갈색 모래층을 30㎝ 정도 제거하자 주거지 중심선에서 동남→북서방향으로 또 다른 주거지 어깨선이 나타나 정리한 결과 처음에 나타난 윤곽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주거지 윤곽선이 중복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7호 주거지가 폐기되고 난 후 6호 주거지를 그 안에 다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S-6호 주거지의 어깨윤곽선 크기는 동-서 4.2m, 남-북 9.5m이고, 바닥의 크기는 현존 동-서 4.4m, 남-북 8m, 면적 34㎡이고 수혈의 깊이는 20㎝이다.

S-6호 주거지와 처음 나타난 윤곽선의 관계는 동쪽은 3m 정도 떨어져 있고, 남북쪽은 거의 윤곽선에 접하고 있는데 남쪽부분은 벽과 생활면이 연결되어 주거지바닥에서 출토되는 토기편과 같은 종류의 토기편들이 남쪽벽 옆으로 계속 연결되어 노출되었다.

S-6호 주거지의 동쪽 윤곽선 안쪽으로 1.2~1.4m 간격으로 5개의 기둥흔적이 조사되었다. 바닥의 형태는 방형이며, 진흙을 얇게 깔았고, 화덕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S-6호 주거지 역시 도로공사시 일부 파괴되어 절반정도만 남아있다. 6호 주거지의 남쪽으로는 바닥퇴적층과 생활퇴적층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퇴적되어 일단 인공층위로 위에서부터 10㎝씩 Ⅰ, Ⅱ, Ⅲ층으로 구분하여 퇴적층을 제거하였다. 6호 주거지 출토유물은 지경리에서 조사된 10기의 주거지 중 유일하게 남해안의 김해 수가리유적에서 출토된 문양의 토기편들이 상당량 출토되었고, 주거지바닥과 퇴적층에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214개의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 遺物

〈바닥 출토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44-①, 사진 81-①)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고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內外면 모두 거친 편이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삼각집선문을 정연하지 못하게 번갈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소성은 보통이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14㎝, 세로 1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4-②, 사진 81-②)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짧은 사선문을 좌에서 우방향으로 沈線施文하고 그 밑으로 약간의 공간을 띄운 다음 반대로 우에서 좌방향으로 단사선문을 반복施文하여 불규칙한 橫走魚骨文을 구성하였다. 특히 좌에서 우방향으로 비스듬히 施文한 것은 문양이 깊고 폭이 넓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약간의 굵은 석립이 섞여 있고 활석이 많이 섞여 있어 부분적으로 은백색을 많이 띠며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암갈색에 활석에 의한 은백색이 많이 나타난다.

크기는 현존높이 11.8㎝,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4-③ , 사진 81-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안쪽을 약간 경사지게 하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둥근 施文具로 굵고 깊게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현재 사선문이 일부 남아있다. 시문의 순서는 동부에서 口緣部방향으로 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조는 내면 적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 가로 1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44-④, 사진 81-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우에서 좌하 방향으로 사선을 긋고 다시 그 위에 좌에서 우하 방향으로 사선을 그어 그물무늬를 施文하였으나 그물무늬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그 아래에는 사선문이 일부 남아있다. 태토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9.7㎝, 가로 1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44-⑤, 사진 81-⑤)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하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에는 물손질한 찰과흔과 내면의 손누름자국이 잘 남아있으나 기벽은 고르지 못한 편이다. 施文은 口緣部 3㎝ 아래에서부터 좌에서 우방향으로 끝이 갈라지고 둥근 施文具로 넓고 깊게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기벽 내면에는 유기물이 산화되고 남은 탄소가 흡착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조는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44-⑥, 사진 81-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하고 입술은 약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며 내면에는 횡방향의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짧은 사선에 의한 橫走魚骨文이 굵고 깊게 施文되었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약간의 가는 모래와 활석이 많이 섞여 있어 두드리면 쇳소리가 난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나 활석에 의하여 회백색을 띠기도 한다.

크기는 현존높이 11.4㎝, 기벽두께는 고른 편이고 0.7~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44-⑦, 사진 82-①)

주거지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하고 입술은 반듯하

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삼각집선문을 조밀하고 일정하게 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일정하게 사선문이 施文되었다. 成形은 윤적법을 사용하였고 내경방식에 의하여 쌓았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운모가 일부 관찰되고 색깔은 외면 적갈색, 암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7㎝, 기벽두께는 일정하고 0.8㎝이다.

o 口緣部片 (그림 44-⑧, 사진 82-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약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둥근 施文具로 점문을 押捺施文 후 기벽에서 떼지 않고 다시 점문을 촘촘히 연속 施文하는 방법으로 능형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6㎝, 기벽두께는 일정하고 0.9㎝이다.

o 口緣部片 (그림 45-①, 사진 82-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며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는데 위쪽의 사선문은 끝이 2개로 갈라진 施文具를 사용하였고 아래쪽은 끝이 뾰족한 施文具를 사용하여 깊고 넓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흑색을 띤다.

크기는 현재높이 7.1㎝, 두께는 일정하고 0.7㎝이다.

o 口緣部片 (그림 45-②, 사진 82-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으로 입술끝은 불규칙하나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 내면은 물손질 整面하여 횡선자국이 남아있으나 器面은 거친 편이다. 외면은 口緣部 바로 밑에서부터 끝이 갈라진 施文具로 깊고 넓게 사선문을 施文하였으나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활석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나 활석에 의하여 일부 은백색을 띠기도 한다.

크기는 현존높이 6㎝이고, 기벽두께는 일정하지 못하고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③, 사진 82-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 片이다. 口緣部는 둥글게 만들었고 燒成은 약하여 외면이 약간 부스러졌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사선문이 施文되어있으나 선의 간격과 크기가 불규칙하다. 내면에는 갈대껍질과 같이 속이 빈 줄기자국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갈색, 內外면 흑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9㎝, 기벽두께는 불규칙하고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④, 사진 82-⑥)

주거지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외반시킨후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1㎝, 두께는 일정하고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⑤, 사진 82-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거치나 燒成은 양호하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폭이 넓은 施文具로 삼각집선문을 넓고 얕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색깔은 속심 명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7㎝, 기벽두께는 0.8㎝이나. 胴部보다 口緣部가 더 가늘고 두께는 일정치 않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⑥, 사진 83-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안쪽에서 밖으로 약간 외반시킨 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유기물의 탄소가 일부

붙어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폭이 넓은 施文具로 6열의 횡조선을 施文하고 그 밑에 사선문이 일부 보이나 결실되어 알 수 없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8㎝, 기벽은 일정하고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⑦, 사진 83-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안쪽에서 밖으로 약간 외반시킨 뒤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특히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폭이 넓고 끝이 둥근 施文具로 깊은 사선문을 교차로 押引施文하였으나 일부만 남아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다. 口緣部 바로 밑에 施文한 사선문은 施文 후 口緣部 끝을 밖으로 외반시키는 과정에서 짓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施文 후 口緣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흑갈색, 내면 적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재높이 7.5㎝,, 기벽두께는 일정하며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⑨, 사진 83-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은 비교적 거친 편이나 외면은 매끄럽게 整理되었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우에서 좌하로 사선을 긋고 그 위에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을 긋는 방법으로 그물무늬를 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현재 사선문이 일부 남아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8.9㎝, 기벽두께는 일정하며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⑧, 사진 83-④)

바닥에서 출토된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를 안쪽으로 약간 내만시킨 뒤 直立으로 약간 세운 후 입술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부드

러운 施文具로 사선문 4개를 비스듬히 施文하는 방법으로 능형집선문을 넣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내면 적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2㎝, 현존높이 8.2㎝, 기벽은 일정하며 0.5~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⑩, 사진 83-⑤)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안쪽에서 밖으로 약간 외반시킨 후 입술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면은 물손질 정리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1.3㎝ 아래에서부터 6㎝까지만 施文하였다. 施文방법은 꺾쇠문 6~8개를 한조로 연속적으로 비스듬히 施文하여 菱形紋 속에 단사선문이 施文된 것처럼 보이나 꺾쇠문을 여러 개 밀집 施文하여 菱形紋이 나타나도록 施文한 일명 금강식토기의 문양과 같은 형식이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약간의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속심, 내면 적갈색을 띠고, 외면은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5㎝이고, 기벽두께는 일정하며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⑪ 사진 83-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내면은 굴곡이 심하다. 외면은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활석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모두 활석이 많이 섞인 관계로 은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8㎝, 기벽두께는 일정하고 두께는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⑫, 사진 83-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보다 가늘게 축약시킨 후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으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기벽은 물손질 정리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횡방향의 손누름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깊고 가는 2줄을 수직으로 내려긋고 그 사이에 횡선문을 촘촘히 넣은 제형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적

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 기벽두께는 일정하고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5-⑬, 사진 84-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기형은 胴部에서 약간 비스듬히 줄어들다 口緣部 가까이에서 다시 밖으로 약간 외반하는 성향으로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면은 물손질하였고 외면 口緣部 아래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施文은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6㎝까지 단사선문 6개를 연속해서 비스듬히 押捺施文, 능형문을 연속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6㎝, 현존높이 6.6㎝, 기벽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쪽이 더 두꺼운 편으로 0.6~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①, 사진 84-②)

바닥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둥근 施文具로 폭이 넓고 깊게 사선문을 施文하였으나 문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내면 황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②, 사진 84-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완만히 좁혀지다 口緣部를 바로 세우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외면에는 단사선문을 비스듬히 5~6개씩 압날한 능형문을 시문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4㎝이고 기벽은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46-③, 사진 84-④)

주거지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상부에서 기벽 안쪽 두께를 완만히 줄인 후 입술끝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깊고 가는 2줄을 수직으로 내려 긋고 그 안에 사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조는 속심 적갈색 외면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46-④, 사진 84-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으며 기벽은 물손질하여 매끈한 편이다.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속이 빈 갈대나 대나무 같은 施文具를 이용하여 45°각도로 押引施文한 후 그대로 밑으로 당겨 직각으로 세워 찍는 방법으로 폭이 넓고 깊게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8㎝, 기벽두께는 1.2㎝로 외면이 일정하지 않다.

○ **口緣部片** (그림 46-⑤, 사진 84-⑥)

주거지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토기의 기형은 작은 발로 추정되며 口緣部는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약간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뾰족하고 가는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연속 沈線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적갈색을 띠며 크기는 추정 입지름 17.6㎝, 현존높이 5㎝, 기벽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가 더 두꺼우며 胴部 0.5㎝, 口緣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46-⑥, 사진85-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완만히 줄어들다 直立으로 약간 세운 후 입술끝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물손질하여 매끈하게 정리되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짧은 단사선문을 6~9개씩 한조로 비스듬하게 押捺施文하는 방법으로 능형문을 연속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

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기벽두께 胴部 0.9㎝, 口緣部 0.4㎝로 口緣部가 胴部보다 얇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⑦, 사진 85-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잘랐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5열의 짧은 다치구로 연속 押捺施文하였고 그 밑으로는 종속문으로 추정되는 파상문이 약간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약간의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⑧, 사진 85-③)

바닥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의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 폭이 넓고 깊게 불규칙한 삼각집선문을 施文 후 그 아래에는 현재 사선문만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과 약간의 운모가 섞여있다. 색깔은 속심, 내면, 흑갈색, 외면 적갈색,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기벽두께는 고른 편이다. 口緣部가 胴部보다 얇은 片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⑨, 사진 85-④)

바닥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외반시킨 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잘 남아 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속이 비고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좌에서 우 하방향으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 모두 회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⑩, 사진 85-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완만히 좁혀지다 바로 입술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벽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橫走魚骨文을 짧게 施文하였고, 施文 사이사이에는 유기물 탄화숯이 곳곳에 흡착되어 있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은백색의 활석가루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색깔도 內外모두 흑갈색을 띠나 활석에 의해 곳곳에 은백색이 나타난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9.6㎝, 현존높이 4.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⑪, 사진 85-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내면은 깨끗한 편이나 외면은 거칠다. 口緣 아래 1㎝부터 우에서 좌하방향으로 사선을 긋고 그 위에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을 그어 그물무늬를 施文하였으나 그 간격은 불규칙하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외면이 많이 부스러졌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⑫, 사진 85-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기벽 안쪽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토기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횡으로 돌아가며 일정하게 나타난다. 외면에는 口緣바로 아래부터 짧은 사선문을 깊게 押引하고 그 밑에 반대 방향으로 사선문을 施文하는 방법으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활석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흑갈색을 띠나 활석에 의하여 곳곳에 은백색을 나타난다.

크기는 현존높이 6㎝, 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7-①, 사진 86-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완만히 좁혀지다 직립의 구연을 만든 후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 정리에 의한 횡선자국이 일부 남아있다. 외벽은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짧은 사선문을 연속 施文하여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활석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외면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9㎝, 현존높이 3.6㎝, 기벽은 고른 편으로 두께는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6-⑬, 사진 86-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잘랐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종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바로 아래부터 끝이 둥근 施文具로 우에서 좌하방향으로 사선문을 긋고 그 위에 좌에서 우방향으로 시문하여 그물무늬를 만들었으나 밑의 사선무늬는 희미하여 잘 나타나지 않는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 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7-②, 사진 86-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종횡방향의 가는 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가는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연속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內外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5㎝, 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7-③, 사진 86-④)

바닥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좁혀지다 口緣部를 바로 만들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처리하였다. 기벽은 토기成形 후 붉은색 점토를 얇게 한겹 입힌 후 횡방향으로 마연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약간의 굵은 석립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내면 흑색, 적갈색, 외면 적색, 흑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7.3㎝, 현존높이 6.8㎝이고, 기벽두께는 일정하며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47-⑤, 사진 86-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바로 아래부터 사격자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약간의 모래 크기의 석영가루가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황갈색, 內外면 흑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4.4㎝, 현존높이 3.4㎝이고 두께는 고른 편으로 0.6~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47-④, 사진 86-⑥)

주거지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口緣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이고, 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47-⑧, 사진 86-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외측으로 눌러 단이 지며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로부터 점열문을 연속으로 압날施文하여 사선문을 만든 후 사선문을 횡방향으로 연속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7㎝, 기벽두께는 0.5㎝으로 고른 편이다.

○ 口緣部片 (그림 47-⑥, 사진 86-⑧)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외측으로 약간 경사지게 하여 둥글게 만들었다. 외면 口緣 1㎝아래부터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문을 긋고 그 남은 공간에 끝이 둥글고 뾰족한 施文具를 연속적으로 비스듬히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5㎝이고, 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47-⑦, 사진 87-①)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깊게 압날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 6㎝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47-⑨, 사진 87-②)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으로 굴곡이 생겼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길고 짧은 여러 종류의 단사선문을 횡으로 연속 押捺施文하였고 그 밑으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7㎝이고, 기벽두께는 불규칙하여 胴部보다 口緣部가 더 얇으며 0.7㎝이다.

○ **底部片** (그림 47-⑩, 사진 87-③)

바닥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底部片으로 여러 조각으로 파손된 것을 복원하였다. 바닥은 완전 평저가 아닌 대야바닥으로 밑동은 불규칙하게 눌리어져 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굴곡이 심하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불규칙하게 찍혀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잘 부스러진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8㎝이고, 바닥두께는 고르지 못한 편으로 1㎝이다.

○ **底部片** (그림 47-⑫, 사진 87-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바닥은 비교적 완만한 편으로 외면에는 사선문이 방사상으로 깊게 施文되어 있고 내면에는 물손질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색깔은 내면 갈색, 속심 적갈색, 외면 흑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5㎝이고, 바닥두께는 2㎝이다.

ㅇ **底部片** (그림 47-⑪, 사진 87-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바닥은 비교적 완만한 편으로 외면에는 폭이 넓은 施文具로 사선문을 방사상으로 底部끝까지 施文하였다. 내면은 토기가 떨어져나가 관찰이 어려우나 물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토기의 成形은 서리기 방법을 이용하여 나선형으로 底部를 쌓아올렸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였으나 燒成은 약하여 잘 떨어진다. 색깔은 속심 갈색, 황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4㎝이고 바닥두께는 1.3㎝이다.

ㅇ **磨製石斧** (그림 48-①, 사진 87-⑥)

바닥에서 출토된 마제석부로 석질은 염기성암맥이다. 전체적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날은 조갯날로서 양면을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두부는 두드린 흔적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잘 갈아 매끈하다.

크기는 길이 10.2㎝, 폭 5.4㎝, 두께 3.1㎝이다.

ㅇ **화살촉편** (그림 48-②, 사진 87-⑦)

바닥에서 출토된 화살촉편으로 석질은 점판암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형촉으로 추정되나 촉끝부분과 경부가 결실되었다. 단면은 편육각형이고 器面은 매우 거친 편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9.6㎝, 폭 2.5㎝, 두께 0.4㎝이다.

ㅇ **화살촉편** (그림 48-③, 사진 87-⑧)

바닥에서 출토된 화살촉편으로 석질은 점판암이다. 전체적 기형은 유엽형촉으로 추정되나 촉 끝부분과 경부가 결실되었다. 경부의 끝에는 양면에 깊은 홈을 만들었다. 단면은 렌즈형이고 器面표면은 매우 정교하게 갈아 날카롭다.

크기는 길이 7.4㎝, 폭 1.5㎝, 두께 0.5㎝이다.

ㅇ **화살촉편** (그림 48-④, 사진 87-⑨)

바닥에서 출토된 화살촉끝편으로 석질은 점판암이다. 현재 남은 기형은 삼각형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갈았으나 화살촉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길이 4.6㎝, 폭 1.5㎝, 두께 0.4㎝이다.

6호 바닥 출토 魚網錘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48-⑤	88-①	바닥	화강암	장타원형	8.2×6×2.1	172	
48-⑥	88-②	바닥	백운모화강암	〃	7.6×6.1×2.8	186	
48-⑦	88-③	바닥	화강암	〃	8.8×5.3×2.4	174	
48-⑧	88-④	바닥	화강암	〃	7.4×4.6×1.9	108	
48-⑨	88-⑤	바닥	반화강암	〃	8×5.5×1.9	116	
48-⑩	88-⑥	바닥	화강암	타원형	7×6.5×2.6	142	
48-⑪	88-⑦	바닥	산성암맥	〃	7.6×7.5×1.5	132	
48-⑫	88-⑧	바닥	화강암	〃	7.5×6.3×1.6	114	
48-⑬	88-⑨	바닥	반화강암	〃	8.5×7.1×1.7	150	
48-⑭	88-⑩	바닥	화강암	〃	8.1×6.9×1.7	140	
48-⑮	88-⑪	바닥	우백질화강암	장타원형	7×5.2×2.2	120	
48-⑯	88-⑫	바닥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6.2×5.5×1.7	96	
48-⑰	88-⑬	바닥	우백질화강암	〃	5.3×5.5×2	76	
48-⑱	88-⑭	바닥	우백질화강암	〃	6.11×5.3×2	80	
48-⑲	88-⑮	바닥	우백질화강암	〃	6.7×5.7×2.2	118	
48-⑳	88-⑯	바닥	우백질화강암	〃	6.3×6.1×1.8	140	
48-㉑	88-⑰	바닥	우백질화강암	장타원형	7.6×5.5×2.5	134	
48-㉒	88-⑱	바닥	우백질화강암	〃	7.7×5.3×1.8	120	
48-㉓	88-⑲	바닥	반화강암	〃	8×4.7×1.5	76	
48-㉔	88-⑳	바닥	반화강암	타원형	7×6.2×1.2	76	
49-①	89-①	바닥	우백질화강암	장타원형	6.4×4.5×2.3	90	
49-②	89-②	바닥	규암	타원형	5.4×4.9×2.1	84	
49-③	89-③	바닥	우백질화강암	〃	6×5×1.4	60	
49-④	89-④	바닥	우백질화강암	장타원형	6×4.1×1.5	56	
49-⑤	89-⑤	바닥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5.7×5.3×1.7	74	
49-⑥	89-⑥	바닥	우백질화강암	〃	4.8×4×2.4	76	
49-⑦	89-⑦	바닥	반화강암	〃	4.7×4.2×1.3	38	
49-⑧	89-⑧	바닥	반화강암	〃	5.7×4.7×1.8	66	
49-⑨	89-⑨	바닥	반화강암	〃	5.2×4.4×1.5	46	
49-⑩	89-⑩	바닥	우백질화강암	〃	6.3×4.4×1.9	62	
49-⑪	89-⑪	바닥	반화강암	장타원형	7.3×5.2×1.2	64	
49-⑫	89-⑫	바닥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6.2×5.4×1.6	78	
49-⑬	89-⑬	바닥	우백질화강암	〃	5.8×5.3×2.1	78	
49-⑭	89-⑭	바닥	반화강암	장타원형 (파손이심함)	6.2×5.1×2.2	78	
49-⑮	89-⑮	바닥	화강암	장방형	6.2×4.6×1.5	74	
49-⑯	89-⑯	바닥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6.5×5.5×1.7		
49-⑰	89-⑰	바닥	백석영	〃	5.9×6.1×2	106	
49-⑱	89-⑱	바닥	규장질암맥	〃	7.4×6.2×2.5	122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49-⑲	89-⑲	바닥	화강암	〃	6.2×4.7×2	86	
49-⑳	89-⑳	바닥	석영	방형	6.1×5.2×1.5	64 〃	
50-①	90-①	바닥	반화강암	타원형	8.5×7×2	156	
50-②	90-②	바닥	화강암질편마암	장타원형	8×6.7×1.8	150	
50-③	90-③	바닥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6.3×6.1×2	88	
50-④	90-④	바닥	석영장석질편마암	장타원형	9×7.4×2.5	174	
50-⑤	90-⑤	바닥	반화강암	타원형	7.3×6.6×2.3	152	
50-⑥	90-⑥	바닥	편마암	〃	5×4.9×2.1	70	
50-⑦	90-⑦	바닥	편마암	장타원형	5.9×4.4×1.7	60	
50-⑧	90-⑧	바닥	편마암	장방형	6.4×3.5×1.6	58	
50-⑨	90-⑨	바닥	우백질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3.6×4.7×1.7	48	
50-⑩	90-⑩	바닥	화강암	장방형	4.8×6.2×2.2	116	
50-⑪	90-⑪	바닥	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4.1×2.8×1.5	28	
50-⑫	90-⑫	바닥	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6.2×6.9×2.5	150	
50-⑬	90-⑬	바닥	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7.5×5.2×2.7	122	
50-⑭	90-⑭	바닥	반화강암	장타원형(파손이심함)	8.8×5.2×1.9	92	
50-⑮	90-⑮	바닥	반화강암	장타원형	9×4.6×1.8	120	
50-⑯	90-⑯	바닥	반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7×6.3×1.2	66	
50-⑰	90-⑰	바닥	반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0.6×5×3	96	
50-⑱	90-⑱	바닥	반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5.2×5.6×1.6	68	
50-⑲	90-⑲	바닥	반화강암	장타원형	8.5×5.2×1	70	
50-⑳	90-⑳	바닥	반화강암	장타원형(파손이심함)	8.5×5.7×1.4	82	
50-㉑	90-㉑	바닥	반화강암	장타원형	6.9×5.4×1.9	102	
50-㉒	90-㉒	바닥	반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6.9×4.4×1.1	46	

o 갈돌 (그림 51-①, 사진 91-①)

바닥에서 출토된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의 납작한 냇돌로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전체적으로 매끈한 편이다.

크기는 길이 12.8㎝, 폭 10.4㎝, 두께 5.2㎝이고 무게는 904g이다.

o 갈돌 (그림 51-②, 사진 91-②)

바닥에서 출토된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전체적 형태는 말각방형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갈돌은 제일 넓적한 1면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은 거친 편이다.

크기는 길이 11㎝, 폭 8.5㎝, 두께 5.4㎝이고 무게는 862g이다.

o 석기 (그림 51-③, 사진 91-③)

바닥에서 출토된 석기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전체적인 기형은 타원형의 납작한 냇돌로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기벽은 고운 편이나 갈은 흔적은 없고 한쪽 면을 깨뜨렸다.

크기는 길이 13.6㎝, 폭 10㎝, 두께 3.4㎝이고 무게는 718g이다.

o 갈돌 (그림 51-④, 사진 91-④)

바닥에서 출토된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전체적 기형은 납작한 냇돌로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기벽은 잘 마연되어 매끈하다.

크기는 길이 9㎝, 폭 7.5㎝, 두께 3.5㎝이고 무게는 344g이다.

o 갈돌 (그림 51-⑤, 사진 91-⑤)

바닥에서 출토된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전체적 기형은 납작한 원형이다. 밑면과 윗면 모두를 사용하였으나 밑면은 잘 마연되어 넓고 매끄러우나 윗면은 약간만 사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10.6㎝, 폭 8.9㎝, 두께 7㎝이고 무게는 796g이다.

o 口緣部片 (그림 52-①, 사진 91-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하였고 내면에는 박리현상이 일어나 면이 고르지 못하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2줄의 직선을 수직으로 내려긋고 그 사이에 끝이 둥근 시문구를 이용하여 횡방향의 삼각집선문을 押引施文하였다. 施文은 施文具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살짝 누른 다음 떼지 않고 押引하여 施文이 끝나는 부분은 깊게 눌러 마무리를 지여 전체적으로 제형삼각집선문을 기벽전체에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내면 적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53.8㎝, 현존높이 16㎝이고, 기벽두께는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른 편으로 0.9~1.3㎝이다.

o 口緣部片 (그림 52-②, 사진 91-⑦)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하게 잘랐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둥글고 갈라진 施文具로 깊고 넓게 삼각집선문을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약간의 운모도 관찰된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內外면 모두 적갈색,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9㎝, 현존높이 13.9㎝이고, 기벽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가 좀더 두꺼운 상태로 0.7~1㎝이다.

o 口緣部片 (그림 53-①, 사진 91-⑧)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불규칙하나 대체로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유기물탄소가 일부에 흡착되어 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는 문양을 施文하지 않고 9㎝ 아래부터 끝이 뾰족하고 부드러운 施文具를 이용하여 깊게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나 표면에 균열이 많이 생겼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갈색,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4.6㎝, 현존높이 17.3㎝이고, 기벽두께는 고르지 않고 0.9㎝이다.

o 口緣部片 (그림 53-②, 사진 92-①)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으나 안쪽으로 약간 눌리어졌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종방향의 물손질에 의한 종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끝이 날카로운 施文具로 깊고 넓게 능형집선문을 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갈색, 내면 암갈색, 외면 갈색,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6㎝이고, 기벽은 고른 片으로 1㎝이다.

o 口緣部片 (그림 53-③, 사진 92-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아래의 문양 일부가 口緣部 작업시 없어져 문양施文 후 口緣部를 정리 한 것으로 보인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2㎝ 아래에서부터 끝이 마모된 施文具를 이용하여 넓고 깊게 삼각집선문을 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0.8㎝, 현존높이 18㎝이고, 기벽은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4-①, 사진 92-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종·횡방향의 가는 선자국이 많이 남아있으나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12㎝까지, 제형집선문을 그 아래에는 胴部문으로 橫走魚骨文을 넓고 깊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49㎝, 현존높이 17.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4-②, 사진 92-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제형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 9.2㎝이고,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4-③, 사진 92-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젖히며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 口緣部 바로 아래에는 삼각집선문을, 그 아래에는 斜線文을 시문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4-④, 사진 92-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으로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탄화된 유기물이 흡착되어 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2㎝ 아래에서부터 끝이 갈라진 施文具를 이용하여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內外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①, 사진 93-①)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기형은. 胴部 최대폭이 중간 위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형토기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완만하게 오므라들다 바로 입술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종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부분이 가는 ㄱ자모양의 작은 施文具를 비스듬하게 6~7개씩 한조를 이뤄 불규칙하게 압날하여 능형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강한 편이다. 색깔은 속심, 內外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9㎝, 현재높이 6.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②, 사진 93-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기벽안쪽을 밖으로 약간 좁히며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면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약간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 끝이 둘로 약간 갈라진 施文具로 우에서 좌하방향으로 2개의 사선을 긋고 그 안에 횡조선을 연속施文한 제형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재높이 7.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이나 口緣部쪽이 더 얇은 편이고 胴部 0.9㎝, 口緣部 0.5㎝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③, 사진 93-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내면은 표면이 많이 떨어져나가 거친 편이다. 외면은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폭이 넓은 施文具로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색깔은 내면 회갈색, 외면 갈색,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재높이 6.7㎝이고, 기벽은 胴部보다 口緣部가 더 두꺼우며 口緣部 1.2㎝, 기벽 두께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④, 사진 93-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2개의 사선을 押引施文 후 그 가운데 횡선을 연속해서 施文한 제형집선문이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적갈,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⑤, 사진 93-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깨끗하게 整面되었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11열 押捺施文 후 그 밑에 다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와 약간의 운모가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9㎝이며,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⑥, 사진 93-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끝부분은 약간 둥근 편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깨끗이 整面되었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 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끝이 2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사선을 긋고 그 사이

에 횡선문을 연속으로 施文하여 제형집선문을 만들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8.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無文土器口緣部片 (그림 55-⑦)

퇴적층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整面되었고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0㎝, 현재높이 6.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⑧, 사진 94-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문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희미한 단사선문이 6열 押捺施文되어있다. 胎土는 精選된 고운 점토에 할석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암갈색이나 할석에 의하여 곳곳에 은백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⑨, 사진 94-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완만하게 좁혀들다 바로 입술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문이 약간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드문선으로 된 능형집선문을 거칠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내면 적갈색 외면 적갈색,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9㎝이고 기벽두께는 고르지 못하여 胴部 1.2㎝, 口緣 0.6㎝을 나타낸다.

ㅇ 口緣部片 (그림 55-⑩, 사진 94-④)

퇴적층에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밖으로 경사지게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은 기벽이 모두 벗겨졌다. 외면에는 口緣部 아래에 끝이 갈라지고 둥근 施文具로 넓고 깊게 橫走魚骨文을 1줄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색깔은 속심 내면 황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9.3㎝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①, 사진 94-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5.5㎝까지 꺾쇠문 6~8개를 한조로 비스듬히 앞날施文하는 방법으로 능형문을 연속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토기成形 후 內外면에 붉은색의 고운 진흙을 덧입혔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흑색, 內外면 모두 적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0㎝, 현존높이 6.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②, 사진 94-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밖으로 약간 젖히며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부드러운 施文具로 우에서 좌하방향으로 사선을 긋고 그 위에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을 그어 사격자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고 색깔은 속심 흑색, 內外면 회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6.6㎝, 현존높이 4.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③, 사진 95-①)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를 밖을 젖히며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 내외면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삼각집선문을 조밀하게 배치하였고, 그 아래에는 사선문이 일부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흑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3㎝이고, 기벽두께는 일정하며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④, 사진 95-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거친 능형집선문이 일부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흑회색, 내면 암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5㎝이고, 기벽두께는 불규칙하여 0.7~0.5㎝을 이룬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⑤, 사진 95-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문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 속심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7㎝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⑥, 사진 95-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능형집선문을 불규칙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⑦, 사진 95-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약간 좁혀지다 입술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면은 물손질 整面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5㎝이고, 기벽두께는 불규칙하여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56-⑧, 사진 95-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약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 사격자문이 정연하게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암갈색, 내면 황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32㎝이고, 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56-⑨, 사진 95-⑦)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를 밖으로 약간 젖히며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끝이 다치구로 된 시문구로 단사선문을 사선으로 6~9열 집중 押捺施文하여 비교적 큰 능형문을 연속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4㎝이고, 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56-⑩, 사진 96-①)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약간 좁혀지다 口緣部를 바로 세우며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 바로 아래에는 끝이 작고 둥근 施文具로 점을 연속으로 押捺施文하는 방법으로 횡조선을 돌렸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 **胴部片** (그림 56-⑪, 사진 96-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으로 기벽은 물손질하였다. 기형은 櫛文土器 목부분으로 추정되며 기면에는 連續之字文이 촘촘하고 정연하게 押捺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胴部片** (그림 56-⑫, 사진 96-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 내면은 물손질하여 깨끗하게 整面되었으나 외면은 많이 부서졌다. 기벽에는 끝이 3개로 갈라진 施文具로 연속 押捺施文하여 타원형을 만들고 이 타원형을 불규칙하게 연속으로 베풀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외면이 많이 부스러져 있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胴部片** (그림 56-⑬, 사진 96-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외면에는 끝이 3갈래로 갈라진 타원형의 작은 施文具를 연속으로 押捺하여 사선문을 만들고 이 사선문을 불규칙하게 집선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현존높이가 3.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4㎝이다.

○ **胴部片** (그림 56-⑭, 사진 96-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은 깨끗이 정리되었다. 胴部에는 끝이 둥글고 가는 施文具로 점열문을 횡방향으로 연속 押捺施文하여 점열횡선문을 만들고 그 밑으로는 종속문으로 보이는 작은 거치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2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 **有孔把手片** (그림 56-⑮, 사진 96-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파수片이다. 파수는 돌기를 만들어 胴部에 부착시키고 그 위에 얇은 점토를 덧입혀 마무리지었다. 파수의 형태는 장타원형으로 납작한 편이다. 파수의 가운데에는 횡으로 지름 1.2㎝ 크기의 의 구멍이 뚫려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길이 3.5㎝, 폭 2.5㎝, 두께 1.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56-⑯, 사진 96-⑦)

퇴적층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거친 편으로 외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口緣部 2㎝ 아래에는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파수의 형태는 장타원형으로 납작한 편이고 가운데에는 지름 0.7㎝ 의 구멍이 횡으로 뚫려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가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길이 3㎝, 폭 1.4㎝, 두께 1㎝이다.

ㅇ 有孔把手片 (그림 56-⑰, 사진 97-①)

퇴적층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파수片이다. 파수는 돌기를 만들어 胴部에 눌러 부착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파수는 말각방형의 형태이고 가운데에는 0.6㎝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단단하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길이 2.2㎝, 폭 2㎝, 두께 1.4㎝이다.

ㅇ 有孔把手片 (그림 56-⑱, 사진 97-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파수片이다. 파수는 돌기(지름 1.7㎝, 두께 1㎝)를 만들어 胴部에 눌러 부착시켰다. 파수의 형태는 반원형으로 가운데에는 길이 1.31㎝ 폭 0.8㎝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약하여 표면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파수의 크기는 길이 3.2㎝, 폭 2.5㎝, 높이 2㎝이다.

ㅇ 底部片 (그림 57-①, 사진 97-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이다. 底部는 尖底이나 끝부분에 지름 3㎝ 크기의 둥근 구멍이 안에서 밖으로 뚫려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특히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을 바닥 가까이까지 施文하고 바닥 끝에는 사선문을 방사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o 胴部片 (그림 57-④, 사진 98-①)

퇴적층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胴部片이다. 기형은 완만하게 둥근 편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깨끗이 정면되었다. 胎土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내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o 底部片 (그림 57-②, 사진 98-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바닥은 완만히 둥근 丸底로 추정된다. 기벽은 內外면 물손질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胎土는 점토에 약간의 사립가루가 섞였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內外면 회갈색,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이고, 기벽은 고른 편으로 0.7㎝이다.

o 底部片 (그림 57-③, 사진 98-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바닥은 각이 넓게 벌어진 尖底이다. 기벽은 거친 편으로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이 불규칙하게 施文되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3㎝이고, 바닥 두께 1.5㎝, 기벽 0.9㎝이다.

o 底部片 (그림 57-⑤, 사진 98-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깨끗하게 整面되었고 기벽에는 문양을 施文하지 않았다. 바닥은 각이 좁은 尖底로 끝이 많이 마모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크고 작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회갈색, 내면 적갈색, 외면 암갈색,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이고, 기벽두께는 바닥 2㎝, 胴部는 1㎝이다.

o 底部片 (그림 57-⑥, 사진 98-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으로 바닥은 많이 벗겨지고 마모되어 기벽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부에 사선문을 엿볼 수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다. 색깔은 속심 갈색, 적갈색, 내면 적갈색, 외면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이고, 기벽두께는 바닥 2㎝, 胴部는 1㎝이다.

○ **底部片** (그림 57-⑦, 사진 98-⑥)

*** 5-6호 퇴적1층 출토 魚網錘**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58-①	99-①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7.8×6.8×2.2	172	
58-②	99-②	퇴적1층	호상편마암	〃	9.2×7.2×2	236	
58-③	99-③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9.2×8.5×3.5	434	
58-④	99-④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8.3×7×3.4	292	
58-⑤	99-⑤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8.5×7.2×2.7	260	
58-⑥	99-⑥	퇴적1층	염기성암맥	장타원형	9.4×5.4×2.1	128	
58-⑦	99-⑦	퇴적1층	산성암맥	〃	10.5×5×1.7	138	
58-⑧	99-⑧	퇴적1층	화강암	〃	8.4×6.1×2.2	194	
58-⑨	99-⑨	퇴적1층	페그마타이트맥	타원형	7.7×7.1×2.7	176	
58-⑩	99-⑩	퇴적1층	산성암맥	장타원형	9×6.1×1.7	144	
58-⑪	99-⑪	퇴적1층	화강암	〃	7.7×5.2×2.2	146	
58-⑫	99-⑫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7.5×6.3×3.1	180	
58-⑬	99-⑬	퇴적1층	맥석염	장타원형	7×4.8×3	130	
58-⑭	99-⑭	퇴적1층	반화강암	〃	7.6×5.6×3.2	170	
58-⑮	99-⑮	퇴적1층	반상화강암	〃	7.6×5.2×1.9	122	
58-⑯	99-⑯	퇴적1층	반화강암	〃	7.2×5.9×2.6	168	
58-⑰	99-⑰	퇴적1층	석영반암	〃	8.1×5×2.2	132	
58-⑱	99-⑱	퇴적1층	화강암	〃	8.4×5.1×1.9	136	
58-⑲	99-⑲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7.8×5.6×1.5	112	
58-⑳	99-⑳	퇴적1층	장석반암	〃	8.6×6×2.2	150	
59-①	100-①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3×4.7×2.3	104	
59-②	100-②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6×4.8×2.8	130	
59-③	100-③	퇴적1층	석영반암	〃	7.3×5×1.8	104	
59-④	100-④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7.2×5.5×2.3	120	
59-⑤	100-⑤	퇴적1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7.9×5.2×1.7	104	
59-⑥	100-⑥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6.5×5.2×1.8	96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59-⑦	100-⑦	퇴적1층	반화강암	방형	6×6.4×1.6	128	
59-⑧	100-⑧	퇴적1층	편마암	장타원형	7.2×5.3×1.3	84	
59-⑨	100-⑨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6.7×5.8×2.2	134	
59-⑩	100-⑩	퇴적1층	석영반암	장타원형	7.2×4.5×2.1	116	
59-⑪	100-⑪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6.3×5.2×2.2	108	
59-⑫	100-⑫	퇴적1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8.5×5×1.6	110	
59-⑬	100-⑬	퇴적1층	화강암	타원형	6.8×5.6×1.9	124	
59-⑭	100-⑭	퇴적1층	반화강암	〃	6.6×5.6×1.8	84	
59-⑮	100-⑮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5.9×4.9×2.5	96	
59-⑯	100-⑯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장타원형	5.5×4.2×2	98	
59-⑰	100-⑰	퇴적1층	장석반암	〃	4.8×7.4×1.2	68	
59-⑱	100-⑱	퇴적1층	석영	타원형	6.4×5.3×1.6	72	
59-⑲	100-⑲	퇴적1층	화강암질편마암	장타원형	6.5×5×1.6	88	
59-⑳	100-⑳	퇴적1층	반화강암	〃	7×4.8×1.3	82	
60-①	101-①	퇴적1층	반화강암	〃	6.6×4.7×2.3	96	
60-②	101-②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5.8×4.3×1.8	84	
60-③	101-③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6×5.2×2	78	
60-④	101-④	퇴적1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7.5×5×1.7	94	
60-⑤	101-⑤	퇴적1층	규암	〃	7.2×5.1×2	110	
60-⑥	101-⑥	퇴적1층	화강암질편마암	타원형	5.4×2.3×5.2	102	
60-⑦	101-⑦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1×5.5×2	120	
60-⑧	101-⑧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3×5.8×2.1	106	
60-⑨	101-⑨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5.8×5×2.4	100	
60-⑩	101-⑩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4×5×2.4	100	
60-⑪	101-⑪	퇴적1층	화강암질편마암	〃	6.9×5.4×2.3	130	
60-⑫	101-⑫	퇴적1층	석영맥	〃	5.8×5×2	104	
60-⑬	101-⑬	퇴적1층	석영맥	〃	6.8×5.8×1.7	90	
60-⑭	101-⑭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7.2×6.3×2.1	154	
60-⑮	101-⑮	퇴적1층	반화강암	〃	6.3×5×1.7	68	
60-⑯	101-⑯	퇴적1층	흑운모편마암	장타원형	8.4×6.2×1	134	
60-⑰	101-⑰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6.4×6.4×1	60	
60-⑱	101-⑱	퇴적1층	반화강암	〃	6.6×6.5×2.1	138	
60-⑲	101-⑲	퇴적1층	반화강암	〃	7.1×6..1×2	132	
60-⑳	101-⑳	퇴적1층	화강암질편마암	〃	6×5.1×2.7	126	
61-①	102-①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방형	6.1×6.8×2.9	192	
61-②	102-②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장방형	8.6×5×3	184	
61-③	102-③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방형	7.5×6×2.2	158	
61-④	102-④	퇴적1층	장석	장방형	8×5.9×2.4	196	
61-⑤	102-⑤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9×4.5×2.1	120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61-⑥	102-⑥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9×5.9×2.2	194	
61-⑦	102-⑦	퇴적1층	석영	타원형	3.6×4.9×3.7	174	
61-⑧	102-⑧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방형	8.3×7×3.3	298	
61-⑨	102-⑨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장방형	7.5×5×2	90	
61-⑩	102-⑩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방형	6.2×5.8×3	130	
61-⑪	102-⑪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1×5.8×2.3	124	
61-⑫	102-⑫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6.5×6.8×2	114	
61-⑬	102-⑬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방형	6.6×4.5×3.5	138	
61-⑭	102-⑭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5.6×5.4×2.4	106	
61-⑮	102-⑮	퇴적1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8.5×4.6×1.9	92	
61-⑯	102-⑯	퇴적1층	반화강암	장방형	7.8×5×1.7	92	
61-⑰	102-⑰	퇴적1층	석영	타원형	6.5×5.7×3	134	
61-⑱	102-⑱	퇴적1층	반화강암	방형	5.7×5.3×1.9	74	
61-⑲	102-⑲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7.1×6.4×1.7	104	
61-⑳	102-⑳	퇴적1층	화강암질편마암	장타원형	7.5×5.3×1.1	70	
62-①	103-①	퇴적1층	백석영	타원형	6.3×5.8×2	110	
62-①	103-②	퇴적1층	반화강암	〃	7.9×7.9×1.2	122	
62-③	103-③	퇴적1층	반화강암	〃	7×6×2.1	122	
62-④	103-④	퇴적1층	반화강암	방형	5.6×4.7×5.2	102	
62-⑤	103-⑤	퇴적1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7.8×5.4×1.4	68	
62-⑥	103-⑥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6.3×5.1×1.6	54	
62-⑦	103-⑦	퇴적1층	화강암	〃	5.2×5.1×2.3	96	
62-⑧	103-⑧	퇴적1층	반화강암	〃	7×5.5×1.1	70	
62-⑨	103-⑨	퇴적1층	반화강암	〃	6.5×5.9×2.4	34	
62-⑩	103-⑩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6.7×5×2.3	98	
62-⑪	103-⑪	퇴적1층	앰피볼라이트질암	〃	6.3×5.2×1.2	68	
62-⑫	103-⑫	퇴적1층	화강암질편마암	〃	5.8×4.7×1.5	44	
62-⑬	103-⑬	퇴적1층	장석반암	〃	4.7×4.2×1.3	32	
62-⑭	103-⑭	퇴적1층	염기성암맥	〃	5.2×4.5×1	34	
62-⑮	103-⑮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	5×4.5×1.7	50	
62-⑯	103-⑯	퇴적1층	반화강암	〃	4.5×4.5×0.9	26	
62-⑰	103-⑰	퇴적1층	반화강암	〃	4.2×3.7×1.2	30	
62-⑱	103-⑱	퇴적1층	석영	장타원형	5.7×3.9×1.4	48	
62-⑲	103-⑲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3.9×3.4×1.8	38	
62-⑳	103-⑳	퇴적1층	반화강암	타원형	4.1×3.4×1	20	
62-㉑	103-㉑	퇴적1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6.7×4.3×1.4	58	
62-㉒	103-㉒	퇴적1층	화강암	〃	6.4×5×1.4	54	
62-㉓	103-㉓	퇴적1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4.4×5.4×2.5	82	
62-㉔	103-㉔	퇴적1층	반화강암	〃	4.7×5×2.3	62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成形 후 내면에 한겹의 진흙을 덧입힌 후 물손질하였다. 외면에는 끝이 갈라진 施文具로 바닥끝까지 사선문을 방사형으로 沈線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5㎝이고, 기벽두께는 바닥 1.5㎝, 胴部 1㎝이다.

ㅇ 底部片 (그림 57-⑧, 사진 98-⑦)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내면은 거의 벗겨졌다. 외면에는 바닥끝까지 사선문을 깊게 沈線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작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다. 胎土는 속심 적갈색, 내면 명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2㎝이고, 기벽두께는 고르지 못하며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3-①, 사진 104-①)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口緣部 안쪽으로는 약간 깎아내 胴部보다 얇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깊고 넓은 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內外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8.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胴部 1.2㎝, 口緣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3-②, 사진 104-②)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으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고운 점토에 할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成形기법은 輪積法을 사용하였다. 색깔은 갈색을 띠나 할석에 의하여 곳곳에 은백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 0.9로 고른 편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3-③, 사진 104-③)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하여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부터 6㎝까지에만 불규칙한 집선문이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8.7㎝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口緣部片 (그림 63-④, 사진 104-④)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胴部에서 완만히 좁혀들다 입술을 양쪽에서 좁히며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아래부터 끝이 가늘게 여러 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능형문을 불규칙하게 연속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이고, 기벽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가 얇은 상태로 胴部 0.8㎝, 口緣 0.5㎝이다.

○ 口緣部片 (그림 63-⑤, 사진 104-⑤)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할석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흑색이나 할석에 의하여 곳곳에 은백색을 띠기도 한다.

크기는 현존높이 7.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胴部片 (그림 63-⑥, 사진 104-⑥)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施文具로 깊고 넓게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5.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 **胴部片** (그림 63-⑦, 사진 104-⑦)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내면은 거친 편이다. 외면 윗부분에는 단사선문을 얕게 施文하였고 胴部에는 끝이 날카로운 施文具로 깊게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고운 점토에 할석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띠나 할석으로 인하여 곳곳에 은백색이 관찰된다.

크기는 현존높이 7.4㎝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63-⑧, 사진 104- ⑧)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끝이 4개로 나누어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연속적으로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6-퇴-2층 魚網錘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64-①	105-①	퇴적2층	반화강암	타원형	10.3×8.7×1.6	208	
64-②	105-②	퇴적2층	백운모화강암	〃	8×7.7×3	264	
64-③	105-③	퇴적2층	반상화강암	〃	7.5×6.8×2.1	168	
64-④	105-④	퇴적2층	반화강암	장방형	8.4×5.8×2	180	
64-⑤	105-⑤	퇴적2층	반화강암	타원형	7×7×2.2	134	
64-⑥	105-⑥	퇴적2층	반화강암	〃	6.4×5.9×2	104	
64-⑦	105-⑦	퇴적2층	반화강암	〃	6.8×5.9×2.3	120	
64-⑧	105-⑧	퇴적2층	반화강암	장방형	7.8×6.2×1.6	86	
64-⑨	105-⑨	퇴적2층	반화강암	방형(파손이심함)	6.5×5.7×1.1	50	
64-⑩	105-⑩	퇴적2층	반화강암	타원형	7×6×1.4	82	
64-⑪	105-⑪	퇴적2층	반화강암	〃	5×4.9×1.6	56	
64-⑫	105-⑫	퇴적2층	석영	〃	5.4×4.8×2.2	178	
64-⑬	105-⑬	퇴적2층	우백질화강암	〃	5.8×5.1×1.5	72	
64-⑭	105-⑭	퇴적2층	화강암	장타원형	5.9×4.2×2.2	82	
64-⑮	105-⑮	퇴적2층	반화강암	장방형	6.1×3.9×1.5	52	
64-⑯	105-⑯	퇴적2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4.7×3.6×1.4	32	
64-⑰	105-⑰	퇴적2층	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6.2×5.5×1.7	72	
64-⑱	105-⑱	퇴적2층	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6.4×5.2×2.1	94	
64-⑲	105-⑲	퇴적2층	염기성암맥	타원형(파손이심함)	3.5×5×1.5	42	
64-⑳	105-⑳	퇴적2층	화강암	타원형(파손이심함)	3×3.2×1.3	22	

ㅇ 갈판 조각 (그림 65-①, 사진 106-①)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갈판 조각으로 석질은 반화강암이다. 원래는 원반형으로 추정되나 깨어져 일부 남아있다. 단면은 납작하고 2면중 1면만 사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16㎝, 폭 13㎝, 두께 5㎝이다.

ㅇ 화살촉 (그림 65-②, 사진 106-②)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화살촉으로 석질은 회흑색 셰일이다. 전체적 기형은 무경식 유엽촉으로 잘 마연되었다. 촉끝 일부는 결실되었고 경부끝부분은 일자로 처리하였으며, 2개의 작은 홈을 나란히 뚫었다.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길이는 6.5㎝, 폭 1.7㎝, 두께 0.4㎝이다.

ㅇ 화살촉편 (그림 65-③, 사진 106-③)

퇴적 Ⅱ층에서 출토된 화살촉편으로 석질은 녹색 셰일이다. 형태는 유엽형으로 경부가 결실되었다. 촉의 뒷면은 깨어져 없어졌고 1면만 남아있다. 촉날은 날카롭고 잘 마연되었다.

크기는 길이 3.4㎝, 폭 1.2㎝, 현존높이 0.2㎝이다.

ㅇ 화살촉편 (그림 65-④, 사진 106-④)

퇴적Ⅱ층에서 출토된 화살촉편으로 석질은 갈색 셰일이다. 형태는 유엽형으로 추측되며 끝부분이 결실되었다. 면은 정교하게 갈았고 날은 날카롭다.

크기는 길이 4㎝이도, 폭 1.3㎝, 두께 0.3㎝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6-①, 사진 106-⑤)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삼각집선문을 커다랗게 구획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약간 관찰되며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내면 암갈색, 황갈색, 외면 암갈색,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44㎝, 현존높이 12㎝이고 기벽두께는 전체 크기에 비하여 얇은 편으로 0.5~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66-②, 사진 106-⑥)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정연하게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66-③, 사진 106-⑦)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기형은 胴部에서 口緣部로 올라가면서 밖으로 약간 젖힌 후 입술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정연하게 압날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0㎝이고, 현존높이는 5.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66-④, 사진 106-⑧)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약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외면은 고르지 못하고 굴곡이 약간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7㎝, 현존높이 5㎝이고 기벽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가 두꺼운 편으로 胴部 0.4㎝, 口緣部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66-⑤, 사진 107-①)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사격자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고운 운모가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6-⑥, 사진 107-②)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3㎝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6-⑦, 사진 107-③)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끝을 밖으로 젖혀 입술끝이 밖으로 돌출되게 하여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수직으로 내려 그은 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내면 암갈색, 외면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7-①, 사진 107-④)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胴部는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밑에서부터 끝이 무디어진 施文具로 제형집선문을 沈線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7㎝, 현존높이 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67-②, 사진 107-⑥)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종선흔적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가는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67-③, 사진 107-⑦)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기형은 胴部에서 완만하게 좁혀지다 바로 반듯한 입술을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깨끗하게 整面되었고 成形은 輪積法을 사용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7.5㎝, 현존높이 5.2㎝이며,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口緣部片** (그림 67-④, 사진 107-⑧)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 內外는 물손질하여 깨끗이 整面되어 있고 외면에는 작고 둥근 施文具로 口緣 바로 아래에 2줄의 점열문을 만들고 이어 점열문을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서 떼지 않고 연속으로 押捺施文하여 점열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8㎝, 현존높이 4.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 **口緣部片** (그림 67-⑤, 사진 108-①)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口緣 1㎝ 아래에서부터 짧은 단사선문을 7~10개씩 집중施文하여 작은 능형집선문을 규칙적으로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2㎝, 기벽두께는 약간 불규칙하여 0.7㎝이다.

○ **胴部片** (그림 67-⑥, 사진 108-②)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 위쪽에는 사격자문을 施文 후 이어 끝이 무디어진 施文具로 얕은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사격자문과 사선문 사이에는 지름 0.7㎝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내면 흑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 **胴部片** (그림 67-⑦, 사진 108-③)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끝이 둥글고 작은 施文具로 곡선적 점열문을 오른쪽으로 연속으로 찍어 집선문을 만들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높이 2.7㎝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石斧** (그림 67-⑧, 사진 108-④)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돌도끼 두부편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으로 잘 마연되었다.

크기는 길이 12.5㎝, 폭 6.5㎝, 두께 3.6㎝이다.

○ **추정고석** (그림 67-⑨, 사진 108-⑤)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석기로 석질은 반화강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의 냇돌로 특별히 사용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끝부분이 깨어진 것으로 볼 때 고석으로 추정된다.

길이 13㎝, 폭 6.3㎝, 두께 2㎝이다.

○ **용도미상 石器** (그림 67-⑩, 사진 108-⑥)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석기로 석질은 반화강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의 냇돌로 단면은 타원형이다. 특별히 사용흔은 발견되지 않으나 매끈한 편이다.

크기는 길이 9.2㎝, 폭 4.6㎝, 두께 1.6㎝이다.

ㅇ 磨製石器片 (그림 67-⑪, 사진 108-⑦)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마제석기片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석기의중간으로 추정되며 한쪽이 좁혀지고 양쪽으로 날이 잘 선 것으로 볼 때 석창片으로 판단된다. 기벽은 전체적으로 잘 마연되어 매끄럽다. 단면은 렌즈형이다.

크기는 현존길이 5.2㎝, 폭 2.6㎝, 두께 0.6㎝이다.

ㅇ 磨製石器 (그림 67-⑫, 사진 108-⑧)

퇴적 Ⅲ층에서 출토된 마제석기片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형태는 납작하고 길쭉하며 양끝이 결실되어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잘 갈았으나 거친 편이다.

크기는 길이 3.4㎝, 폭 2.1㎝, 두께 3㎝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8-①, 사진 109-①)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밑으로 10㎝까지 사격자문이 정연하게 施文되었고, 그 밑으로는 橫走魚骨文을 넓고 깊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속심 암갈색, 內外면 암갈색,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43㎝, 현존높이 26.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8-②, 사진 109-②)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으나 기벽이 많이 벗겨져 흔적만 은은하게 남아있다. 胎土는 精選된 고운 점토에 활석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약하여 외면이 많이 벗겨졌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 회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7㎝, 현존높이 23.7㎝이고, 기벽두께는 외면이 많이 마모되어 굴

곡이 심한 편으로 0.6~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69-①, 사진 109-③)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폭이 넓은 施文具로 삼각집선문을 얕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0㎝이고, 기벽두께 0.6~1㎝로 胴部보다 口緣部가 더 두껍다.

○ **口緣部片** (그림 69-②, 사진 109-④)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밖으로 약간 젖히며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정연하게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약간의 석립과 운모가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2㎝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69-③, 사진 109-⑤)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밖으로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은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폭이 넓고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삼각집선문을 얕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4㎝이고, 기벽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가 더 두꺼우며 0.7~1㎝이다.

○ **口緣部片** (그림 69-④, 사진 109-⑥)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은 많이 갈라졌다. 외면은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사격자문을 施文하였으나 매우 마모가 심하여 일부는 施文이 없어졌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9-⑤, 사진 109-⑦)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약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8열 押捺施文하였으나 기벽이 마모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할석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기벽의 마모가 심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을 띠나 할석으로 곳곳에 은백색이 많이 보인다.

크기는 현존높이 8.1㎝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9-⑥, 사진 110-①)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약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사격자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9㎝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9-⑦, 사진 110-②)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가늘고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기벽이 잘 부스러진다. 색깔은 속심 內外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9-⑧, 사진 110-③)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유기물이 탄화된 가는 숯들이 흡착되어 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10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 종속문으로 거치문을 施文후 胴部에는 사선문이 일부 施文되어 있으나 알 수 없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외면이 떨어져 나갔다. 색깔은 속심 내면 흑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1㎝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69-⑨, 사진 110-④)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밖으로 약간 젖힌 후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 작은 삼각집선문을 그 아래에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문양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작은 운모가루도 관찰되며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8㎝이고, 기벽두께는 胴部에 비하여 口緣部가 더 얇은 상태로 0.4~0.7㎝이다.

ㅇ 파수片 (그림 70-⑬, 사진 112-⑤)

생활면에서 출토된 파수片이다. 파수의 크기는 길이 3.5cm, 폭 1.2cm, 두께 1.5cm 크기의 납작한 말각방형의 형태이고 가운데에는 길이 1cm, 폭 0.7cm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석립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갈색이다.

ㅇ 파수片 (그림 70-⑭, 사진 112-⑥)

생활면에서 출토된 파수片이다. 파수의 크기는 길이 3.5㎝, 폭 1.7㎝, 두께 1.5㎝ 크기의 납작한 장방형이고 가운데에는 지름 0.7㎝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파수는 현재 정확히

*** 其他 口緣部片**

名稱	圖面番號	圖版番號	文樣內容	整面方法	胎 土	色調	두께(㎝)	口緣처리
櫛文土器 口緣部편	69-⑩	110-⑤	끝이 4갈래로 갈라진施文具로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押捺施文	물손질	精選된 점토	內外 흑갈색	높이 0.7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69-⑪	110-⑥	口緣部 바로 아래 다치구로 횡방향 연속施文	물손질	점토+석영	내-황갈색 외-흑갈색	두께 0.8	입술 둥글게

名稱	圖面番號	圖版番號	文樣內容	整面方法	胎土	色調	두께(㎝)	口緣처리
櫛文土器 口緣部편	69-⑫	110-⑦	口緣部 바로 아래 다치구로 횡방향 연속施文	물손질	점토+석영많음	內外면 갈색	두께 1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69-⑬	110-⑧	口緣部 바로 아래 횡주어골문	물손질, 내면횡선자국	점토	內外 흑갈색	현고 4.6 두께 0.8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69-⑭	110-⑨	口緣部 바로 아래 에서부터 단사선문	물손질, 내면횡선자국	점토+가는 석영	內外 흑갈색	현고 5.8 두께 0.9	입술 반듯이
無文土器 口緣部편	69-⑮	111-①	口緣部 1㎝ 아래	횡방향으 물손질	점토+굵은 석립	內外 암갈색	현고 5.2 두께 0.9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①	111-②	口緣部 1㎝ 아래 집선문	기벽 마모 심함	점토+석영 많음	內外 암갈색	현고 5.7 두께 1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②	111-③	口緣部 바로 아래 사격자문	물손질, 내면횡선자국	점토+석영	내-황갈색	현고 5.5 두께 1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③	111-④	口緣部 바로 아래 재형집선문	물손질, 내면마모	점토+석영 많음	內外 흑갈색	현고 4.6 두께 0.7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④	111-⑤	口緣部 바로 아래 단사선문	물손질, 내면횡선자국	점토+가는 석영	內外 흑갈색	현고 2.2 두께 0.7	입술 반듯이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⑤	111-⑥	口緣部 바로 아래 불규칙한 제형집선문	물손질, 내면횡선자국	점토+가는 석영	內外 흑갈색	현고 4.7 두께 0.7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동부편	70-⑥	111⑦	口緣部 바로 아래 집선문	물손질	精選된 점토+가는 석영 약간	內外 암갈색	현고 3.8 두께 1.1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⑦	111-⑧	口緣部 바로 아래 삼각집선문	물손질, 내면횡선자국	점토+석영약간 석영	속심-흑색 외-갈색	현고 6.1 두께 0.8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⑧	111-⑨	口緣部 아래 단사선문	물손질, 물손질	점토+석영약간	내-암갈색 외-갈색	현고 3.2 두께 0.9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무문토기 口緣部편	70-⑨	112-①		물손질	점토+가는 석영	內外 흑갈색	현고 5.4 두께 0.9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⑩	112-②	口緣 바로 아래 삼각집선문과 횡주어골문 복합施文	물손질	점토+가는 석영	內外 적갈색	현고 5 두께 0.8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편	70-⑪	112-③	口緣 바로 아래 능형문	물손질	점토+가는 석영	내-갈색 외-암갈색	현고 5.9 두께 0.6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동부편	70-⑫	112-④	胴部에 점열문	물손질	점토+석영 많음	내-황갈색 외-흑갈색	두께 0.8	

알 수 없으나 기벽에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면은 물손질 하였고 외면에는 덧붙인 부분이 갈라진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보

통이다. 색깔 은 외면에 적갈색과 갈색을 띤다.

○ **동부片** (그림 70-⑮, 사진 112-⑦)

생활면에서 출토된 동부片이다. 胴部에는 파수가 부착되었던 부분이 남아있는데 기벽 외면에 그냥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깨끗이 整面되었다. 胴部에는 작은 점열문이 횡방향으로 押捺施文되어 있는데 파수에도 施文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암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현존 크기는 가로 5.7㎝, 세로 5.8㎝이고, 기벽두께는 0.5㎝로 얇은 편이다.

○ **底部片** (그림 70-⑯, 사진 113-①)

무문토기 底部片으로 생활면에서 출토되었다. 底部의 형태는 대야바닥으로 추정된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외면은 깨끗이 整面되었으나 내면은 균열이 일어났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운모도 일부 관찰된다.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이고, 바닥두께는 1.2㎝, 기벽두께는 0.8㎝이다.

○ **底部片** (그림 70-⑱, 사진 113-②)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으로 尖底이다. 기벽은 內外면 모두 많이 마모되었다. 외면에는 바닥까지 사선문을 방사상으로 施文하였으나 기벽이 마모되어 희미해졌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불량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암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이고, 바닥두께는 1.4㎝, 기벽두께는 1㎝이다.

○ **底部片** (그림 70-⑰, 사진 113-③)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으로 尖底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내면에는 마모가 심하게 일어났다. 외면에는 바닥끝까지 사선문을 방사상으로 깊고 넓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석립가루가 일부 포함되어있고 燒成은 불량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고 4.2㎝, 저부두께 1.6㎝, 기벽두께는 1.1㎝이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71-①	113-④	생활면	화강암	장타원형	6.5×8.2×2.6		
71-②	113-⑤	생활면	화강암	〃	9.7×7.6×1.4	152	
71-③	113-⑥	생활면	화강암	타원형	8.2×8.6×1.9		
71-④	113-⑦	생활면	반화강암	장타원형	9.8×6.6×1.8	130	
71-⑤	113-⑧	생활면	화강암	타원형	6.5×7.6×3.2		
71-⑥	113-⑨	생활면	화강암	〃	6×7.5×2.1		
71-⑦	113-⑩	생활면	화강암	〃	7.8×6.8×2	118	
71-⑧	113-⑪	생활면	화강암	장타원형	9×6.3×2.1	122	
71-⑨	113-⑫	생활면	화강암	〃	8.3×6.4×2	138	
71-⑩	113-⑬	생활면	화강암	타원형	7.1×5.9×2.3	124	
71-⑪	114-①	생활면	화강암	장타원형	8×4.6×2.2	108	
71-⑫	114-②	생활면	화강암	〃	7.7×5.3×2.7	134	
71-⑬	114-③	생활면	반화강암	장타원형	8.2×6.3×1	72	
71-⑭	114-④	생활면	반화강암	타원형	5.4×6.7×1.5		
71-⑮	114-⑤	생활면	반화강암	장타원형	8×4.3×1.6	80	
71-⑯	114-⑥	생활면	화강암	〃	5×7.8×2	53	
71-⑰	114-⑦	생활면	석영맥	〃	7.8×4.6×2.2	122	
71-⑱	114-⑧	생활면	반화강암	〃	7×5.2×1.7	789	
71-⑲	114-⑨	생활면	우백질화강암	장방형	7.4×5.1×2.6	140	
71-⑳	114-⑩	생활면	반화강암	타원형	5.9×5.1×3.1		
72-①	114-⑪	생활면	반화강암	〃	5×6.8×2	136	
72-②	114-⑫	생활면	우백질화강암	〃	5.7×4.4×2.9	108	
72-③	114-⑬	생활면	반화강암	장타원형	7.3×5.8×2	94	
72-④	114-⑭	생활면	석영맥	타원형	6.3×5.5×1.8	98	
72-⑤	114-⑮	생활면	규장질암맥	장타원형	6.8×4.9×1.6	66	
72-⑥	114-⑯	생활면	화강암	〃	6.7×4.3×1.8	82	
72-⑦	114-⑰	생활면	염기성암맥	타원형	4.3×5.4×1.8		
72-⑧	114-⑱	생활면	화강암	〃	4.3×5.6×1.5		
72-⑨	114-⑲	생활면	규장질암맥	〃	5×5.4×2		
72-⑩	114-⑳	생활면	우백질화강암	〃	5×4.7×2.6	84	
72-⑪	114-㉑	생활면	규장질암맥	〃	4.5×5.8×1.8	52	
72-⑫	114-㉒	생활면	우백질화강암	〃	5.8×4.7×1.8	68	
72-⑬	114-㉓	생활면	산성암맥	장타원형	6×4.5×1.4	50	
72-⑭	114-㉔	생활면	반화강암	타원형	5.7×4.5×1.4	54	

⑦ 7호 住居址 (그림 73 , 사진 29~32)

● 遺構

S-7호 주거지는 S-6호 주거지 발굴조사 중 6호 주거지 동벽 근처에서 새로운 윤곽선이 발견되어 정리해 본 결과 6호 주거지 20㎝ 아래에 새로운 주거지가 발견되어 위쪽에 나온 주거지를 6호 주거지로 명하고 처음 나왔던 주거지를 7호로 하였다.

따라서 7호 주거지 20㎝ 위에 6호 주거지를 축조하였고 6호주거지 축조로 인하여 7호 주거지 퇴적층의 대부분이 교란되고 윤곽선만이 일부 남아있었다.

두 주거지 방향은 S-6호 주거지가 동남-서북방향이나 S-7호 주거지는 처음 노출되었던 주거지(7호) 윤곽선의 정중앙에 위치한다.

먼저 S-6호 주거지의 북쪽과 남쪽부분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결과 남쪽과 북쪽은 6호 주거지와 위치가 비슷하나 동쪽은 1m 더 밖에 위치한다.

7호 주거지 윗면은 6호 주거지의 축조로 인하여 대부분 결실되고 윤곽선과 바닥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주거지 윤곽선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경사면도 고르지 못한 편이다.

주거지바닥은 회색진흙을 단단하게 다졌고 바닥 중간에는 적갈색의 장방형 화덕자리가 노출되었는데 화덕자리 서편에 15㎝×15㎝ 크기의 돌이 5개 나란히 놓인 것으로 보아 화덕의 둘레돌로 추정된다. 현재 남은 바닥의 크기는 동↔서 7m, 남↔북 7.4m이고 바닥의 면적은 52㎡이며 서쪽은 공사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출토유물은 S-6호 주거지와는 다른 S-4호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단사선에 橫走魚骨文이 시문된 토기片과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 口緣部片 (그림 74-①, 사진 115-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도 입술 안쪽을 좁힌 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

는 종·횡선문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橫走魚骨文을 정연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크고 작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1.5㎝, 현존높이 10.1㎝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②, 사진 115-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內外면 모두 깨끗하게 整面되었고 외면에는 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16줄의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精選된 점토에 가는 운모가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0.9㎝, 기벽두께는 일정하며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③, 사진 115-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3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4열의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기벽 內外면에는 금색운모가 많이 관찰되며 燒成은 양호하다. 口緣部 3㎝ 아래에는 지름 0.7㎝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색깔은 내벽 흑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8.4㎝,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④, 사진 115-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일정하게 5열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내면 암갈색, 외면 적갈색,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74-⑤, 사진 115-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일부에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아래부터 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횡으로 돌아가면서 단사선문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74-⑥, 사진 115-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깊게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균열이 일어난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74-⑦, 사진 115-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을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整面되었고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날카롭게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약간의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관찰된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口緣部片** (그림 74-⑧, 사진 116-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 은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⑨, 사진 116-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 은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벽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둥글고 가는 施文具로 점열문을 연속으로 施文하여 횡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암갈색, 외면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⑩, 사진 116-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유기물의 숯들이 흡착되어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이 깊게(4㎜) 押捺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⑪, 사진 116-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부터 짧은 단사선문을 연속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약하여 균열이 심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5㎝,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口緣部로 올라갈수록 얇아진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⑫, 사진 116-⑤)

바닥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약간 휘어지다 바로 입술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여 內外면 모두 매끈하고 내면에는 유기물탄소가 약간 흡착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운모도 약간 관찰된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8㎝,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口緣部에 가까울수록 얇아진다.

ㅇ **口緣部片** (그림 74-⑬, 사진 116-⑥)

바닥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面 모두 물손질 整面하여 매끈하게 정리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面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3㎝,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으로 0.7㎝이다.

○ 胴部片 (그림 74-⑭, 사진 116-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동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여 매끈하고, 외면에는 끝이 4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는 집선문이 일부 남아 있으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재높이 7㎝, 기벽두께는 일정하며 0.8㎝이다.

○ 胴部片 (그림 75-①, 사진 117-①)

바닥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내면에는 기벽이 많이 떨어졌고 외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사선자국이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8㎝,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으로 0.7㎝이다.

○ 胴部片 (그림 75-②, 사진 117-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이 일정하게 沈線施文되었고 중간에는 지름 0.6㎝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面 모두 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5㎝, 기벽두께는 일정한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75-③, 사진 117-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胴部에서 안쪽으로 좁혀오다 목부분에서 다시 밖으로 외반시키면서 올라가는 胴部와 목의 접합부분으로 추정된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적색마

연이 이루어졌다. 또한 목부분에는 거친 之자문이 깊게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석립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암갈색, 외면에는 적색마연이 이루어져 적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尖底片 (그림 75-④, 사진 117-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이 바닥끝까지 沈線施文되어 있다. 바닥끝은 뾰족하게 成形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석립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 바닥두께는 1.6㎝, 기벽은 0.9㎝이다.

7호 바닥 출토 魚網錘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75-⑤	117-⑤	바닥	화강암	장타원형	9.9×6.3×2.1		
75-⑥	117-⑥	바닥	산성암맥	〃	9.7×5.8×1.9		
75-⑦	117-⑦	바닥	편마암	〃	8.6×7×1.8		
75-⑧	117-⑧	바닥	산성암맥	타원형	7.9×6.9×2.6		
75-⑨	117-⑨	바닥	반화강암질암	〃	7×5.8×2.5		
75-⑩	117-⑩	바닥	편마암	〃	6.5×6.5×2.2		
75-⑪	117-⑪	바닥	유문암질반암	〃	6.8×5.6×1.8		
75-⑫	117-⑫	바닥	화강암	장타원형	4.5×3.4×1.2		
75-⑬	117-⑬	바닥	석영반암	타원형	4.2×4×1.2		

○ 숫돌조각 (그림 75-⑭, 사진 118-①)

7호 바닥에서 출토된 숫돌조각으로 석질은 반화강암이다. 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렌즈형이나 일부에 각이 졌다. 器面은 깨끗하게 잘 갈려있다.

크기는 길이 6㎝, 폭 2.5㎝, 두께 1㎝이다.

○ 화살촉편 (그림 75-⑮, 사진 118-②)

바닥에서 출토된 화살촉 끝부분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형태는 유엽형으로 추정되나 경부가 결실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촉 끝은 결실되었고 面은 매끈하게 다듬었으나 양날

은 날카롭게 세우지 않아 무디다.

크기는 길이 6㎝, 폭 2㎝, 두께 4.5㎝이다.

ㅇ 화살촉편 (그림 75-⑯, 사진 118-③)

바닥에서 출토된 화살촉편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형태는 폭이 좁고 긴 유엽형으로 추정되고 촉끝과 경부가 결실되었다. 단면은 편육각형이고 器面은 매끈하게 잘 다듬었으며 양날은 날카롭게 세웠다.

크기는 길이 5㎝, 폭 1.3㎝, 두께 0.3㎝이다.

ㅇ 화살촉편 (그림 75-⑰, 사진 118-④)

바닥에서 출토된 화살촉끝편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형태는 폭이 좁고 긴 형식이고 단면은 렌즈형이다. 촉끝과 양날은 날카로우며 面은 잘 갈았다.

크기는 길이 4.2㎝, 폭 1.2㎝, 두께 1.5㎝이다.

ㅇ 갈봉 (그림 76-①, 사진 118-⑤)

바닥에서 출토된 갈봉으로 화강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은 원형이다. 器面은 매끄럽게 갈렸고 두드린 흔적은 없다.

크기는 길이 14㎝, 지름 5.5㎝이다.

ㅇ 갈돌 (그림 76-②, 사진 118-⑥)

바닥에서 출토된 갈돌로 석질은 반화강암이다. 형태는 납작한 냇돌로 장타원형이다. 器面은 전체적으로 고른 편이고 일부가 불에 맞아 검게 변하였다.

크기는 길이 8.3㎝, 폭 6.3㎝, 두께 2.7㎝이다.

ㅇ 용도미상 석기 (그림 76-③, 사진 118-⑦)

바닥에서 출토된 냇돌로 석질은 선성암맥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으로 특별히 사용 흔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길이 6㎝, 폭 4.2㎝, 두께 2.7㎝이다.

ㅇ 용도미상 석기 (그림 76-④, 사진 118-⑧)

바닥에서 출토된 냇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으로 특별히 사용 흔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길인 5㎝, 폭 4.3㎝, 두께 2㎝이다.

⑧ 8호 住居址 (그림 77 , 사진 33)

● 遺構

S-8호 주거지는 C-1호 주거지의 윤곽선 확인 조사 중 동쪽끝 부분에서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장한 결과 반원형의 주거지 윤곽선이 노출되었다. S-8호 주거지는 3/4 정도가 C-1호 주거지 축조시 파괴되어 동쪽끝부분 약 1/4 정도만이 노출되었다. 현재 노출된 주거지의 윤곽 크기는 동-서 2m, 남-북 4.8m이고 바닥은 동-서 0.4m, 남-북 2.6m이고, 수혈깊이 35㎝이다. 바닥은 진흙을 깔지 않았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주거지의 규모나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부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아 방형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로는 尖底에 橫走魚骨文이 施文된 底部 1점이 출토되었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ㅇ 底部片 (그림 78-①, 사진 119-①)

8호 바닥과 경사면 사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底部片이다. 底部는 尖底이나 끝부분에 3㎝×2.5㎝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매끈하게 정리되었고 내면에는 탄화된 유기물이 일부 흡착되어 있다. 외면에는 바닥에서 6㎝까지만 橫走魚骨文이 정연하게 施文되어있고 일부에는 탄소흡착도 남아있다. 成形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胴部片** (그림 78-②, 사진 119-②)

바닥에서 출토된 胴部片으로 바닥에 가깝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종횡방향의 물손질에 의한 가는 선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을 바닥 가까이에까지 정연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과 약간의 운모도 관찰되며 燒成은 양호하다. 成形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내면 황갈색, 암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11㎝,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어망추** (그림 78-③, 사진 119-③)

바닥에서 출토된 어망추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삼각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냇돌의 장축 끝을 양쪽으로 가볍게 때려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5.5㎝, 폭 5㎝, 두께 1.7㎝이다. 무게는 62g이다.

⑨ 9호 住居址 (그림 79, 사진 34, 35)

● 遺構

S-9호 주거지는 C-6호 주거지 조사 중 남쪽으로 50㎝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흑색모래층이 나타나 정밀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지름 4.4m의 원형 윤곽선이 나타났다. 이 윤곽선안에 +자로 둑을 설정하고 차례로 퇴적층을 제거한 결과 40㎝ 깊이에서 바닥으로 보이는 단단한 모래층이 나타났다. 바닥의 지름은 3.4m의 원형이다. 이 주거지는 다른 신석기시대의 주거지보다 수혈깊이가 얕은데 이는 현재의 윤곽선이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윤곽선과 동일하게 나타나 초기철기시대에 이미 삭평된 것으로 보인다. 바닥에는 진흙을 깔지 않았으나 불에 타 검고 단단한 편이다. 바닥의 한 가운데에는 지름 50㎝ 정도의 붉은 소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화덕자리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어망추 8점과 약간의 토기片이 나왔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80-①, 사진 120-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벽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內外면은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9㎝, 현존높이 8㎝,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0-②, 사진 120-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벽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단사선문을 옆으로 많이 눕혀 연속으로 施文한 횡조선을 8열 押捺施文하였다. 그 아래에는 종속문으로 추정되는 작은 거치문을 돌렸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8㎝, 현존높이 6㎝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4㎝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0-③, 사진 120-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內外면 모두 거친 편이다. 口緣部 1㎝ 아래에는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불규칙한 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내면 황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5㎝, 현존높이 5.5㎝이고,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口緣部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얇아지게 만들었으며 0.5~0.3㎝이다.

○ **口緣部片** (그림 80-④, 사진 120-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 口緣 바로 아래를 눌러 입술부분을 胴部보다 넓혔다. 외면에는 口緣 0.6㎝ 아래에 단사선문을 1열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0㎝, 현존높이 4.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 **口緣部片** (그림 80-⑤, 사진 120-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근 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가는 꺾쇠문이 押捺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내면에는 口緣部쪽 일부가 탈락되어 있다. 成形방법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3.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胴部片** (그림 80-⑥, 사진 120-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위쪽에 끝이 3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8.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 **胴部片** (그림 80-⑦, 사진 120-⑦)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면에는 맨 위에 단사선문을, 그 아래에는 종속문으로 희미한 사선문을 施文하고 胴部문으로는 橫走魚骨文을 押引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가는 운모도 많이 섞여있다. 색깔은 내면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9㎝,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 **胴部片** (그림 80-⑧, 사진 120-⑧)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여 매끄럽게 정리되었고 외면 위쪽에는 탄화된 유기물 자국이 기벽에 흡착되어 있다. 문양은 기벽 일부에 단사선문 7~9개를 밀집施文한 능형문을 연속으로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8.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 **胴部片** (그림 80-⑨, 사진 120-⑨)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굵고 깊게 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胴部片** (그림 80-⑩, 사진 121-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굵고 깊게 사선문이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80-⑪, 사진 121-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면에는 굵고 깊은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81-①, 사진 121-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많이 섞여 있고 燒成

은 약하여 내면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 기벽두께는 불규칙하며 0.6㎝이다.

○ **胴部片** (그림 81-②, 사진 121-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위쪽에 단사선문, 그 아래에 사선문이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81-③, 사진 121-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끝이 둥글고 가는 施文具로 횡방향으로 가면서 연속施文하여 횡선문을 압날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가 4㎝,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 **胴部片** (그림 81-④, 사진 121-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끝이 3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연속으로 압날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9호 바닥 출토 어망추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81-⑤	121-⑨	바닥	산성암맥	타원형	6.3×5.6×1.5	78	
81-⑥	121-⑩	바닥	화강암	〃	5.7×5.6×1.8	90	
81-⑦	121-⑪	바닥	산성암맥	〃	5.4×5×1.5	72	
81-⑧	121-⑫	바닥	편마암	〃	5.6×5×1.5	64	
81-⑨	121-⑬	바닥	산성암맥	〃	5.6×5.1×1.7	68	
81-⑩	121-⑭	바닥	반화강암질암	장타원형	6.2×4.5×1.3	40	
81-⑪	121-⑮	바닥	편마암	타원형	5.4×4.8×1.3	58	
81-⑫	121-⑯	바닥	반암	〃	3.7×4.2×124		

크기는 현존높이가 3.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용도미상 석기 (그림 81-⑬, 사진 121-⑦)

바닥에서 출토된 냇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납작하며 특별히 사용흔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지름 5.4cm, 두께 2.2cm이다.

ㅇ 용도미상 석기 (그림 81-⑭, 사진 121-⑧)

바닥에서 출토된 냇돌로 석질은 우백질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납작하며 사용흔은 보이지 않는다.

크기는 지름 4.2㎝, 두께 1.9㎝이다.

⑩ 10호 住居址 (그림 82 , 사진 36 , 37)

● 遺構

S-10호 주거지는 S-5호 주거지 확장 중 동쪽 1m 지점에서 토기片과 검은 색의 윤곽선이 노출되어 동쪽으로 5m×8m를 확장한 결과 동-서 지름 4m, 남-북 지름 4.5m의 원형윤곽선이 나타났다. 주거지 윤곽선 안에 +자 둑을 남기고 퇴적토를 제거한 결과 원형에 가까운 주거지 바닥이 노출되었고 퇴적토는 숯의 영향으로 흑색을 띠었다.

주거지 바닥의 크기는 동-서 3.2m, 남-북 3.5m의 작은 크기이고 수혈깊이는 30㎝이다. 주거지 정중앙에는 폭 15㎝, 길이 40㎝ 정도 크기의 할석 6개와 이보다 작은 할석 2개를 연이어 놓은 원형의 화덕자리를 마련하였다.

주거지의 윤곽선과 바닥까지는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었고, 바닥에는 진흙을 깔지 않았으나 화덕자리 안쪽과 화덕자리 돌 사이에는 약간의 진흙이 노출되었다.

출토유물은 북벽 경사면에서 약간의 土器片만이 출토되었다.

● 遺物

〈바닥출토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83-①, 사진 122-①)

바닥 북동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많이 파손된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기형은 尖底 반란형 櫛文土器로 추정되며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불규칙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도 관찰된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6열의 꺾쇠문을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 종속문으로 사선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胴部문으로 走魚骨文을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며 비교적 정연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석립이 많이 섞여있고 운모도 약간 관찰된다. 燒成은 보통이고 成形기법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속심 적갈색, 內外면 흑갈색,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5㎝, 기벽두께는 불규칙한 편으로 0.6~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3-②, 사진 122-②)

북벽 경사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내면은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밑에서부터 10열의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종속문으로 삼각집선문을 胴部문으로는 橫走魚骨文을 정연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가는 운모도 약간 관찰된다.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고 成形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內外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4㎝, 현존높이 13.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3-③, 사진 122-③)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희미한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있고 胴部일부가 파여나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가는 운모도 관찰된다. 燒成은 약하여 일부가 결실되었고 成形기법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내면 암갈색, 외면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5㎝, 기벽두께는 불규칙하며 0.8㎝이다.

o 口緣部片 (그림 83-④, 사진 122-④)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끝이 뾰족한 삼각형의 施文具로 4열의 손톱무늬를 押捺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불규칙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5㎝이고, 기벽두께는 고르지 못한 상태로 1㎝이다.

o 胴部片 (그림 83-⑤, 사진 122-⑤)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는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굵은 횡선자국이 많이 그어져 있으나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이 얕게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가는 운모도 약간 관찰된다. 燒成은 보통이고 成形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8㎝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o 胴部片 (그림 84-①, 사진 122-⑥)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벽에는 成形에 의한 기벽 쌓은 흔적이 잘 남아있다. 외벽에는 끝이 2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얕게 施文하였다. 成形기법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갈색, 외면 황갈색,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5㎝이고 기벽두께는 불규칙하며 0.7㎝~1㎝이다.

o 胴部片 (그림 84-②, 사진 123-①)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 위쪽에는 꺾쇠문이 그 아래에는 종속문으로 집선문이 施文되어있다. 胴部문은 기벽이 결실되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사선문이 이어진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가는 운모도 약간 관찰된다.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0.5㎝이고 기벽두께는 불규칙한 편으로 0.8㎝이다.

ㅇ 胴部片 (그림 84-③, 사진 123-②)

바닥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은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가는 施文具로 横走魚骨文을 얇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내면 흑갈색, 외면 흑색,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8.5㎝이고, 기벽두께는 고르지 못한 편으로 0.8㎝이다.

ㅇ 石刀 (그림 84-④, 사진 123-③)

바닥에서 출토된 돌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비교적 곧은 면의 양쪽을 갈아 날을 날카롭게 세웠고 등쪽은 양쪽을 타격해 균형을 맞추었다. 뒷면은 간 흔적이 있으나 일부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

크기는 길이 14㎝, 폭 7.8㎝, 두께 1.7㎝이다.

ㅇ 용도미상 石器 (그림 84-⑤, 사진 123-④)

바닥에서 출토된 냇돌로 석질은 석영편암이다. 타원형의 냇돌로 특별히 사용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매끈하다.

크기는 길이 8㎝, 폭 6.5㎝, 두께 2.5㎝이다.

〈퇴적층 출토 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85-①, 사진 123-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 자국과 물손질에 의한 가는 사선문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6열의 꺾쇠문이 押捺施文되었고 그 아래에는 현재 사선문이 일부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6㎝, 현존높이 9㎝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口緣部가 胴部

보다 얇으며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5-③, 사진 123-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가락끝을 이용하여 사선으로 눌러 당긴 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꺾쇠문을 5열 押捺施文하였고 그 아래에는 사격자문이 일부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약간의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8㎝, 기벽두께는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5-②, 사진 124-①)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여 매끈하게 정리되었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기벽중간에는 지름 0.5㎝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가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成形은 輪積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2㎝, 현존높이 4.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5-④, 사진 124-②)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운모도 많이 관찰된다.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5㎝이고, 기벽두께는 口緣部로 갈수록 얇아지며 0.9㎝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5-⑤, 사진 124-③)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1열은 꺾쇠문을 2열부터는 단사선문을 앞날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약간의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섞

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5-⑥, 사진 124-④)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꺾쇠문을 깊게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85-⑦, 사진 124-⑤)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약간 젖히면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 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에서부터 끝이 2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우에서 좌하방향으로 사선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3㎝, 기벽두께는 0.8㎝이다.

ㅇ 胴部片 (그림 85-⑧, 사진 124-⑥)

퇴적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胴部는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가는 삼각집선문이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2.5㎝이고, 기벽두께는 0.6㎝이다.

ㅇ 어망추 (그림 85-⑨, 사진 124-⑦)

바닥에서 출토된 어망추로 석질은 염기성암맥이다. 형태는 삼각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냇돌의 장축 끝을 양쪽으로 가볍게 때려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5.3㎝, 폭 4.7㎝, 두께 1.1㎝, 무게 46g이다.

〈생활면 출토 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86, 사진 125)

생활면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와 저부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과 成形에 의한 굴곡이 만들어졌고 成形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口緣部 아래부터 4열의 단사선문을 돌렸고 그 아래에는 胴部문으로 橫走魚骨文을 바닥 끝까지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2.3㎝, 현존높이 16.5㎝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2) 野外施設

① 소할석유구 (그림 87, 90-①, 사진 38, 126-①)

소할석유구는 C7트랜치 뚝 제거 작업 중 지표하 70㎝지점에서 처음으로 할석이 관찰되어 20㎝ 정도 내려가자 불에 탄 원형의 윤곽선이 노출되어 상층의 불규칙한 할석을 정리한 결과 직경 2.5m 크기의 흑색모래윤곽이 완전히 노출되었다. 이 흑색의 모래를 제거하자 불 맞아 갈라진 할석들이 노출되었다. 바닥은 검은 흑색모래 위에 불 맞아 심하게 갈라진 할석이 1겹 정도 불규칙하게 노출되었고 약간의 토기편도 노출되었으나 강한 불에 맞아 바스러져 있었다.

② 야외노지 1 (그림 88, 90-②~⑥, 사진 39-①, 126-②~⑥)

야외노지 1은 C11트랜치 뚝 제거 작업 중 약간의 할석이 노출되어 확장한 결과 갈색모래층에서 발견되었다. 크기는 남북 2.1m, 동서 1.7m로 원형에 가깝고 남쪽의 일부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파괴된 상태이다. 야외노지의 내부는 동북쪽으로 냇돌(20~30㎝)이 집중적으로 쌓여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비교적 작은 냇돌이 불에 달구어져 깨어진 채 노출되었다. 돌과 돌 사이에는 흑색모래가 가득 메워져 있었고 약간의 작은 櫛文土器

片이 출토되었다.

③ 야외노지 2 (그림 89, 90-⑦~⑬, 사진 39-②, 40, 41-①, 127)

야외노지 2는 B5그리드 전면 제토과정 중 구지표하 40㎝ 아래의 갈색모래층에서 일부의 할석이 원형으로 노출되면서 나타났다. 완전한 윤곽 확인을 위해 15㎝정도 퇴적토를 제거하자 길이 310㎝, 폭 280㎝ 크기의 원형에 가까운 적석유구가 노출되었고, 다시 적석 사이에 섞인 흑색모래를 제거하자 적석유구 가운데에는 할석이 작고 적게 노출되었다. 자세히 관찰한 결과 적석유구 안에 남벽을 기준으로 가운데를 15㎝ 정도로 판 동서 130㎝, 남북 130㎝ 크기의 무적석공간이 나타났다. 처음에 노출된 작은 할석은 주변에서 안쪽으로 떨어진 할석으로 판단되었다. 주변의 적석 형태는 엎어놓은 ㄇ자 형태로 가장자리쪽은 큰 냇돌이, 안쪽으로는 작은 냇돌을 놓았고, 노출상태로는 안쪽의 할석은 많이 깨어져 있었다. 따라서 남쪽방향과 접한 무적석 시설이 화구부에 해당되고 화구부에 가까운 안쪽에 돌이 많이 부서지고 외곽은 비교적 적게 부서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설이 불을 땐 야외노지인 것은 확실하나 조리용인지, 토기 굽던 노지인지, 다른 용도의 시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 A 지구 교란층 출토유물

ㅇ 口緣部片 (그림 91-①, 사진 128-①)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거친 편으로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아래에서부터 제형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內外면 모두 황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48㎝, 현존높이7.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胴部片 (그림 91-②, 사진 128-②)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胴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으로 기벽을 눌러 올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연속 押捺施文하여 횡선을 만들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이 42㎝이고, 현존높이 6.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1-③, 사진 128-③)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뾰족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거친 편이고 내면의 기벽은 많이 탈락하였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6.5㎝이고, 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가 얇은 0.4~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1-④, 사진 128-④)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약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口緣部 3㎝ 아래에서부터 우에서 좌하방향으로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3㎝,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1-⑤, 사진 128-⑤)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밖으로 누르며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끝이 갈라진 施文具로 사격자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 높이 6㎝이고,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1-⑥, 사진 128-⑥)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며 입술은 약간 둥근 편이

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끝이 3갈래로 나누어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5㎝,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口緣部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며 두께는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1-⑦, 사진 129-①)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밖으로 약간 젖히며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 하였고 내면에는 끝이 둥글고 가는 施文具로 불규칙하게 찌른 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횡선문을 6열 돌렸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 기벽두께는 胴部보다 口緣部가 더 얇으며 0.5~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1-⑧, 사진 129-②)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에서부터 삼각집선문을 넓고 깊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약하여 외벽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內外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2-①, 사진 129-③)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내면은 마모가 심하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끝이 2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횡방향으로 가면서 횡선문을 施文하였으나 문양이 희미하고 불규칙적이다. 그 밑에는 불규칙한 沈線文이 일부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o 口緣部片 (그림 92-②, 사진 129-④)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여 매끈하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아래부터 사격자문이 정연하게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암갈색, 외면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o 口緣部片 (그림 92-③, 사진 129-⑤)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 1.5㎝ 아래부터 삼각집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名稱	圖面番號	圖版番號	文樣內容	整面方法	胎 土	色調	두께(㎝)	口緣처리
櫛文土器 口緣部片	92-④	129-⑥	口緣 아래부터 단사선문	물손질 횡선자국	점토+모래 크기의 석영 약간	內外 흑갈색	현고 4.6 기벽두께 0.8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片	92-⑤	129-⑦	단사선문을 가로로 눕혀 연속하여 횡선문을 施文	물손질 횡선자국	점토+모래 크기의 석영 약간	內外 흑갈색	현고6.5 두께0.6	입술 반듯이
無文土器 口緣部片	92-⑥	129-⑧	口緣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	물손질	점토+가는모래약간	內外흑갈색	현고 4 두께0.6	입술 반듯이
櫛文土器 口緣部片	92-⑦	130-①	口緣바로 아래부터3.5㎝까지만 단사선문	물손질	점토+모래 크기의 석영 약간	內外갈색	현고 5 두께0.8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口緣部片	92-⑧	130-②	口緣部아래부터 6~9열 단위로 단사선문을 연속施文	물손질 횡선자국	점토+모래 크기의 석영 약간	내면황갈색 외면 암갈색	추정입지름 9 두께0.7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口緣部片	92-⑨	130-③	口緣아래부터 사격자문	물손질	점토+석립가루	內外 흑갈색	현고 3 두께0.7	입술 둥글게
櫛文土器 胴部片	92-⑩	130-④	胴部상-단사선문 胴部하-종주어골문	물손질	점토+모래 크기의 석영 약간	내-황갈색 외-적갈색	현고 9 두께0.8	
櫛文土器 胴部片	92-⑪	130-⑤	胴部에 종주어골문	물손질	점토+모래 크기의 석영 약간	속심-적갈색 內外흑갈색	현고 6 두께0.6	

석립과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5㎝이고 기벽두께는 口緣部로 가면서 얇아지며 0.9~0.6㎝이다.

ㅇ 把手片 (그림 92-⑫, 사진 130-⑥).

교란층에서 채집한 파수片이다. 파수형태는 타원형으로 제작기법은 원형의 파수를 만든 후 기벽에 밀어 넣어 파수의 반 정도가 기벽 안쪽으로 밀려들어와 기벽이 안쪽으로 돌출되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파수의 크기는 길이 3.5㎝, 폭 1.8㎝, 높이 2㎝이고 가운데에는 지름0.8㎝ 크기의 구멍이 뚫려있다.

ㅇ 尖底片 (그림 92-⑬, 사진 130-⑦)

교란층에서 채집한 민무늬토기 尖底片이다. 바닥은 비교적 뾰족한 편이고 끝부분은 비교적 많이 마모되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약하여 내면이 부스러졌다. 색깔은 속심 흑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7㎝이고, 기벽두께는 1㎝이다.

ㅇ 尖底片 (그림 92-⑭, 사진 131-①)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내면에서 굴곡이 심하다. 외면은 胴部에서 내려온 수직선이 바닥끝까지 연결된다. 胎土는 점토이고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으며 燒成이 불량하여 기벽이 많이 부서진다. 색깔은 내면 적색, 외면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 기벽두께는 바닥 2㎝, 胴部 1㎝이다.

ㅇ 尖底片 (그림 93-①, 사진 131-②)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에는 胴部문으로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었고 바닥에는 胴部밑에서 바닥까지 수직으로 선을 그어 마무리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

심 흑색, 내면 암갈색, 외면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이다.

ㅇ 尖底片 (그림 93-②, 사진 131-③)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마모가 많이 되었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방사상으로 바닥끝까지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약간의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현존높이 2㎝, 기벽두께는 0.7㎝이다.

ㅇ 尖底片 (그림 93-③, 사진 131-④)

교란층에서 채집한 櫛文土器 尖底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마모가 심하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방사상으로 바닥끝까지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2㎝, 기벽두께는 얇은 편으로 바닥이 0.9㎝이다.

ㅇ 원저발 (그림 93-④, 사진 131-⑤)

교란층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원저발로서 도면 복원하였다. 기형은 반원형으로 원저의 바닥에서 올라오다 바로 입술을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마모가 심하여 胎土가 많이 노출되었다. 외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내면은 불량하나 외면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2.7㎝, 현존높이 8㎝,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93-⑤, 사진 131-⑥)

6호 근처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施文 후 입술끝을 밖으로 약간 경사지게 눌러 붙여 施文 윗부분이 덮였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여 內外면 모두 매끄럽다.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고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부터 口緣 문으로 삼각집선문을 넓고 깊게 施文 후 그 아래에 胴部문으로 橫走魚骨文을 정연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석립과 모래 크

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1㎝, 현존높이 20㎝,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갈봉편 (그림 94-①, 사진 132-①)

교란층에서 채집한 갈봉편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원형의 석봉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결실되고 끝부분만 남았다. 전면을 모두 사용하여 둥근 편이나 일면을 유독 더 사용하여 납작하게 되었다.

크기는 길이 10㎝, 폭7㎝, 두께 6㎝이다.

ㅇ 石斧 (그림 94-②, 사진 132-③)

교란층에서 채집한 돌도끼로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이다. 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렌즈형이다. 두부는 둥근 편이며 날은 외날이고 거친 것으로 보아 굴지구로 추정된다. 身部 1면은 일부를 갈았으나 다른 면은 간 흔적이 없이 거칠다.

크기는 11.5㎝, 폭 7㎝, 두께 2.7㎝이다.

ㅇ 石斧 (그림 94-③, 사진 132-④)

교란층에서 채집한 돌도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날은 조개날이고 반원을 이룬다. 身部전체를 매끄럽게 갈았다.

크기는 길이 11.5㎝, 폭 5.2㎝, 두께 2.5㎝이다.

ㅇ 石斧 (그림 94-④, 사진 132-⑤)

교란층에서 채집한 소형 돌도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방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날은 조개날이고 身部는 전체를 매끄럽게 갈았다.

크기는 길이 6㎝, 폭 4.5㎝, 두께 1.7㎝이다.

ㅇ 石槍片 (그림 94-⑤, 사진 132-⑥)

교란층에서 채집한 석창片으로 석질은 흑색편암이다. 身部의 양편은 결실되었고 단면은 렌즈형이다. 양날은 날카롭게 세웠고 胴部는 매끄럽게 갈았다.

크기는 길이 5.2㎝, 폭 3.6㎝, 두께 1.3㎝이다.

〈교란층 출토 어망추〉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95-①	133-①	교란층	편암	장타원형	9.3×6.8×2.	198	
95-②	133-②	교란층	반화강암	타원형	7.5×6.7×2.2	168	
95-③	133-③	교란층	석영반암	〃	7.3×6.2×1.8	100	
95-④	133-④	교란층	반화강암	〃	7.8×6.3×2.3	138	
95-⑤	133-⑤	교란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9.6×5.5×2.2	180	
95-⑥	133-⑥	교란층	화강암	타원형	7.6×7.8×1.5	138	
95-⑦	133-⑦	교란층	규장질암	〃	9.4×7.3×1.7	162	
95-⑧	133-⑧	교란층	반화강암	〃	8.8×8×1.6	158	
95-⑨	133-⑨	교란층	산성암맥	장타원형	6.2×9.2×2.7	216	
95-⑩	133-⑩	교란층	반화강암	〃	8×6×2.4	156	
95-⑪	133-⑪	교란층	산성암맥	방형	6.9×5.3×2.3	124	
95-⑫	133-⑫	교란층	규장질암	타원형	6×5.4×2	100	
95-⑬	133-⑬	교란층	편암	〃	6.5×5.5×2.4	110	
95-⑭	133-⑭	교란층	규장질암	〃	7.3×6.2×1.5	96	
95-⑮	133-⑮	교란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7×5.3×1.5	86	
95-⑯	133-⑯	교란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5.9×5×2.3	96	
95-⑰	133-⑰	교란층	산성암맥	〃	7×6.5×2.8	140	
95-⑱	133-⑱	교란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6.3×5.4×2.3	108	
95-⑲	133-⑲	교란층	산성암맥	장타원형	7.3×5×1.6	88	
95-⑳	133-⑳	교란층	반화강암	〃	7.5×4.5×3	120	
96-①	134-①	교란층	산성암맥	〃	7.7×5.4×1.6	82	
96-②	134-②	교란층	화강암	타원형	6.2×4.3×2.5	104	
96-③	134-③	교란층	화강암	〃	6.7×5.5×1.5	100	
96-④	134-④	교란층	반화강암	〃	4.2×5.4×2.5	98	
96-⑤	134-⑤	교란층	화강암	〃	6×6×1.6	84	
96-⑥	134-⑥	교란층	흑운모편암	장타원형	6.4×3.7×1.6	76	
96-⑦	134-⑦	교란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5.3×4.8×1.9	64	
96-⑧	134-⑧	교란층	화강암	〃	4.9×4.8×2	74	
96-⑨	134-⑨	교란층	반화강암	〃	5.8×5.9×2.3	112	
96-⑩	134-⑩	교란층	화강암	〃	5.8×5.3×2.7	110	
96-⑪	134-⑪	교란층	화강암	〃	5.8×4.6×2.4	100	
96-⑫	134-⑫	교란층	화강암질암	〃	5.3×4.5×1.9	72	
96-⑬	134-⑬	교란층	운모편암	〃	5.2×5×1.2	52	
96-⑭	134-⑭	교란층	화강편암	〃	4.2×4.7×1.7	52	
96-⑮	134-⑮	교란층	화강암질암	〃	5.2×4.2×2	56	
96-⑯	134-⑯	교란층	반화강암	〃	4.7×4.1×1.5	42	
96-⑰	134-⑰	교란층	우백질화강암	〃	5.3×5.1×2	78	

도면번호	도판번호	출토위치	석질	형태	장×폭×후	중량(g)	비고
96-⑱	134-⑱	교란층	석영	장타원형	5.7×3.8×2	64	
96-⑲	134-⑲	교란층	반화강암	타원형	5×4.5×2.3	68	
96-⑳	134-⑳	교란층	산성암맥	장타원형	4.9×3.7×1.1	30	
97-①	135-①	교란층	반화강암	장방형	5.6×3.6×2	64	
97-②	135-②	교란층	산성암맥	타원형(절반이상파손됨)	6.9×4.4×1.4	64	
97-③	135-③	교란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5.1×3.9×0.9	38	
97-④	135-④	교란층	석영편암	〃	5.5×3.2×1	26	
97-⑤	135-⑤	교란층	반화강암	타원형(절반이상파손됨)	5.8×3.7×2.3	74	
97-⑥	135-⑥	교란층	산성암맥	타원형(절반이상파손됨)	5.2×3.7×2	60	
97-⑦	135-⑦	교란층	우백질화강암	타원형	5.5×4.6×1.7	54	
97-⑧	135-⑧	교란층	화강암	〃	4.7×4.3×1.7	52	
97-⑨	135-⑨	교란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5×3.7×1.3	42	
97-⑩	135-⑩	교란층	산성암맥	〃	7.5×6.2×1	74	
97-⑪	135-⑪	교란층	화강암	〃	8.2×6×2.3	172	
97-⑫	135-⑫	교란층	운모편암	〃	8.8×6.5×1.8	83	
97-⑬	135-⑬	교란층	반화강암	〃	7.2×5.5×2.4	120	
97-⑭	135-⑭	교란층	산성암맥	타원형	6.8×6×2.5	118	
97-⑮	135-⑮	교란층	규장질암	〃	7.2×6.4×1.3	84	
97-⑯	135-⑯	교란층	반화강암	〃	6.6×5.9×2.5	132	
97-⑰	135-⑰	교란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7×5×2.2	116	
97-⑱	135-⑱	교란층	백운모	타원형	6.4×6.8×3	198	
97-⑲	135-⑲	교란층	화강암	〃	5.6×5.6×1.5	66	
97-⑳	135-⑳	교란층	반화강암	장타원형	7.6×5.4×1.9	128	
98-①	136-①	교란층	석영	타원형	6×5.5×2.4	106	
98-②	136-②	교란층	반화강암	〃	5.3×5×2.2	88	
98-③	136-③	교란층	산성암맥	〃	6.2×4.5×1.7	62	
98-④	136-④	교란층	페그마타이트	〃	5.9×5.5×2.2	92	
98-⑤	136-⑤	교란층	반화강암	〃	5.8×4.8×2.3	96	
98-⑥	136-⑥	교란층	석영	장타원형	6.5×4.3×2.2	102	

○ **石斧片** (그림 98-⑦, 사진 136-⑦)

교란층에서 채집한 마제석부片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세장방형이고 身部 단면은 렌즈형으로 중간이상이 결실되었다. 전체가 잘 갈렸고 전체길이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크기는 현존길이 19㎝, 폭 7.8㎝, 두께 2.8㎝이다.

○ **磨製石斧片** (그림 98-⑧, 사진 136-⑧)

교란층에서 채집한 마제석부片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身部 단면은 렌즈형이다. 날부분은 많이 사용하여 결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잘 갈렸다.

크기는 길이 11.9㎝, 폭 7.4㎝, 두께 2.8㎝, 무게는 514g 이다.

○ **고석** (그림 98-⑨, 사진 136-⑨)

교란층에서 채집한 고석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지름 9.5㎝ 크기의 구형으로 전체적으로 고루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갈판** (그림99-①, 사진 136-⑩)

교란층에서 채집한 갈판으로 석질은 장석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되나 1/4 정도만 남았고 단면은 오목렌즈형이다. 밑면은 약간만 사용하였고 윗면은 많이 사용하여 외측면보다 낮아졌다.

크기는 현존길이 24㎝, 폭 15㎝, 두께 5.6㎝이다.

○ **갈판 조각** (그림 99-②, 사진 137-①)

교란층에서 채집한 갈판 조각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단면은 판석형이고 양면 모두 사용하였으나 거친 편이다. 모서리는 모양을 내기 위하여 약간씩 다듬었다.

크기는 길이 21.5㎝, 폭 11.9㎝, 두께 3.6㎝이다.

○ **갈봉** (그림 100-①, 사진 137-②)

교란층에서 채집한 갈봉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사용은 밑면만을 사용하여 상당히 많이 갈려나가 매우 매끄럽고 편평한 편이다.

크기는 길이 35.6㎝, 폭 9㎝, 두께 4.8㎝이다.

○ **磨製石斧** (그림 100-②, 사진 137-③)

교란층에서 채집한 마제석부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세장방형이고 身

部 단면은 납작한 장타원형이다. 두부는 일부 결실되었고 날부분은 조개날이나 많이 사용하여 끝부분이 모두 깨어져 결실되었다.

크기는 길이 19.7㎝, 폭 6.2㎝, 두께 3.5㎝, 무게 802g이다.

ㅇ 磨製石斧 (그림 100-③, 사진 137-④)

교란층에서 채집한 마제석부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장방형이고 身部 단면은 납작한 장타원형이다. 두부는 둥글게 처리하였고 날부분은 양쪽을 갈아 만든 조개날로서 많이 사용하여 끝부분이 결실되었고 한쪽면이 깨어졌다. 身部 는 매끈하게 잘 갈려있다.

크기는 길이 16.3㎝, 폭 7㎝, 두께 3㎝, 무게는 550g이다.

ㅇ 磨製石斧 (그림 101-①, 사진 137-⑤)

교란층에서 채집한 마제석부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두부에서 날쪽으로 가면서 점차 넓어지는 형태이고 身部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두부는 일부가 결실되었고 날은 조개날로서 많이 사용하여 무뎌지고 거칠어졌다. 身部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마연하였다.

크기는 길이 15.1㎝, 폭 6㎝, 두께 2.7㎝이다.

ㅇ 갈봉편 (그림 101-②, 사진 137-⑥)

교란층에서 채집한 갈봉편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되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주로 밑면만을 사용하여 납작하게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고루 갈려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현존길이 10.8㎝, 폭 8㎝, 두께 5.6㎝이고 무게는 688g이다.

ㅇ 고석 (그림 101-③, 사진 137-⑦)

교란층에서 채집한 고석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납작한 냇돌로 넓은 면 모서리를 사용하여 타격지점이 많이 깨어졌다.

크기는 길이 12.6㎝, 폭 9.2㎝, 두께 2.7㎝이고, 무게 474g이다.

(4) B지구 (그림 102, 사진 41-②, 42)

지경리 B지구는 A지구 북쪽 화상천 건너 470m지점의 해발 20m 정도 구릉의 끝자락 암반층 위의 모래 퇴적지형이다. 동지역은 이미 도로공사로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암반층 위에 약간의 모래층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서편에 나타난 자른 면을 보면 구릉에서부터 곡간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사지대로 서편 경작지는 비교적 안정된 토층으로 볼 수 있으나 북쪽 암반층 위에 토층은 비교적 급경사지 위의 모래층이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편 경사지는 모두 5개 층을 보이는데 Ⅳ층인 흑갈색 유물포함층이 80~120㎝까지 두껍게 나타나 인공층위로 구분하여 위에서부터 30㎝씩 3계 층으로 나누어 유물을 수습하였다.

Ⅳ층에서는 A지구 6호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일명 금강식토기와 사격자문토기 등이 일부 노출되었다. 그러나 Ⅳ층은 인공층위로서 B지구의 토층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토층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나 A지구 유적과 동시기의 유적으로는 확신한다.

● 遺物

o 口緣部片 (그림 103-①, 사진 138-①)

Ⅰ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면에는 단사선문을 수직으로 내려 연속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기벽두께는 胴部에서 口緣部로 갈수록 얇아지며 0.5~1.3㎝이다.

o 胴部片 (그림 103-②, 사진 138-②)

Ⅰ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위쪽에 단사선문을 그 아래에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103-③, 사진 138-③)

Ⅰ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으로 추정되는 사선문이 일부 押引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굵은 석립이 약간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암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魚網錘** (그림 103-④, 사진 138-⑥)

Ⅰ층에서 출토된 석제어망추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납작한 강자갈의 장축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5㎝, 폭 5㎝, 두께 2.6㎝, 무게 146g이다.

○ **魚網錘** (그림 103-⑤, 사진 138-⑦)

Ⅰ층에서 출토된 석제어망추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납작한 강자갈의 장축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7㎝, 폭 5.4㎝, 두께 1.7㎝이고 무게는 100g이다.

○ **魚網錘** (그림 103-⑥, 사진 138-⑧)

Ⅰ층에서 출토된 석제어망추로 석질은 규장질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렌즈형이다. 납작한 강자갈의 장축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5㎝, 폭 4.1㎝, 두께 1.5㎝, 무게 58g이다.

○ **魚網錘** (그림 103-⑦, 사진 138-⑨)

Ⅰ층에서 출토된 석제어망추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부정형이고 단면은 타원형이다. 납작한 강자갈의 장축 양측면의 한쪽씩만을 떼어 홈을 만들었으나 너무 많이 떼어 器面의 1/2정도씩 떨어졌다.

크기는 길이 5.3㎝, 폭 4.1㎝, 두께 1.5㎝, 무게 58g이다.

○ **魚網錘** (그림 103-⑧, 사진 138-⑩)

Ⅰ층에서 출토된 魚網錘 片으로 석질은 규장질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나 절반정도가 결실되었다. 납작한 강자갈의 장축 측면을 잔손질로 떼었으나 1면은 너무 많아 떼어 1/2정도가 떨어졌다.

크기는 길이 4㎝, 폭 5.4㎝, 두께 2㎝, 무게40g이다.

ㅇ 未完成石鏃 (그림 103-⑨, 사진 138-④)

Ⅰ층에서 출토된 화살촉 미완성품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형태는 유엽형으로 추정되고 단면은 납작하다. 전체적인 형태는 섰으나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고 일부에는 마연된 흔적이 잘 남아있다.

크기는 길이 9.2㎝, 폭 2.5㎝, 두께 0.4㎝, 무게는 14g이다.

ㅇ 石鏃 (그림 103-⑩, 사진 138-⑤)

Ⅰ층에서 출토된 석촉으로 석질은 셰일이다. 형태는 유엽만입촉으로 매우 정교하게 갈았다. 촉의 끝부분과 미부의 한쪽 날이 결실되었다. 단면은 렌즈형이며 미부의 가운데는 얕은 홈이 파여져 있다.

크기는 길이 8.3㎝, 폭 1.5㎝, 두께 0.5㎝, 무게는 8g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4-①, 사진 139-①)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파손된 것을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胴部 중간까지 사격자문을 얕게 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橫走魚骨文으로 추정되는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석립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20㎝, 현존높이 11㎝,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이다.

ㅇ 鉢形土器片 (그림 104-②, 사진 139-②)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鉢形土器로 파손된 것을 복원하였다. 底部는 약간 편평하면서 완만하게 胴部로 연결되는 대야바닥이고 口緣部는 胴部에서 수직으로 약간 올라오다 반듯

한 입술은 만들었다 成形기법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기벽은 內外면 물손질 整面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되었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일부 남아있다. 외면에는 口緣 바로 아래부터 짧은 短斜線은 7~8개씩을 한 단위로 押捺施文한 구획문을 胴部밑까지 연속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명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2㎝, 추정 입지름 18㎝,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5~0.6㎝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4-③, 사진 139-③)

Ⅱ층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口緣部片이다. 바닥은 둥근 바닥이고 바닥에서 口緣部로 완만하게 바로 연결되어 최대폭을 이룬 후 안쪽으로 약간 좁히면서 둥근 입술을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내면은 거친 편이다. 외면 위쪽으로는 유기물의 탄화에 의한 탄소가 많이 흡착되어 검게 나타난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3.5㎝, 추정 입지름 17.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4-④, 사진 139-④)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진흙 속에 묻혀있어 외면의 마모가 심하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10열 押捺施文하고 그 아래에는 胴部文으로 橫走魚骨文을 沈線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30㎝, 현존높이 11㎝,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5-①, 사진 139-⑤)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위에 적색진흙을 한 겹 입힌 후 물손질 整面하였다.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자국이 남아있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끝이 4갈래로 나누어진 施文具로 단사선문을 연속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석립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5-②, 사진 139-⑥)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胴部에서 밖으로 약간 젖히며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정연하게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크기는 현존높이 5.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5-③, 사진 139-⑦)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단사선문을 연속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흑색, 內外면 적색이며, 외면에는 적색 진흙을 덧바른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현존높이 3.5㎝, 기벽두께는 口緣部로 가면서 얇아지며 0.7㎝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5-④, 사진 140-①)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內外면 모두 마모가 심하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사격자문이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석립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약한 편이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3㎝, 기벽두께는 口緣部로 갈수록 얇아지며 0.8㎝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5-⑤, 사진 140-②)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도면 복원하였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크기는 추정 입지름 10.4㎝, 현존높이는 3.3㎝,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5-⑥, 사진 140-③)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부터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굵고 깊게 사선문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가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 기벽두께는 1㎝이다.

○ **胴部片** (그림 105-⑦, 사진 140-④)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벽에는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었으나 마모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들어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9㎝이다.

○ **胴部片** (그림 105-⑧, 사진 140-⑤)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위쪽에 橫走魚骨文을 施文하고 그 아래쪽에는 사선을 수직으로 施文하였으나 기벽이 마모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암갈색, 외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胴部片** (그림 105-⑨, 사진 140-⑥)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내면에 균열이 많이 생겼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가 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105-⑩, 사진 140-⑦)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마모가 많이 되었다. 외면에는 위쪽에 작은 손톱문을 施文하고 그 아래에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얕은 사선

문을 施文 하였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 약간과 운모가 많이 섞여 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가 3.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胴部片 (그림 105-⑮, 사진 140-⑧)

Ⅱ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施文되어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흑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2.2㎝,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6-①, 사진 141-①)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내면은 많이 마모되었다.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횡방향으로 연속 押捺施文하여 현재 12줄이 남아있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가는 운모가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속심 흑갈색이고, 외면은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1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6-②, 사진 141-②)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의 손누름자국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끝이 4갈래로 나뉘어진 施文具로 횡방향으로 가면서 단사선문을 6열 연속施文하였다. 그 밑에는 종주어골문과 사선문을 복합施文하여 胴部문을 구획하였으나 파손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약간씩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외면에 균열과 표면박리가 많이 일어났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9.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6-③, 사진 141-③)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

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외면은 口緣部 1㎝ 아래부터 좌에서 우하방향으로 굵고 깊은 사선문이 일부 남아있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1.1㎝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6-④, 사진 141-④)

Ⅲ층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口緣部片이다. 기형은 완만하게 휘어 올라오다 바로 둥근 입술을 만들었다. 기벽은 內外면 물손질整面하여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기벽에 균열이 많이 일어났다. 색깔은 속심 흑색, 내면 황갈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8㎝,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6-⑤, 사진 141-⑤)

Ⅲ층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口緣部片이다. 口緣 은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리하였다.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종선이 관찰된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成形기법은 輪積法으로 추정된다. 색깔은 내면 갈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5.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6-⑥, 사진 141-⑥)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바로 아래부터 단사선문을 연속으로 押捺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씩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크기는 현존높이가 6.4㎝,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6-⑦, 사진 141-⑦)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이다. 口緣部는 直立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하였고 외면에는 口緣部 1㎝ 아래에서부터 끝이 갈라진 施文具로 종주어골

문을 불규칙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胴部片** (그림 106-⑧, 사진 141-⑧)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기벽 균열이 심한 편이다. 외면에는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정연하게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약하여 기벽이 잘 부스러진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5㎝, 기벽두께는 0.7㎝이다.

○ **胴部片** (그림 106-⑨, 사진 142-①)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으나 內外면 모두 기벽에 균열이 일어났다. 외면에는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과 운모가 약간씩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한 편이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적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6㎝이다.

○ **胴部片** (그림 106-⑩, 사진 142-④)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빗질 整面하여 내면에 빗질흔적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끝이 마모된 施文具로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흑색, 외면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7㎝,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106-⑪, 사진 142-②)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 하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整面하였고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을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한 편이다. 색깔은 내면 암갈색, 외면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6㎝,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106-⑫, 사진 142-⑤)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하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成形시 손누름자국이 일부 남아있다. 외면에는 불규칙한 선문을 수직으로 내려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內外면 모두 암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두꺼우며 1.3~0.8㎝이다.

○ **胴部片** (그림 106-⑬, 사진 142-⑥)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胴部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整面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있고, 외면에는 불규칙한 사선문이 얕게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약간씩 섞여있고 燒成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8㎝이다.

○ **胴部片** (그림 107-①, 사진 143-①)

Ⅲ층에서 출토된 胴部 하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표면에 균열이 심하고 일부는 떨어져 나갔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이 施文되어 있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불량하여 기벽이 잘 부스러진다. 색깔은 속심 흑색, 외면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4.5㎝, 기벽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 **底部片** (그림 107-②, 사진 143-②)

Ⅲ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밑둥근 底部片으로 도면복원하였다. 기벽은 물손질하였으나 내면은 마모가 심하다. 외면에는 胴部에서 바닥끝까지 가는 사선문을 수직으로 施文하였다. 胎土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있고 燒成은 보통이다. 색깔은 내면 흑갈색, 외면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가 8㎝이고, 기벽두께는 약간 불규칙하며 0.6~1㎝이다.

○ **魚網錘** (그림 107-③, 사진 143-③)

Ⅲ층에서 출토된 石製魚網추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부정형의 할석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몸통은 할석인 관계로 불규칙하고 장축의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7.2㎝, 폭 5.4㎝, 두께 2.7㎝이다.

○ **魚網錘** (그림 107-④, 사진 143-④)

Ⅲ층에서 출토된 石製 魚網錘로 석질을 화강암이다. 형태는 부정형의 할석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몸통은 불규칙하고 장축의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으나 1면은 깨어졌다.

크기는 길이 6㎝, 폭 5.5㎝, 두께 1.5㎝이다.

○ **魚網錘** (그림 107-⑤, 사진 143-⑤)

Ⅲ층에서 출토된 石製 魚網錘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강자갈의 납작한 장축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길이 5.8㎝, 폭 5.5㎝, 두께 1.5㎝이다.

○ **石斧** (그림 107-⑥, 사진 143-⑥)

Ⅲ층에서 출토된 돌도끼로 석질은 석영편암이다. 형태는 장방형이고 두부는 결실되었다. 날은 사용으로 인하여 모두 결실되었으며 날쪽으로 가면서 얇아지면서 장타원형이다. 身部 는 깨끗이 잘 갈렸다.

크기는 길이 12㎝, 폭 5.4㎝, 두께 3.4㎝이다.

○ **石斧片** (그림 107-⑦, 사진 143-⑦)

Ⅲ층에서 출토된 돌도끼片으로 석질은 규암이다. 형태는 두부만 남아 추정이 어렵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身部는 잘 갈렸다.

크기는 길이 6㎝, 폭 5.6㎝, 두께는 2.6㎝이다.

○ **숫돌** (그림 107-⑧, 사진 143-⑧)

Ⅲ층에서 출토된 숫돌로 석질은 흑운모 석영암이다. 형태는 배부른 장방형이고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身部는 4면을 모두 사용하였다.

크기는 길이 8㎝, 폭 3.2㎝, 두께 1㎝이다.

○ 화살촉편 (그림 107-⑨, 사진 143-⑨)

Ⅲ층에서 출토된 화살촉片으로 석질은 세일이다. 형태는 일부만 남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유엽형촉으로 추정되고 단면은 직사각형이다. 간 흔적과 양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길이 3.5㎝, 폭2㎝, 두께 0.2㎝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8-①, 사진 144-①)

B지구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밖으로 경사지게 반듯이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구연외면 1㎝아래에는 〈자문을 좌에서 우방향으로 가면서 연속 押捺施文하였다. 기벽은 두꺼우며 성형은 내경방식으로 쌓아올렸다. 태토는 점토에 작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고 색깔은 내외면 주황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5㎝, 폭 7.5㎝, 두께 1㎝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8-②, 사진 144-②)

B지구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구연 바로 아래부터 끝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시문구로 단사선문을 연속 押捺施文하였다. 태토는 점토에 작은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소성은 양호하여 단단하다. 색깔은 속심 흑회색, 내외면 암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7㎝, 폭 8㎝, 두께는 동부에 비하여 口緣部가 얇으며 동부 0.8㎝, 口緣部0.5一이다.

○ 口緣部片 (그림 108-③, 사진 144-③)

B지구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구연외면 바로 아래부터는 다치구에 의한 단사선문을 좌에서 우방향으로 연속 押捺施文하였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색깔은 내외면 모두 황갈색이다.

크기는 현존높이 4.2㎝, 폭 6.5㎝, 두께는 몸통에 비하여 口緣部가 얇으며 몸통 0.6㎝, 구연 0.4㎝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8-④, 사진 144-④)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구연외면 바로 아래부터는 橫走魚骨文을 시문하였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운모도 약간 관찰된다. 색깔은 내외면 모두 적갈색을 띤다.

크기는 길이 7㎝, 폭 3.6㎝, 두께는 몸통에서 口緣部로 가면서 점차 얇아져 몸통 0.8㎝, 口緣部 0.3㎝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8-⑤, 사진 144-⑤)

교란층에서 출토된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은 둥글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가는 횡선자국이 약간 남아있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소성은 불량하다. 색깔은 내외면 모두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 두께 0.8㎝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8-⑥, 사진 144-⑥)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口緣部片으로 口緣部는 직립이고 입술끝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에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태토가 많이 부서졌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깊게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운모도 약간 관찰된다. 색깔은 속심 황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현존높이 3.7㎝, 폭 4.2㎝, 두께 0.6㎝이다.

ㅇ 口緣部片 (그림 108-⑦, 사진 144-⑦)

교란층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 口緣部片으로 입술은 반듯하게 만들었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여 매끄럽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속심 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2.4㎝, 두께 0.6㎝이다.

ㅇ **동부片** (그림 108-⑧, 사진 144-⑧)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동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성형시의 테쌓기 흔적이 잘 남아있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을 얇게 시문하여 희미하게 남아있다.

크기는 길이 10.5㎝, 폭 12㎝, 두께 1㎝이다.

ㅇ **동부片** (그림 108-⑨, 사진 145-①)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동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에는 橫走魚骨文을 깊고 넓게 시문하였고 橫走魚骨文 사이의 공간에는 점문을 3~4개씩 押捺施文하였다. 태토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황갈색, 외면 흑갈색이다.

크기는 가로 8㎝, 세로 5.2㎝, 두께 0.7㎝이다.

ㅇ **동부片** (그림 108-⑩, 사진 145-②)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동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물손질에 의한 횡선문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윗쪽에는 사격자문이 아래쪽에는 橫走魚骨文으로 추정되는 침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많이 섞여 있고 소성은 양호하다. 색깔은 내면 적갈색, 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6.4㎝, 세로 6.7㎝, 두께는 고른 편으로 0.7㎝이다.

ㅇ **동부片** (그림 108-⑪, 사진 145-③)

교란층에서 출토된 櫛文土器 동부片이다. 기벽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횡선문이 깊게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점토에 모래 크기의 석영이 섞여있다. 색깔은 속심 흑색, 내외면 흑갈색을 띤다.

크기는 가로 4.2㎝, 세로 3.2㎝, 두께 0.7㎝이다.

ㅇ **魚網錘** (그림 108-⑫, 사진 145-⑤)

교란층에서 채집한 석제어망추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납작한 강자갈의 장축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폭 5.6㎝, 두께 2.5㎝이고, 무게는 142g이다.

ㅇ **魚網錘** (그림 108-⑬, 사진 145-⑥)

교란층에서 채집한 어망추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은 얇은 장타원형이다. 납작한 강자갈로 장축의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6.3㎝, 폭 5.9㎝, 두께 1㎝, 무게는 64g이다.

ㅇ **魚網錘** (그림 108-⑭, 사진 145-⑦)

교란층에서 채집한 석제어망추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은 얇은 장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납작하고 긴 강자갈로 장축의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으나 뒷면은 많이 깨어졌다.

크기는 길이 10㎝, 폭 5.7㎝, 두께 1.8㎝, 무게 110g이다.

ㅇ **魚網錘** (그림 108-⑮, 사진 145-⑧)

교란층에서 채집한 석제어망추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부정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납작한 강자갈로 장축의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으나 1면을 너무 세게 때려 많이 결실되었다.

크기는 길이 9.2㎝, 폭 6.4㎝, 두께 2.1㎝, 무게 156g이다.

ㅇ **魚網錘** (그림 108-⑯, 사진 145-⑨)

교란층에서 채집한 어망추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반원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납작한 강자갈로 장축의 양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크기는 길이 8.5㎝, 폭 5.4㎝, 두께 2㎝, 무게 134g이다.

○ **魚網錘** (그림 108-⑰, 사진 145-⑩)

교란층에서 채집한 어망추片으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납작한 강자갈로 장축의 한측면을 잔손질로 떼어 홈을 만들었다.

현존크기는 길이 7.6㎝, 폭 6㎝, 두께 1.2㎝, 무게 68g이다.

○ **갈판편** (그림 109-①, 사진 145-④)

교란층에서 채집한 갈판편으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의 말안장 형태로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단면은 오목렌즈형이다. 양면은 모두 사용하였으나 밑면은 약간만 사용하여 둥근 편이고 윗면은 많이 사용하여 오목하게 파였다. 모서리는 모양을 내기 위하여 다듬었다.

현존크기는 길이 28.5㎝, 폭 23.5㎝, 두께 6.5㎝이다.

○ **석부** (그림 109-②, 사진 146-①)

교란층에서 채집한 돌도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단면은 두부 원형, 날부분은 장타원형으로 날쪽으로 갈수록 얇아진다. 날은 조개날로서 직선에 가깝고 양쪽을 갈아 날카롭다.

크기는 길이 17.4㎝, 폭 5.6㎝, 두께 4.2㎝, 무게는 558g이다.

○ **석부편** (그림 109-③, 사진 146-②)

교란층에서 채집한 돌도끼편으로 석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전체적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크기에 비하여 두께가 얇은 편이고 날은 조개날로서 날카롭고 전체적으로 잘 갈렸다.

크기는 길이 10.8㎝, 폭 8.2㎝, 두께 6㎝, 무게 474g이다.

○ **갈돌** (그림 109-⑥, 사진 146-③)

교란층에서 채집한 갈돌로 석질은 화강암이다. 형태는 방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1면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면은 다듬지 않아 거친 편이다.

크기는 길이 10㎝, 폭 10㎝, 두께 6㎝, 무게는 932g이다.

ㅇ **고석** (그림 109-⑤, 사진 146-④)

교란층에서 채집한 고석으로 추정되는 원판형 석기로 석질은 산성암맥이다. 형태는 원판형이고 단면은 장타원형이다. 많이 사용한 흔적은 없으나 모서리 일부를 두드려 마모된 얕은 흔적이 있다.

크기는 길이 9.6㎝, 폭 9㎝, 두께 3.1㎝, 무게 410g이다.

ㅇ **미완성석기** (그림 109-④, 사진 146-⑤)

교란층에서 채집한 미완성 석기로 석질은 셰일이다. 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단면은 판석형이다.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살촉 미완성품으로 추정되고 모서리부분과 양면에 약간씩의 간 마모자국이 남아있다.

크기는 길이 7.8㎝, 폭 2.8㎝, 두께 0.3㎝, 무게 18g이다.

2. 考察

中部東海岸地域의 新石器時代 調査硏究는 1980年代 鰲山里遺蹟 調査에 의하여 비로서 學界의 注目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餘個의 遺蹟이 조사되었다[4].

주지하다시피 오산리 上位層과 中位層에서는 東北地域의 平底系 土器가 主流를 이루었으며 上位層에서는 中·西部地域의 尖底系 櫛文土器가 出土되어 兩系 土器의 先後關係가 確認되었다[5]. 한편 오산리 B地區 2호 주거지에서는 口緣部에 短斜線文, 胴部에 橫走魚骨文이 시문되는 中·西部地域의 區分文系 土器와 口緣部에 斜格子文이나 三角形集線文이 시문되는 東南部地域의 太線文系 土器와 유사한 土器要素가 혼합된 土器(도면 9-B)가 出土되었으며, B地區 2호 주거지의 C14 測定年代는 4,360±50B.P이다.

그 뒤 1990年代에는 襄陽郡 巽陽面 柯坪里에서 住居址 2基[6] 와 縣南面 地境里에서 住居址 10基[7] 가 확인되었는데 兩遺蹟에서는 尖底系 櫛文土器가 出土되어 中部東海岸地域의 尖底系 櫛文土器文化의 時期와 系統問題 究明에 상당한 進展을 보게 되었다.

---

4) 〈표 1〉참조

5)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4·1985·1988.《鰲山里遺蹟》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第9冊·10 冊·13冊

6)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襄陽 柯坪里》先史遺蹟發掘報告

7) 강릉대학교 박물관, 1995.〈襄陽郡 地境里 發掘調査 指導委員會議資料〉

〈표 1〉中東部地域의 新石器遺蹟 一覽表

番號	遺蹟名	性格	關聯文獻	備考
1	江陵 土城址	산포지	有光敎一, 1938.〈朝鮮 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考古學雜誌》28-11,	
2	江陵 領津里	산포지	任孝宰, 1966.〈溟洲郡 領津里와 加屯址 櫛文土器遺蹟〉《考古美術》71.	
3	江陵 加屯址	산포지	〃	
4	江陵 池邊洞	포함층	池賢柄, 1991.〈地表調査內容〉《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硏究》	
5	江陵 校洞	포함층	〃	
6	江陵 雉峴洞	산포지	〃	
7	江陵 松林里	〃	〃	
8	江陵 板橋里	〃	〃	
9	江陵 安仁里	〃	〃	
10	江陵 下詩洞	〃	〃	
11	江陵 板橋里	〃	關東大學校 博物館, 1994.《溟洲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12	襄陽 造山里	〃	池賢柄, 1991.〈地表調査內容〉《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硏究》	
13	襄陽 下光丁里	〃	〃	
14	襄陽 鰲山里	住居址	서울대학교박물관,1984 · 1985 · 1988.《鰲山里遺蹟》 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第9冊 · 10冊 · 13冊	
15	襄陽 松田里	산포지	白弘基, 1980.〈江原東海岸의 櫛文土器文化〉《歷史學報》87.	
16	襄陽 柯坪里	住居址	국립문화재연구소,1999.《襄陽柯坪里》先史遺蹟發掘報告書	
17	高城 文岩里	포함층	윤근일, 1999.〈고성 문암리 신석기유적 발굴조사 개요(98~99年度)〉《문화사학》11 · 12 · 13, 한국문화사학회	

여기서는 먼저 地境里遺蹟의 住居址 10基, 小割石遺構 1基, 野外爐址 2基와 그 出土遺物을 종합하고, 鰲山里 B地區 1號 住居址, 小割石遺構 및 積石遺構, 그리고 柯坪里 1·2號 住居址 및 野外爐址와 그 出土遺物도 함께 비교하면서 中部東海岸地域의 新石器時代 中期의 土器編年과 그 系統問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遺構

① 住居址

(가) 住居址의 立地 : 지경리유적은 태백산맥에서 뻗어 내린 삼형제봉(617m)과 만월산(628m) 일대에서 발원하여 동해안으로 흐르는 화상천 河口 南쪽으로 약 50m쯤 떨어진 표고 5~7m의 砂丘 南쪽 傾斜面에 位置한다. 砂丘는 東쪽으로 200m 정도 펼쳐지다가 동해바다와 接한다. 遺蹟의 南쪽으로는 빈제가 형성되어 있고, 이 빈제의 서쪽은 넓은 地境平野가 펼쳐져 있으나 당시에는 潟湖였음이 확인되었다[8]. 이러한 地境里遺蹟 주변의 地形條件으로 보아서 地境里住居址는 서쪽으로 湖水가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의 나즈막한 언덕위에 位置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조사된 鰲山里 B地區 2號[9] 柯坪里 1號·2號住居址[10] 등도 地境里住居址와 비슷한 地形條件을 갖춘 곳이다.

(나) 住居址의 平面形態 : 地境里住居址 10基 중 4基(3호·6호·7호·8호)는 절반 정도가 파괴된 것이나 전체평면 형태는 짐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6基(1호·2호·4호·5호·9호·10호)는 外廓(竪穴의 어깨)과 內廓(竪穴의 바닥)의 형태가 확인되었는데, 內·外廓이 모두 圓形 내지 楕圓形인 것이 3基(1호·2호·9호), 外廓은 圓形 또는 楕圓形이고, 內廓은 抹角方形인 것이 7基(3호·4호·5호·6호·7호·8호·10호)이다.

이와같이 地境里住居址의 平面形態는 內·外廓이 圓形인 것(A형)과 外廓은 圓形이고, 內廓(바닥)은 抹角方形인 것(B형)의 두 類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A형은 3基이고 그 밖의 7基는 모두 B형이다. 地境里住居址는 外廓線(어깨 윤곽선)과 內廓線(바닥윤곽선)이 二重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竪穴住居址의 어깨 윤곽선과 바닥 윤곽선의 형태와 크기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卽 A형은 住居址의 어깨와 바닥의 평면형태가 모두 圓形 또는 楕圓形이지만 그 크기는 바닥의 윤곽선은 어깨의 윤곽선 보다 어느정도 축소된 것이고 따라서 벽은 竪穴의 어깨로부터 바닥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B형은 住居址의 어깨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나 바닥은 말각방형의 평면형태이며 그 크기는 A형과 마찬가지로 바닥은 어깨보다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벽은 역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地境里住居址들의 윤곽(어깨)과 바닥의 크기 및 수혈깊이와 벽면의 경사도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호 주거지는 윤곽 : 바닥 크기의 비가 2 : 1이며, 벽면의 길이는 2m에 달하고, 경사도는 20°~30°의 완만

8) 백홍기·오건환, 1997. 〈중부동해안지역 선사유적의 분포특성과 지형환경〉《古文化》第50輯 151 쪽. 한국대학박물관협회.

9) 任孝宰·李俊貞, 1988. 《오산리유적》Ⅲ, 서울대학교고고인류학총간 13책

1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주6)의 보고서.

〈표 2〉 地境里 新石器 住居址 一覽表

주거지	수혈깊이	벽경사도	윤곽크기	바닥크기
1호	42cm	30°	남-북 420cm 동-서 410cm	남-북 310cm 동-서 270cm
2호	26cm	20~25°	남-북 410cm 동-서 570cm	남-북 330cm 동-서 470cm
3호	60cm	20~30°	남-북 550cm 현존 동-서 410cm	남-북 340cm 현존동-서260cm
4호	94cm	20~30°	남-북760cm 동-서730cm	남-북380cm 동-서400cm
5호	54cm	25~33°	남-북550cm 동-서520cm	남-북280cm 동-서320cm
6호	44cm	20~30°	남-북930cm 현존동-서440cm	남-북780cm 현존동서420cm
7호	120cm	20°	현존남-북880cm 동-서1000cm	현존남-북600cm 동-서570cm
8호	42cm	20~40°	남-북418cm 현존동-서190cm	남-북290cm 현존동-서85cm
9호	32cm	25°	남-북440cm 동-서415cm	남-북350cm 동-서325cm
10호	32cm	20~30°	남-북400cm 동-서380cm	남-북340cm 동-서310cm

한 경사를 이룬다.

이와 같이 地境里住居址의 特徵은 壁面이 수직인 通常的 竪穴住居址와는 달리 상당히 완만한 傾斜를 이루고 있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물론 현존 유구가 原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주거지들의 바닥은 윤곽선보다 축소된 위치에서 확인되었으며 4호주거지에서는 완만한 벽면에 대부분 土器가 놓여 있었던 점으로 보아 벽면은 貯藏空間으로 활용되었음이 확실하다. 양양군 柯坪里 1號住居址는 外廓과 內廓(바닥)이 抹角方形이고, 벽면은 20~25°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것이다.

地境里나 柯坪里의 이러한 住居址 形態는 先史時代의 竪穴住居址로서는 극히 異例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類似한 住居址는 岩寺洞 6호 住居址[11], 南京 遺蹟 31호 住居址[12], 장촌 遺蹟 1호 住居址[13]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나 이들 住居址는 長方形이나 圓形

11) 任孝宰, 1985. 《岩寺洞》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11册, 21쪽.

의 竪穴 중앙부에 圓形 또는 長方形의 바닥이 파여져 있는 二段構造의 特異한 것으로 地境里나 柯坪里住居址와는 차이가 있다.

(다) 住居址의 規模 : 住居址 바닥의 크기가 확인된 것은 6基(1호·2호·4호·5호·9호·10호)이고, 그 밖의 4基는 일부분이 파되된 것이나 그 크기는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현존 크기만으로도 30㎡ 이상의 것은 2基(6호·7호)이고, 10~20㎡의 것이 4基(2호·4호·9호·10호), 10㎡ 이하의 小形住居址가 4基(1호·3호·5호·8호)이다. 따라서 地境里住居址는 1~2기를 제외하면 모두가 小形住居址로서 과연 모두가 일상적으로 가족이 起居하는 주거공간 이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주거지의 벽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面積도 넓은 편이므로 土器나 生活用具 등을 놓아 두는 貯藏空間으로 활용되었을 可能性도 높다.

(라) 바닥 및 壁面處理 : 지금까지 中部東海岸地域에서 확인된 新石器時代 住居址는 예외없이 해변의 砂丘上에 조성된 것이며, 住居址 바닥은 모래바닥을 그대로 이용한 것(地境里 1호·3호·8호·9호·10호, 柯坪里 2호)과 진흙다짐을 한 것(地境里 2호·4호·5호·6호·7호, 柯坪里 1호, 鰲山里 B-1호, B-2호)이 있다. 壁面은 調査 당시에는 20~30°의 완만한 傾斜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地境里 4호 住居址의 壁面은 어깨로부터 바닥까지의 폭이 2m에 이르고 北壁쪽에서는 壁面의 마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불탄 통나무가 바닥과 벽 사이에 있었으며, 完形으로 복원된 土器들이 壁面의 아래쪽 傾斜面에 놓여졌던 것으로 보아 당시 地境里 4호 住居址의 壁面은 段으로 된 平坦面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壁面이 二段으로 조성되어 住居址의 윤곽이 內廓과 外廓의 二重構造로된 住居址들은 岩寺洞 6호[14], 南京 31호[15], 장촌 유적 1호 住居址[16]에서 볼수 있으나 이러한 中西部地域의 住居址와 地境里 4호 住居址와는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相互關係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地境里 竪穴住居址들의 壁面과 바닥處理의 特徵은 文化傳播에 의한

12)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16쪽.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 석광준·하순산, 1987. 〈장촌유적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36~42쪽. 사회과학출판사.
14) 任孝宰, 1985. 《岩寺洞》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11冊, 21쪽.
15)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6쪽.
16) 석광준·하순산, 1987. 〈장촌유적 발굴보고〉《조선고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外部的 영향이라기 보다는 砂丘라고 하는 環境的 條件에 적응하여 조성한 地域的 特徵으로 여겨진다.

(마) 주거지의 내부시설 : 地境里住居址의 내부시설로는 爐址·柱穴·出入口 등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貯藏施設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이 新石器時代 住居址로서는 例外的이다.

⊙ 爐址 : 爐址가 확인된 것은 4호·5호·7호·10호이고, 住居址 바닥 가운데에 1개씩 설치된 것이다. 爐址의 형태는 장방형(4호), 장타원형(5호·7호), 원형(9·10호)이며, 둘레에 큼직한 할석을 돌려 놓은 것이다.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4호·10호 주거지의 노지에 사용된 割石은 진흙바닥에 ⅓ 정도식 묻혀있는 것으로 보아 모래땅 위에 진흙을 펴서 바닥을 조성할 때 爐址 둘레에 割石을 진흙바닥에 박은 것으로 추정된다.

⊙ 柱穴 : 4호주거지에서 2개가 확인되었다. 바닥의 남서쪽과 남동쪽 모서리에서 직경 30cm 정도의 柱穴이 확인되었다. 재가 된 기둥자리의 깊이는 30cm 정도이다.

⊙ 出入施設 : 出入口가 확인된 것은 1호뿐이다. 주거지 남쪽에 길이 60cm, 폭 70cm로 짧게 돌출된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 비스듬히 傾斜진 것이다. 柯坪里 1호 住居址에서도 이와 비슷한 돌출된 출입구가 확인되었다[17].

② 野外施設

(가) 設置 位置 : 地境里遺蹟에서는 小割石遺構 1基, 野外爐址 2基(도면 4-①·②)가 확인되었다. 이번에 地境里에서 확인된 住居址 10基와 野外施設 3基는 대략 南北 길이 100m, 東西 폭 30m 정도의 범위내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小割石遺構는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野外爐址는 南과 北쪽의 外廓에 각각 위치하며 규모가 가장 큰 4호와 7호 주거지와는 각각 南北方向으로 10m 쯤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러한 배치상태와 層位 및 그 出土 土器片으로 보아서 地境里 遺蹟의 住居址 밖에서 확인된 野外施設은 住居址와

1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주6)의 보고서 32쪽.

同時期의 遺構라고 생각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割石遺構는 鰲山里 B地區에서도 3基가 확인되었으며[18] 野外爐址는 柯坪里遺蹟에서 3基가 확인되었다[19].

(나) 小割石遺構 : 地境里遺蹟의 小割石遺構는 직경 2.5m 크기의 흑색모래바닥위에

〈표 3〉 中部東海岸地域 新石器時代住居址의 野外施設集成表

유구	유적	평면형태	규모		내부구조	축조재료	포함물	시대
			크기(m)	두께(cm)				
小割石遺構	地境里 1호	원형	직경 2.5m	20~30cm	할석 1겹, 흑색사질토 퇴적	불맞은 활석	즐문토기편	신석기시대
	鰲山里 A-1호	원형	6m 범위	20~60cm	가장자리할석(소형), 중앙 부함몰(대형), 흑색 사질토	〃	목탄,재, 소토, 토기편	〃
	鰲山里 B-1호	타원형	직경 4m	20cm	검은색 부식토	할석	목탄	5,690± 120.B.P
	鰲山里 B-2호	원형	직경4m	20cm	가장자리와중앙부분에할 석돌림	할석	목탄	
野外爐址	地境里 1호	원형	남북2.1m× 동서1.7m	20~30cm	둘레에적석,서남쪽가운 데작은냇돌(아궁이형)	불맞은활석	즐문토기편	신석기시대
	地境里 2호	원형	길이3.1m ×폭2.8m	15cm		불맞은활석 및냇돌		〃
	柯坪里 1호	원형	지름1.2m ×1.0m		남쪽무적석공간, 火口部施設(아궁이형)	불맞은할석	목탄,탄화 도토리	B.C2000
	柯坪里 2호	원형	〃		할석,자연석	자연석,할석	목탄	신석기시대
	柯坪里 3호	원형	지름1m		함몰된얕은구덩이에 흑색모래,할석	자연석,할석	목탄,즐문토기, 즐문토기편	신석기시대
積石遺構	鰲山里 B-2호	타원형	장축1.8m 단축0,8m		흑색사질토 2~3중으로적석	불맞은할석		버려진돌무지일 가능성도있다.
	鰲山里 B-3호	타원형	장축2.7m 단축1,8m		흑색사질토,할석3~4겹으로 쌓임,가운데가높은형태	불맞은할석		
	鰲山里 B-4호	원형	직경3.5m		가운데함몰,20~30cm깊 이의토광을파고할석을 3~4점씩쌓음	불맞은돌		

18) 任孝宰・李俊貞, 1988.《오산리유적》Ⅲ, 서울대학교 考古 人類學叢刊 13冊, 25~33쪽.
1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주6)의, 51~53쪽.

多樣한 크기의 불맞은 割石이 한겹 깔려 있었으며, 이 割石遺構의 내부에는 20~30cm 두께의 흑색모래층이 퇴적되어 있었다. 여기서는 약간의 櫛文土器片이 出土되었다.

鰲山里遺蹟에서는 A地區에서 1基, B地區에서 2基가 확인되었다. 오산리 B-1호와 B-2호의 割石遺構의 殘存狀態도 地境里 遺蹟의 小割石遺構와 유사하다. 그러나 오산리 B-1, B-2호 小割石遺構는 B-1호 주거지와 B-2호 주거지 보다 약 50~60cm 밑에서 노출되었으며 같은 層位 에서 노출된 B-3호 積石遺構 의 C14 放射性年代 는 5,690±120B.P로 地境里 4號 住居址의 C14 測定年代인 4,590±70B.P(補正 B.C.3350)와 6호의 4,420±60B.P(補正 B.C 3035)보다 앞서는 時期 이다.

地境里와 鰲山里遺蹟에서 확인된 小割石遺構는 내부에 흩어져 있는 불맞은 割石, 木炭, 재, 燒土 등으로 보아서 불을 이용한 야외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用途는 不確實하고, 본래의 形態 도 不分明 하다. 그러나 유구가 노출된 層位나 주변에 위치한 住居址로 보아서 마을 公用의 野外施設일 可能性이 높다.

(다) 野外爐址 : 地境里 遺蹟에서는 野外爐址 2基 (1호·2호)가 확인되었는데, 野外爐址는 그 形態 와 構造가 앞의 小割石遺構와는 다르다. 둥근 積石施設의 남쪽 가운데 부분에 火口部로 보이는 아궁이형의 無積石 空間이 있으며, 無積石 空間의 둘레에 놓인 돌은 더 强 한 불을 맞은 흔적이 뚜렷하고 내부에 퇴적된 흑색사질토에는 櫛文土器片이 섞여 있었다.

양양군 손양면 柯坪里에서도 3基의 野外爐址(1호·2호·3호)가 보고되었는데, 地境里 野外爐址와는 형태와 구조가 다르다. 柯坪里 野外爐址는 火口로 보이는 아궁이형의 無積石 空間 은 없으나 木炭, 炭火 도토리 등 불을 이용한 흔적은 확인되었다.

이밖에 鰲山里 B地區에서는 積石遺構가 보고되어 있는데 地境里와 柯坪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산리 B地區의 積石遺構(B-1호, B-2호,B-3호,B-4호)는 小割石遺構와 비슷하나 積石量이 많고 여러 겹으로 두텁게 쌓여 있는 점이 다르다. 積石遺構 역시 그 본래 形態 와 用途 는 불확실하나, 모든 유구에 불맞은 돌이 남아 있는 점으로 보아 불을 이용하는 野外施設에는 틀림이 없다.

2) 遺物

① 土器

新石器時代遺蹟의 時期 와 地域的 特徵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것은 土器이다. 新石器時代 土器는 器形·胎土·製作技法·文樣의 種類와 施文技法 등을 基準으로 諸屬性을 分類·比較分析하게 된다. 그러나 土器의 出土狀況이 불확실하고 土器의 절대량과 完形土器 不足 등으로 遺蹟의 本質的 土器樣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地境里遺蹟 역시 砂丘地帶인데다가 도로공사로 인한 地層의 파괴가 심하여 層位別 土器樣相은 信賴하기 어렵다. 그러나 住居址 10基의 바닥은 잔존상태가 良好 한 편이고 土器의 出土量도 많았으므로 本 報告書에서는 各住居址別 出土 土器를 중심으로 土器의 諸樣相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또한 地境里遺蹟의 경우도 完形 土器가 적고, 破片이 대부분이어서 土器의 器種이나 文樣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完形 土器 17점이 복원되었고 圖上復元된 것도 70여점이다. 기타 土器片의 個體數는 400여점에 달한다. 따라서 地境里 出土 土器의 대체적인 樣相은 어느 정도 把握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 器形 : 地境里遺蹟에서 出土된 櫛文土器의 器種은 完形 으로 복원된 土器를 기준으로 보면 尖底半卵形土器, 壺形土器(無頸平底, 有頸尖底), 鉢形土器, 盌形土器, 杯形土器 등이 있는데, 대체로 智塔里遺蹟[20]과 岩寺洞遺蹟[21]의 土器 器種과 유사하나 尖底有頸壺(그림 23-①)는 中西部地域에서는 出土例가 보이지 않는 特異한 器種이다.

尖底半卵形土器는 中·西部地域의 典型的인 尖底半卵形土器와 類似하며, 口緣部는 경미한 內灣, 外反의 氣味를 보이는 것도 있고, 口脣은 대부분 평탄하나, 둥근 것, 좀 뾰족한 것도 있다. 底部는 뾰족한 半卵形이고 둥근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6호주거지 출토 土器의 底部는 혹이 붙은것 처럼 볼록한 것도 보이는데 바닥만 남아 있어서 전체 기형은 알 수 없다. 크기는 4호주거지에서 출토된 12점의 完形 土器를 기준으로 보면 口徑이 35cm 이상인 大型 2점, 25~34cm인 中型 5점, 25cm 이하의 小型이 4점이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口徑 : 器高의 對比는 대부분 口徑보다 器高가 좀 높은 편이나 大型 2점은 器高보다 口徑이 좀 크다.

---

20) 1961. 《지탑리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8집. 과학원출판사.
도판 XⅢ, ⅠXXXⅣ, ⅠXXX, LXXXⅠ

21) 국립중앙박물관, 1995. 《岩寺洞》古蹟調査報告 第26冊(Ⅱ) 231쪽.

〈표 4〉 4호 주거지 출토 尖底半卵形櫛文土器 現況　　단위 : cm

번호	도면번호	口徑	器高	두께	口徑:器高比	비고
1	17	43.4	39.6	1.1	1.1 : 1	대형
2	18	34	43.5	0.5	1:1.3	중형
3	19	34.5	39.7	0.6~1.3	1:1.2	중형
4	20-①	29.5	34.8	0.5~1	1:1.2	중형
5	20-②	22	26.5	1.1	1:1.2	소형
6	21-①	30.2	27.2	0.6~1.5	1.1:1	중형
7	21-②	21.4	22.3	0.6~1	1:1.04	소형
8	22-①	22.5	25.1	0.5~1.1	1:1.1	소형
9	22-②	16.6	23	0.5~1.1	1:1.4	소형
10	23-②	30	35	0.7~1.2	1:1.2	중형
11	24-①	36	24?	0.8	1.5:1	대형

壺形土器는 4호주거지에서 2점(그림 16-①, 23-①), 5호주거지에서 1점(그림 40-①)이 출토되었다. 그 중 1점(그림 16-①)은 口緣部가 內灣하여 좁혀진 圓筒形의 無頸平底土器인데 智塔里遺蹟 Ⅰ期 1호住居址 出土品[22]과 유사하나 有孔把手가 없다. 다른 1점(그림 23-①)은 有頸尖底 土器인데 中西部地域에서는 그 出土例가 없는 特異한 形態 의 土器이다. 이와 類似한 土器 1점(그림 40-①) 이 5호주거지에서 出土되었으나 저부가 소실되었다.

鉢形土器는 圓筒形 胴部에 平底인것(그림 16-②)과 圓底인것(그림 6-②)이 있다. 그 밖에 1호주거지에서는 有孔把手가 붙은 平底小甕이 1점(그림 6-①)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器形뿐 아니라 文樣도 江上里 土器와 유사하다[23]. 江上里에서 많이 보이는 有孔把手片은 6호주거지에서 다량 출토되었다(그림 55-⑮·⑯·⑰·⑱, 70-⑬·⑭·⑮)

이상과 같이 地境里에서 出土된 櫛文土器의 器種과 器形은 中西部地域과 類似하며 특히 4호주거지에서 출토된 平底의 無頸壺와 鉢形土器는 智塔里 Ⅰ지구 1호주거지 출토 土器와 器形·文樣의 施文方法 등도 一致하여 兩地域간의 關係가 밀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 胎土 : 土器를 구성하는 중요 物質은 胎土이다. 그러나 製作時의 成形과 乾燥를 원활히 하고, 燒成時의 收縮과 龜裂을 방지하기 위해서 補强劑를 섞는다.

---

22) 주20) 1961. 앞의 보고서, 도판 XⅢ의 8.

23) 변사성·안영준, 1986. 〈강상리 유적의 질그릇 갖춤새에 관한 연구〉《조선고고학연구》1986-2호, 1~22쪽.

地境里 土器의 분석에 의하면 胎土의 補强劑로 石英·長石·雲母·滑石 등이 혼입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혼입물들은 肉眼으로도 관찰될 수 있으나 그중에는 의도적으로 혼입된것이 아니라 본래의 胎土에 포함된것도 있어서 土器製作者들의 제작방법이나 기술수준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번에 地境里 土器는 그 제작기술과 토기의 用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材料科學的 分析을 실시하였다[24]. 試料는 〈표 5〉와 같이 각 주거지별로 35점의 土器片을 抽出하였으며, 分析方法과 그 結果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게재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要點만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土器의 色調는 赤褐色·黃褐色·黑褐色 등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酸化 분위기에서 잘 燒成된 것 이겠으나 土器에 따라서는 군데군데 검은색·회색의 반점이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탄소흡입이나, 불완전 酸化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화재를 입은 토기는 變色 가능성도 있다.

土器의 補强劑는 석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함량의 측정 결과는 20점의 試料片 중 10% 미만이 9점, 10~20%가 5점, 20% 이상은 6점인 것으로 測定되었다. 胎土에 모래가 섞인 정도는 肉眼으로도 어느 정도 식별되는데, 粘土에 본래 섞인 것도 있으나 地境里 土器의 胎土에는 모래나 石粒이 補强劑로 혼입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6호주거지에서 출토된 試料 15번·16번은 肉眼 觀察에서도 다른 土器片과 구별되며, 石英이 거의 혼입되지 않은 정선된 粘土에 滑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滑石이 포함된 土器는 韓半島 中·西部地域의 櫛文土器와 咸南 江上里土器에서도 보이지만[25] 中國東北地方의 遼東半島地域 新石器時代 前期土器의 중요한 特徵이다[26]. 地境里 出土 土器의 胎土에 滑石이 섞인 것은 6호주거지에서만 少量 出土되었다.

토기의 吸收率은 토기의 用途를 추정하는데 중요하다. 試料들에 대한 吸水率은 최저 14.9%에서 최고 27.85%까지 다양하게 測定되었는데 보통 20% 내외인 것으로 測定되었다. 10% 미만의 흡수율을 가져야만 액체를 담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地境

---

24) 地境里遺蹟 出土 土器에 대한 材料科學的 分析은 강릉대학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 윤상옥 교수 지도 아래 최문기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25) 胎土에 滑石이 섞이는 土器가 出土된 西北地域의 新石器時代 遺蹟은 美松里下層·土城里·新岩里·堂山里 등 이며, 대동강지역의 지탑리·궁산리·금탄리, 한강지역의 암사동·동막동 등에서도 보이나, 동해안지역에서는 發見例가 드물다. 주23) 변사성·안영준, 1986, 〈강상리 유적의 질그릇 갖춤새에 관한 연구〉《조선고고학연구》 1986-2호, 1~22쪽.

26) 요동반도지역의 小珠山 下層·柳條溝東山·大崗·後洼 등 新石器時代 前期 遺蹟의 土器는 胎土에 滑石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白弘基, 1994, 《東北平底土器研究》학연문화사 고고학총서 3.

〈표 5〉 토기 분석에 사용된 시료 및 번호

번호	출토장소	두께(㎜)	부위	색조	시문	비고
1	1호 바닥	7	구연부	암갈색	압인문	
2		6	동체	흑색	·	강상리토기계로 동체부의무늬없는부분
3		10	〃	〃	어골무늬	
4	3호바닥	9	〃	암갈색	〃	
5		7	〃	흑갈색	〃	
6		9	〃	암갈색	〃	
7	3호주거지퇴적층	10	〃	황갈색	〃	
8		8	〃	적갈색	〃	
9	4호바닥	10	구연부	황갈색	〃	
10		9	동체	흑갈색	〃	
11		8	〃	흑색	단사선어골무늬	
12		10	〃	담황색	어골무늬	
13	5호바닥	9	구연부	흑갈색	단사선무늬	
14		7	동체	〃	어골무늬	
15	6호바닥	7	〃	〃	〃	활석이많이섞임
16		8	〃	적갈색	·	〃
17		8	〃	황갈색	어골무늬	
18		10	〃	적갈색	·	
19		9	구연부	〃	격자무늬	
20	6호퇴적1층	11	〃	황갈색	빗살무늬	
21		8	〃	흑갈색	〃	
22		9	〃	황갈색	〃	
23		9	〃	흑색	〃	
24	6호퇴적2층	7	동체	적갈색	어골무늬	
25	6호퇴적3층	11	구연부	적갈색	빗살무늬	
26		10	〃	담황색	〃	
27		88	동체	적갈색	격자무늬	
28	7호바닥	8	〃	흑갈색	어골무늬	
29		9	〃	담황색	〃	
30	8호바닥	7	〃	적갈색	·	
31	9호바닥	9	〃	담황색	단사선무늬	
32		6	〃	흑색	단사선어골무늬	
33	10호바닥	7	〃	담황색	사선무늬	
34		8	〃	적갈색	·	
35	6호생활면	7	〃	흑색	타래문	지탑리계통

里 土器는 액체를 담거나 조리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마른 식료품을 담는데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X선회절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石英이 주피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微量의 長石과 雲母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바탕흙에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두껍게 슬립(slip)이 입혀진 30번 시료(8호 출토품)에 대한 X선회절분석에서는 슬립이 胎土보다 훨씬 우세한 石피크가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胎土와 슬립의 燒成溫度가 같지 않는데서 초래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것은 태토를 먼저 초벌구이하고 그 후 슬립을 입혀서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다시 소성했을 가능성을 示唆해준다. 그리고 胎土와 슬립간의 구분이 뚜렷한 14번 시료(5호 바닥출토 토기편)에 대한 E.D.X 분석결과 태토에 함유된 K_2O 성분이 슬립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이와같이 슬립이 입혀진 土器片은 胎土와 슬립에 사용된 粘土의 成分도 다르고 燒成도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地境里 土器의 보편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土器가 地境里 櫛文土器에 小數나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 文様 : 旣述한 바와 같이 本 遺蹟의 4호住居址 出土 土器는 12점이 完形 으로 復元되었고, 圖上復元된 것은 4점이다. 그 중 尖底 半卵形土器가 13점으로 대부분을 占하고, 그밖에 壺形土器 2점, 鉢形土器 1점이 있다. 4호주거지 출토 完形 土器는 文様構成과 施文技法에 따라 세 型式으로 分類할 수 있다.

먼저 尖底 半卵形土器 13점을 보면, 土器의 口緣部, 胴部, 底部에 따라 시문한 所謂 區分文系土器(Ⅰ式 土器)가 10점이고, 部位區分 없이 同一文様을 上部位에만 시문한 同一文系土器(Ⅱ式 土器)가 2점(그림 18·19)이다. 그밖에 尖底 半卵形土器 1점(그림 22-②)과 平底土器 2점(그림 16-①·②)은 土器 全面 혹은 口緣部에 點列文이 시문된 點列文系土器(Ⅲ式 토기)이다. 6호住居址를 除外한 本 遺蹟의 모든 住居址 出土 土器는 이러한 4호住居址 出土 土器文様의 範疇에서 分類가 可能하다. 다만 6호住居址는 7호住居址 위에 덧 놓였던 住居址일뿐 아니라 土器의 文様構成도 여타 住居址와는 判異하다. 卽 區分文系土器의 口緣部短斜線文은 消滅되고 土器의 上部位에는 각종 集線文과 斜格子文이 시문되며, 하부위에는 横走魚骨文이 施文된 土器가 主流를 이룬다. 施文技法面에서는 太線的 沈線文이 多數를 占한다. 이러한 6호住居址의 二部位式土器를 Ⅳ式 土器로 분류하였다.

本 遺蹟 출토 土器중 文様의 組合關係를 알 수 있는 土器는 88점인데, 이중 4個型式의 틀에 따라 分類해본 것이 〈표 6〉이고, 4個型式의 土器에 시문된 文様을 細分하여 각 住居址別로 해당 文様의 個體數를 集計해본 것이 〈표 7〉이다. 以下 各 型式別 土器文様의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地境里遺蹟 各 住居址別 土器文様의 組合 集計表

型式	土器文様 의 組合	1호	2호	3호	4호 바닥	4호 퇴적층	5호	6호 바닥	6호 퇴적층	7호	8호	9호	10호	계
區分文 (I式)	短斜線文+縱走魚骨文+橫走魚骨文+무문			2										2
	短斜線文+변형縱走魚骨文+橫走魚骨文+放射線文				2									2
	短斜線文+변형縱走魚骨文+橫走魚骨文			2										2
	短斜線文+변형 縱走魚骨文+무문				1		2							3
	短斜線文+변형縱走魚骨文+三角形集線文+橫走魚骨文+放射線文				1									1
	短斜線文+鋸齒文+橫走魚骨文	2											1	3
	短斜線文+對向橫走魚骨文+橫走魚骨文+무문			2	1									3
	短斜線文+斜(集)線文+橫走魚骨文	1			1	2							1	5
	短斜線文+三角形集線文+橫走魚骨文+放射線文	2			2								1	5
	短斜線文+菱形집선문+橫走魚骨文	1												1
	短斜線文+梯集線文								1	1				2
	短斜線文+橫走魚骨文(斜線文)	1			1	4		1	1	1		1	4	14
	橫條線文+斜線文						1	1						2
同一文系 (II式)	橫走魚骨文+무문				1	3		8	5	2				19
	對向橫走魚骨文+무문				1									1
	縱走魚骨文+무문				1									1
點列文系 (III式)	點列橫線文+逆三角形集線文+斜線文+格子文	1			1									2
	點列橫線文+點列三角形集線文(2段)				1									1
	點列橫線文+(三角集線文+菱形集線文)+무문	1												1
	點列 타래무늬(변형) (3段)				1									1
	點列菱形集線文(단치구·다치구)+무문	1												1
太線文系 (IV式)	橫走魚骨文+斜線文(橫走魚骨文)							2	1					3
	斜格線文+斜線文(橫走魚骨文)							2	2					4
	三角形集線文+斜線文(橫走魚骨文)							2	3					5
	菱形集線文+斜線文(橫走魚骨文)								3					3
	梯形集線文+斜線文(橫走魚骨文)								1					1
	합 계	10		6	15	9	3	16	17	4		1	7	88

〈표 7〉 地境里遺蹟 各 住居址別 土器文様 分類表

文様分類			1호	3호	4호 바닥	4호 퇴적층	5호	6호 바닥	6호 퇴적층	7호	8호	9호	10호	계
Ⅰ式 ∧區分文系∨	口緣部文	短斜線文	10	9	13	19	7	4	15	9		8	4	98
		爪文			1								1	2
		葉脈文			1									1
		横條線文						1	2					3
		계	10	9	15	19	7	5	17	9		8	5	104
	口緣下部文	縱走魚骨文		3	2									5
		변형縱走魚骨文		2	2		2							6
		鋸齒文	2					1	2					5
		對向横走魚骨文		2	3	1								6
		斜(集)線文	1	2	2							1	2	8
		三角形集線文	3		4	2							1	10
		菱形集線文	2											2
		梯形集線文								1				1
		계	8	9	13	3	2	1	2	1		1	3	43
	胴部文	横走魚骨文	6	7	11	5	3			2		6	5	45
		對向横走魚骨文		2	1								1	4
		斜線文			2				4			2	1	9
		斜格子文					1							1
		계	6	9	14	5	4		4	2		8	7	59
	底部文	横走魚骨文									2			2
		조잡集線文		1	2									3
		放射線文	1	1	3	3				1				9
		계	1	2	5	3				1	2			14
Ⅱ式 (同一文系)		對向横走魚骨文			1									1
		縱走魚骨文			1									1
		横走魚骨文			1	3		8	5	2				19
		계			3	3		8	5	2				21
Ⅲ式 (點列文系)		點列横線文	2		3	5	2		2	1		1		16
		點列변형타래문			1									1
		點列菱形集線文	1		1			2	3					7
		多齒點列菱形文						4	6			1		11
		계	3		4	5	2	6	11	1		2		35
Ⅳ式 (太線文系)	上部位文	三角形集線文					1	9	12					22
		菱形集線文						3	11					14
		梯形集線文						2	6	1				9
		斜格子文				3		6	8					17
		斜線文				5	1	3	4		1	1	1	16
		계				8	2	23	41	1	1	1	1	78
	下部位文	横走魚骨文(斜集線文)						8	7					15
		放射線文系						2	5					7
		계						10	12					22
		합 계	28	29	54	46	17	53	92	16	3	20	16	376

◎ 區分文系土器(Ⅰ式 土器)

本 遺蹟의 4호住居址 출토 尖底 半卵形土器 13점 중 口緣部에 短斜線文이 시문된 土器는 9점인데 短斜線文列은 5~11열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住居址 出土 短斜線文土器의 個體數는 98점이고, 그 중 短斜線文의 全貌를 알 수 있는 土器는 26점인데, 短斜線文이 6列 이하인 것은 12점, 7~16列인 것은 14점이다. 전반적으로 보아서 地境里 土器의 短斜線文列은 4~6列이 보편적인 岩寺洞土器[27]보다 많은 것이 特徵이다.

4호住居址 出土 區分文系土器의 口緣部 短斜線文 밑에 附加된 文樣으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縱走魚骨文(그림 20-①, 그림 23-②, 그림 24-①), 對向橫走魚骨文(그림 17), 斜(集)線文(그림 24-②), 三角形集線文(그림 20-②, 25-①)등이 있고, 1호住居址에서는 菱形集線文(그림 6-③), 7호住居址에서는 梯形集線文(그림74-⑭)도 보인다. 縱走魚骨文은 3호·4호·5호住居址에서만 出土되었는데 그중에는 胴部文樣으로 채용된 것(그림 11-①)도 있으나, 그밖에는 복선의 鋸齒狀으로 변형되어 口緣部 밑의 附加文으로 채용된 것(그림 11-②, 21-②, 24-①)이 대부분이다. 對向橫走魚骨文은 橫走魚骨文의 方向을 좌우로 바꾸어 施文한것인데, 앞 方向에는 三角形餘白이 上下에 남고, 뒷 方向에는 菱形餘白이 남겨진 것으로 中西部地域에는 매우 드물게 보이는 文樣이다. 斜(集)線文은 上下로 구획된 三角形안에 斜線을 반쯤 채우고, 그 뒤는 三角形의 餘白을 남긴 集線文인데 4호住居址에서 1점(그림 24-②)이 보이고 그 밖의 住居址에서도 드문드문 보이는 文樣이다. 三角形集線文은 上下로 맞물린 三角形 輪廓을 교차집선으로 채운것(그림 20-②, 25-①)과 鋸齒狀集線文(그림 22-②)이 있다. 菱形集線文은 鋸齒文의 右側 斜線에 平行集線을 그어서 菱形集線을 이룬 文樣이다. 梯形集線文은 긴 垂線을 一定한 간격으로 내려 긋고, 그 사이에 橫線을 채워서 사다리모양을 이룬 文樣이다.

地境里 尖底 土器의 口緣 短斜線文 밑에 附加된 文樣은 5~7종이나 文樣의 基本要素는 斜(集)線文으로 구성된 점이 特徵으로서 中西部地域의 波狀文·重弧文·타래문 등 점열곡선계 文樣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4호住居址에서 Ⅰ式土器와 공반된 點列文系土器(Ⅲ式)에는 변형된 타래무늬가 보이고, Ⅰ式土器에 施文된 縱走魚骨文도 文樣部位 축소와 변형, 附加文化등의 退化樣相이 뚜렷하다는 점이 地境里 Ⅰ式土器 文樣의 特徵이다.

27) 國立中央博物館, 1994·1995, 《岩寺洞》占蹟調査報告 제26册(Ⅰ·Ⅱ)

口緣部 短斜線文 밑에 附加文이 施文되는 尖底 半卵形土器의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이 施文되고 底部에는 橫走魚骨文·斜(集)線文·放射線文 등이 시문되었다. 地境里 土器의 橫走魚骨文은 전반적으로 정연하고 치밀한 斜線으로 시문된 沈線文으로 中西部地域 특히 漢江流域에서 많이 보이는 多齒橫走魚骨文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것 역시 地域的 差異 즉 文樣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特徵이라 여겨진다.

◎ 同一文系土器(Ⅱ式 土器)

4호住居址의 尖底 半卵形土器 중에는 口緣部로부터 胴部 上部位에 걸쳐 橫走魚骨文, 縱走魚骨文과 對向橫走魚骨文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無文으로 남긴 上部位 同一文系土器(그림 18·19·33-⑥)가 있는데, 本 遺蹟 土器로서는 例外的인 것이다. 上部位 限定施文土器가 全面施文土器와 공반되는 것이 地境里 出土 土器의 特徵的 樣相의 하나이다. 4호住居址에서는 無文樣의 尖底 土器도 1점(그림 21-①)출토되었다.

◎ 點列文系土器(Ⅲ式 土器)

4호住居址 출토 尖底 半卵形土器 중 口緣部에 點列橫線文이 시문된 것은 1점(그림 22-②)인데 口緣部 밑의 附加文으로는 逆鋸齒集線文을 채용하고 胴部에는 조잡한 斜線文, 底部에는 역시 조잡한 斜格線文을 시문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밖의 주거지 바닥과 퇴적층을 망라하여 나타난 點列橫線文 土器片은 15점이나 모두 小片이어서 胴部 이하의 文樣은 알 수 없다.

4호주거지에서는 平底土器 2점이 完形 으로 복원되었는데 그 중 1점(그림 16-①)은 변형 타래문을 土器表面 전체에 3段을 시문한 것이고, 다른 1점(그림 16-②)은 點列橫線文帶와 點列菱形文 帶를 교대로 2회 반복 시문하였다. 이러한 點列文土器는 1호주거지에서도 1점(그림 6-②) 출토되었는데, 口緣部에는 點列橫線文帶를 胴部 가운데 部位까지 돌리고, 그 밑에는 작은 菱形과 三角形點列集線文을 대칭으로 배치한 리본 모양의 文樣을 돌렸다. 이상 세 점의 點列文土器는 智塔里 Ⅰ지구 1호주거지 出土 土器와 器形·施文技法 및 文樣의 形態가 매우 類似하다[28].

---

28) 註 20)의 앞보고서.

1호주거지에서는 有孔把手付 小形平底土器가 1점(그림 6-①) 출토되었는데, 文樣은 點列菱形集線文을 口緣部에 局限 施文하였다. 이 土器는 文樣의 形態 와 施文技法이 江上里 土器와 類似한 점이 많다. 江上里系土器의 點列文은 톱니바퀴 모양의 施文具를 돌려가면서 낸 치밀한 點列文이 特徵이고, 文樣의 形態 는 그러한 點列集線文으로 구성된 삿자리 文樣이 特徵이다[29]. 6호주거지에서는 이러한 江上里系의 삿지리狀 點列菱形集線文(그림 56-⑬)토기편이 여러점 출토되었으며, 이밖에 6호주거지에서는 多齒施文具를 연속 밀집 압날하여 이룬 所謂 금강식토기[30]와유사한 點列菱形文 土器片(그림 56-⑨)이 10여점 출토되었는데, 이것 역시 江上里계 점선능형무늬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31].

◎ 太線文系土器(Ⅳ式 土器)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호주거지에서는 口緣部로부터 上部位에 걸쳐 三角形集線文(그림 44-③), 菱形集線文(그림 44-⑧), 梯形集線文(그림 45-⑫, 52-①), 斜格子文(그림 46-⑪) 등이 시문되고, 胴部에는 橫走魚骨文이 시문되는 土器가 主流를 이룬다. 이러한 6호住居址 出土 土器는 文樣의 形態 뿐만아니라 施文技法도 太線的 沈線文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地境里遺蹟의 Ⅰ·Ⅱ·Ⅲ式 土器와는 뚜렷이 區別된다. 6호주거지 출토 Ⅳ式 土器의 太線文 중에는 斜線의 兩端에 깊고 둥근 홈이 있는 南部地域의 전형적인 太線文과 一致되는 것도 더러 있다. 6호주거지 출토 Ⅳ式 土器는 破片뿐이어서 土器의 器形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口緣部片은 대부분 直立이고, 底部片은 尖底이며, 縱位有孔把手片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6호주거지의 Ⅳ式 土器는 文樣의 形態·施文技法面에서 東南部地域의 金海 水佳里貝塚 Ⅰ期 土器(水佳里 1式 土器)와 一致되는 점이 많다[32]. 현재로서는 地境里 6호住居址의 太線文土器(Ⅳ式 土器)는 水佳里貝塚 Ⅰ期 土器(水佳里 Ⅰ式 土器)의 退化된 樣相의 土器라는 印象을 强하게 받게 되지만, 이 土器의 原流問題는 向後 더 많은 資料의 出現을 기다려 深度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地境里 太線文系土器(Ⅳ式 土器)의 主流 文樣인 集線文은 地境里

29) 변사성·안영준, 1986. 주 23)의 앞논문, 17쪽.
30) 申鐘煥, 1993. 《淸原 雙淸里 住居址》학술조사보고서 3, 80쪽, 국립청주박물관.
31) 변사성·안영준, 1986. 주 23)의 앞논문, 17~18쪽.
32) 정징원·임효택·신경철, 1981. 《金海 水佳里 貝塚》부산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4집, 釜山大學校 博物館.

Ⅰ式 土器인 區分文系土器의 附加文과 一致되고 있어서 自生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으며, 6호주거지 土器에서 상당한 比重을 차지하는 江上里系土器 요소도 地境里 Ⅳ式 土器의 發生에 결코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地境里 Ⅳ式 土器의 重要要素인 각종 集線文과 太線的 沈線文 및 縱位有孔把手 등은 대부분 遼東半島 南部地域, 특히 大崗·後洼·美松里 下層 등 압록강유역의 新石器時代 前期遺蹟 土器[33]의 중요한 特徵이라는 것을 勘案한다면, 地境里 Ⅳ式 土器가 반드시 南部地域에서 北上하여 中東部地域으로 파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石器

地境里遺蹟에서 출토된 석기에는 製作技法上으로는 打製와 磨製 가 모두 보이나, 打製技法은 대부분 磨硏에 앞서 자연석을 약간 다듬는데 사용하였고, 전형적인 타제석기는 보이지 않는다. 석촉과 석창을 제외하면 전면 마연 석기는 드물다. 석기의 용도별로는 어로, 수렵용, 채집, 조리용, 공구류,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로 수렵용으로는 어망추, 석촉, 석창등이, 채집 조리용구로는 연석(갈판, 갈돌, 갈봉), 敲石, 石刀 등이, 공구류에는 석부, 砥石등과 기타 용도 미상의 원판형석기등이 출토되었다.

가. 석부 : 대부분 길죽한 강돌의 측면을 조금씩 떼어내어 잘 다듬은 다음 신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연한 마제석부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도끼의 신부는 좁고 가늘고, 날쪽이 넓다. 단면은 타원형이 대분이고, 납작한 렌즈형도 몇 점 있다. 12점이 출토되었으나, 그 중 주거지내에서 출토된 것은 4점에 불과하고, 8점은 A지구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다. 크기는 대, 중, 소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형태는 모두 유사하여 용도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타제석기 2점(5호출토품, A지구 교란층 출토품)은 괭이 등의 掘地具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石質은 花崗岩質片麻岩이 8점으로 가장 많고, 鹽基性脈岩 2점, 黑雲母花崗岩이 각 1점씩이다.

나. 석촉 : 모두 17점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길고 좁은 유엽형이고, 단면은 편육각형이다. 전체적으로 잘 마연 되었고 양날은 날카롭다. 4호출토품 9점중 5점은 基部 가운데

33) 白弘基, 1994. 註 26)의 앞책, 57쪽.

가 위로 패여 양날개를 이루는 逆刺式이다. 그러나 6호출토품 6점은 기부가 대부분 결실되어 확실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그 중 1점(그림 65-②)은 基部가 납작하고 좀 좁혀진 基部쪽에 얕은 홈을 2개 나란히 뚫은 특이한 형태이다. 石質은 세일이 12점, 粘板岩 3점, 泥岩, 片岩이 각각 1점으로 대부분 堆積岩系이다.

다. 석창 : 2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鋒部와 基部가 결실되어 전체 형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남아 있는 身部는 잘 마연되었고 양 날은 날카롭게 마연되었다. 石質은 세일과 黑色片岩이다.

라. 어망추 : 모두 331점이 출토되어 지경리유적 출토 석기 총 415점의 80%가 되는 많은 양을 차지하며, 낚시, 작살 등 그밖의 어로기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물을 이용한 투망어로가 대단히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납작한 냇돌의 양측면을 떼어내

〈표 8〉 地境里遺蹟 遺構別 石器出土 現況表

遺構 \ 石器	石斧	石鏃	石槍	漁網錘	갈돌	갈봉	갈판	石刀	敲石	砥石	用途未詳	계
1호					2							2
3호				1								1
4호		1		1	3	2	4		2		1	14
4호퇴적층	1			2	1	1	3	3				11
4호생활면		7		20								27
5호	1			2	1	1			1	2	1	9
6호	1	3		62	4						1	71
6호퇴적1층				104								104
6호퇴적2층		3		20			1					24
6호퇴적3층	1		1						1		2	5
6호생활면				34								34
7호		3		9	1	1				1	2	17
8호				1								1
9호				8							2	10
10호								1			1	2
10호교란층				1								1
A지구교란층	8		1	66		3	2		2			82
계	12	17	2	331	12	8	10	4	6	3	10	415

어 만든 형태가 대부분이고, 크기는 200ｇ이 넘는는 것과 20g 내외의 예외적인 것도 몇 점 있으나, 대부분 100g내외의 것이 가장 많다. 4호주거지의 생활면에서는 한 장소에서 16점의 어망추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한 개의 그물에 매달았던 어망추일 가능성이 높다. 이 4호주거지 생활면 출토 어망추의 평균 무게는 99g이고, 최고 146g에서 최소 38g까지 다양하다. 이런 정도의 그물이라면 그 크기나 무게로 보아서 한 사람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그물으로 볼 수 있고, 지경리유적에 인접한 여러 호수나 하천 등 내수면의 어로용 어망으로도 적합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지경리 Ⅰ기의 4호주거지에서는 23점이 출토된데 반하여 Ⅱ기의 6호주거지에서는 230점이라는압도적 다수의 어망추가 발견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Ⅰ기보다 Ⅱ기에는 더욱 투망어로가 성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 碾石(갈판, 갈돌, 갈봉) : 갈판의 형태는 판석형의 넓적한 돌을 말각장방형으로 갈아 만들었다. 上面은 장기간 사용하여 말안장 모양으로 움푹하게 마모되었고, 하면은 가운데가 둥글게 마모된 것으로 보아 원형이나 타원형의 갈돌을 둥글게 돌리면서 갈아 사용한 듯 하다. 이러한 碾石의 사용흔적으로 보아서 地境里遺蹟 출토 연석은 두 가지 음식을 가는데 사용한 듯하다. 그 중 한 가지 용도는 지경리 4호주거지 바닥에서 다량 출토된 도토리를 가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또 한가지 용도는 알 수 없다. 연석은 대개 둥근 갈돌이나 봉상 갈돌과 함께 세트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연석은 모두 10점, 갈돌, 갈봉은 20여점이 출토되었다. 연석의 크기는 완형의 경우 길이 47～49cm, 폭 27～33cm, 두께 4.2～5cm이며, 石質은 9점 중 5점은 砂岩이고, 花崗岩 2점, 長石質片麻岩과 花崗岩質片麻岩이 각각 1점씩이다. 갈돌・갈봉 20점은 花崗岩이 16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4점은 片麻岩이다.

바. 石刀 : 10호주거지 바닥 출토 1점(그림 84-④)은 완형으로 보이는데 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날은 양면 마연의 날카로운 날이며, 등쪽은 뜯어낸 흔적이 남았다. 크기는 길이 14cm, 폭 6.5cm, 두께 2.5cm로 손으로 쥐고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기타 4호주거지 출토품 3점은 모두 파손 품이어서 형태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날은 날카롭게 마연되었다. 石質은 모두 花崗岩이다.

〈표 9〉 地境里遺蹟 石器別 石質分類表

石質 \ 石器		石斧	石鏃	石槍	갈돌	갈봉	갈판	石刀	敲石	砥石	用途未詳	계
火成岩	花崗岩	1			9	5	1	4	2	2	4	28
	斑花崗岩				2		1		1	1	1	6
	黑雲母花崗岩	1										1
	珪長質脈岩											
	鹽基性脈岩	2										2
	酸性脈岩										1	1
變成岩	片岩		1									1
	石英片岩										1	1
	黑色片岩			1								1
	花崗岩質片麻岩	8				1	1					10
	黑雲母片麻岩					2			1			3
	長石質片麻岩						1					1
	白雲母片麻岩				1							1
堆積岩	砂岩						5					5
	Shale		10	1							1	12
	灰黑色Shale		1									1
	綠色Shale		1									1
	褐色Shale		1									1
	泥岩											
	粘板岩		3									3
합계		12	17	2	12	8	9	4	4	3	8	79

사. 敲石 : 한쪽끝이 뾰족한 냇돌의 끝에 찧은 흔적이 있거나, 납작한 냇돌의 모서리에 찧은 흔적이 있는 석기를 고석으로 분류하였다. 4호주거지에서 2점, 5호·6호·A지구 교란층에서 각각 1점씩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석질은 화강암 3점, 석영 1점이며, 크기는 12.6cm~19.1cm이다.

아. **砥石** :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한 면 또는 양면이 사용되었다. 석질은 화강암 2점, 반화강암 3점이다.

자. **其他** : 주거지바닥에 놓여진 냇돌 중에는 원판형 또는 장타원형인 것이 10여점 출토되었는데 어망추 미제품으로 보인다.

3) 土器編年 및 竝行關係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地境里遺蹟은 口緣部 短斜線文과 附加文, 胴部 單齒橫走魚骨文이 시문된 土器(地境里 Ⅰ式 土器)를 主流로 하는 4호住居址群(3호·4호·5호)과 口緣部 集線文과 胴部 單齒橫走魚骨文이 시문된 土器(地境里 Ⅳ式 土器)를 主流로 하는 6호住居址群(6호)으로 區分된다. 그런데 6호住居址는 4호住居址와 同系 土器가 出土된 7호住居址 위에 덧놓여 있었으므로 4호 住居址는 6호住居址 보다 앞서는 時期임이 확인되었다.

中東部地域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에서 보면 양양군 손양면 柯坪里 住居址 出土 土器[34]는 4호住居址群 土器에 가깝고, 양양군 손양면 鰲山里 B地區 2호住居址 出土 土器[35], 강 릉시 지변동 지표채집토기[36]는 地境里 6호住居址群 土器에 가깝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地境里 4호住居址群과 6호住居址群은 상당한 時差를 가지고 一定期間 中東部地域에 存續되고 있었음이 認定된다. 우리는 中東部地域의 新石器時代 中期의 土器編年 硏究와 敍述의 편의를 위해서 地境里 4호住居址群의 時期를 地境里 Ⅰ期, 地境里 6호住居址群의 時期 를 地境里 Ⅱ기로 區分하고자 한다.

上記 遺蹟들의 炭素測定年代는 다음과 같다.

〈표 10〉 中東部地域 新石器時代 中期遺蹟 放射性炭素年代

時期	遺蹟	試料採取位置	放射性炭素測定年代(B.P)	補正年代(B.C)	出典
地境里 Ⅰ期	地境里	4호住居址	4,590±70	3,350	본 보고서 192쪽
	地境里	7호住居址	4,600±80	3,355	본 보고서 194쪽
	柯坪里	1호住居址	4,570±60		柯坪里조사보고서(1999) 85쪽
地境里 Ⅱ期	地境里	6호住居址	4,420±60	3035	본 보고서 193쪽
	鰲山里	B地區2호住居址	4,360±50		鰲山里유적Ⅲ(1988) 56쪽

地境里 Ⅰ期는 Ⅰ式土器를 主流로 하여 Ⅱ式, Ⅲ式 土器가 공반되었는데, 이를 中西部地域의 土器編年[37]과 대조해 보았을 때, 大洞江地域이나 漢江地域의 어느 段階 土器樣相

34) 국립문화재연구소 註5)의 앞책, 57쪽.

35) 任孝宰·李俊貞, 1988. 註 9)의 앞보고서..

36) 池賢柄, 1991. 〈지표조사보고〉《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硏究》 63~71쪽.

37) 최근 林尙澤은 中部地域에서 조사된 신석기유적을 총망라하여 1~4기로 구분된 土器 編年案을 제시하였다. 1期 는 前期로, 2期·3期는 中期로 4期는 後期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土器樣相의 特徵과 해당 유적을 同定하고, 절 대연대값도 검토하였다.
林尙澤, 1999. 〈韓半島 中西部地域 新石器時代 中期土器의 樣相〉《先史와 古代》, 한국고대학회.

과도 一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中西部地域 新石器 前期 段階의 特徵的인 文樣인 縱走魚骨文과 點列文이 施文된 土器가 공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地境里 Ⅰ期 土器는 中西部地域의 新石器時代 前期 土器樣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地境里 Ⅰ期의 縱走魚骨文은 이미 胴體部의 中心文樣에서 벗어나 附加文으로 변형 축소되어 있고, 點列文의 경우도 변형된 타래무늬가 시문된 土器가 보인다는 점에서 中西部地域의 前期, 구체적으로는 궁산문화 Ⅱ期, 中部地域 Ⅰ期 段階 보다 늦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地境里 Ⅰ期 土器는 궁산문화 Ⅱ期 이후의 土器樣相과 中部地域 中期前段階(Ⅱ期)의 多齒橫走魚骨文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土器文樣의 變化過程에서 나타난 地域的 差異이며, 年代上의 差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절대연대상으로 보아서 地境里 Ⅰ期는 中部地域의 中期前段階(Ⅱ期)에 近接한 時期로 把握된다.

地境里 Ⅱ期는 Ⅳ式 土器를 主流로 하여 Ⅰ式과 Ⅲ式 土器가 공반되었는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地境里 Ⅳ式 土器는 南部地域 水佳里 1式 土器와 類似하나, 退化樣相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고, Ⅲ式 土器 중 多齒點列菱形紋土器(소위 금강식 土器)文樣은 江上里系 "점선능형무늬"에서 발전 변형된 文樣이라고 보았을 때, 地境里 Ⅱ期 土器는 水佳里 1期와 江上里 보다는 좀 늦는 時期 의 土器樣相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地境里 Ⅱ期 土器에도 中西部地域의 短斜線文土器가 存在하고 있으나 直接 竝行關係를 擧論할만한 特徵的 樣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地境里 Ⅱ期와 가까운 時期의 鰲山里 B地區 2호住居址 出土 土器중에는 短斜線文帶와 三角形集線文帶를 교대로 배치한 금탄리 1式의 帶狀施文土器[38]가 공반되고 있는 점에서 地境里 Ⅱ期 土器는 中西部地域의 금탄리 1式 土器가 나타나는 궁산문화 2期나 中部地域 中期後段階(3期)와 竝行되는 時期의 土器樣相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을 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中西部地域과 周邊地域과의 併行關係

時期	中東部地域	中西部地域		東南部地域
		大洞江地域	中部地域	
신석기시대 중기	地境里 Ⅰ期	궁산문화 3期	중부 2期	
	地境里 Ⅱ期(江上里)		중부 3期	水佳里 1期

38) 사회과학원, 1964. 《금탄리원시유적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0집, 10쪽.
林尙澤, 1999. 註 37)의 앞 논문, 43쪽.
금탄리 帶狀施文 土器는 2~3줄의 띠무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리고 띠무늬 사이에는 橫走魚骨文 이나 三角形 集線文을 돌린 것이나, 鰲山里 B地區 2호住居址 출토품은 2줄의 短斜線文帶를 돌리고 그 사이에는 集線文을 채운 것인데, 群山 鴉島貝塚 出土品과 유사하다.

Ⅶ 맺 음 말

地境里遺蹟調査는 1995년 4월에 시굴조사를 착수하여 1996년 1월에 발굴조사를 종료하였다. 조사 결과, 新石器時代 中期의 住居址 10基, 野外施設 3基, 鐵器時代 住居址 7基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초 中東部地域에서는 양양군오산리유적 上層에서 처음 보이기 시작된 中西部地域의 尖底系 櫛文土器文化와 1990년대초 江陵市池邊洞에서 처음 지표 조사된 東南部地域의 太線文系 土器文化의 編年上의 位置 및 그 文化內容이 더욱 확실하게 파악되어 中東部地域의 新石器時代 中期文化 硏究에 큰 進展을 보게 되었다. 본 조사에 의하여 地境里遺蹟의 尖底系 櫛文土器문화는 地境里Ⅰ期로, 太線文系土器는 地境里Ⅱ期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었다. 地境里 住居址 10基 중 6호는 Ⅱ期에 속하고, 나머지 7내지 8基는 Ⅰ期에 속한다. 地境里Ⅰ期의 炭素測定年代는 4,590±70 (補正年代, B.C.3,350), 4,600±80 (補正年代, B.C.3,355)이고, 地境里Ⅱ期는 4,420±60 (補正年代, B.C.3,035)이다.

地境里遺蹟 Ⅰ期로 구분된 住居址 8基(1호, 3호, 4호, 5호, 7호, 8호, 9호, 10호)의 조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 바닥의 평면 형태는 원형인 것(1호, 2호, 9호)과 말각방형인 것(3호, 4호, 5호, 7호, 10호)으로 구분되나, 주거지의 어깨윤곽선은 모두 둥근 형태이며, 벽은 20°~30°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수혈이다. 1호 3호 주거지에서는 둥근 어깨윤곽선에서 안쪽으로 넘어진 숯기둥들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지붕으로 사용된 석가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호주거지에서는 바닥에 세웠던 굵은 숯기둥이 확인 되므로써 당시 가옥의 지붕 架構를 어느정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즉 주거지 바닥의 둘레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도리를 올려 놓고 도리 위에 석가래가 놓이는 圓錐形의 지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地境里 住居址의 外觀上의 형태는 원추형이며, 당시 생활면인 어깨로부터 안쪽 바닥으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벽을 가진 수혈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4호 주거지에서는 완만하게 경사진 벽면에서 완형의 토기들이 발견되므로써 지경리 주거지의 벽면은 토기나 생활용구등을 놓아두는 저장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 시설로는 爐址, 柱穴, 出入口등이 일부 확인 되었으나 저장용 구덩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주거지 밖의 野外施設로는 小割石遺構와 野外爐址 2基가 확인되었으나, 그 기능이나 용도가 무엇인가는 파악되지 못하였다.

셋째, 유물은 완형토기 17점, 도상복원 70여점, 토기편 231점이 출토되었고, 석기는 177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어망추가 111점(62%)으로 절대 다수를 찾이하고, 그 밖에 석부, 석촉, 석창, 석도, 고석, 지석, 연석등이 출토되었다

地境里Ⅰ期의 토기는 직립구연의 尖底櫛文土器가 주류를 이루고, 그 밖에 壺形土器, 鉢形土器, 盌形土器, 杯形土器가 몇 점씩 출토되었다. 地境里Ⅰ期의 토기는 문양의 종류와 구성에 따라 區分文系(Ⅰ式), 同一文系(Ⅱ式), 點列文系(Ⅲ式)로 분류되었는데, Ⅰ式토기는 口緣部 短斜線文의 列數가 많고, 多齒橫走魚骨文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附加文(從屬文)에서 曲線系 文樣이 전혀 보이지 않고, 斜線이나 集線으로 구성되는 여러 文樣, 특히 縱走魚骨文이 퇴화되어 부가문으로 시문된 점이 특징이다, Ⅱ식토기는 토기의 上部位에만 종주어골문, 횡주어골문을 시문하고 下部位는 無文으로 남겨 두는 것이 특징이다. Ⅲ식토기중에는 중서부지방의 타래무늬가 변형 퇴화되어 독특한 도안으로 바뀐 문양이 보인다.

石器는 漁網錘가 대량 출토되었는데, 그 무게는 100g 전후의 것이 대부분으로 東海岸의 波濤나 水深을 고려한다면, 地境里遺蹟 출토 어망추는 바다 어로보다는 호수나 냇가, 웅덩이등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碾石은 上下兩面을 장기간 사용하여 움푹하게 磨耗되어 있었는데 上面은 말안장 모양으로, 下面은 둥글게 마모되어 있었다. 이러한 碾石의 사용 흔적으로 보아서 地境里 출토 연석은 두 가지종류의 음식을 가는데 사용된듯하다. 그 중 한가지 용도는 4호 주거지 바닥에서 다량 출토된 도토리를 가는데 사용된 듯 하나 또 한 가지 용도는 알 수 없다. 그 밖에 石斧, 石鏃, 石槍, 石刀, 敲石, 砥石등이 몇 점씩 출토되었다.

地境里Ⅱ期로 구분된 住居址는 6호 뿐이고, 그것도 반파된 것이어서 이 시기에 속하는 주거지의 諸樣相은 잘 파악되지 못하였다. 뿐 만 아니라 토기도 완형이 한 점도 없어서 토기의 제양상 역시 충분히 파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거지 바닥과 그 위에 쌓인 퇴적층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어 이 시기의 토기의 양상은 어느정도 파악되었으며, 특히 어망추는 6호 주거지 바닥과 그 퇴적층에서만 220여점이 출토되어 지경리출토 어망추 총 331점 중66%에 달하여 이 시기에 있어서 투망어로가 크게 성행 하였음을 보여 주

었다.

地境里Ⅱ期의 토기는 6호 주거지 출토 토기편으로 보아서 器形上으로는 직립구연에 첨저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듯 하나, 바닥의 끝에 혹이 붙은 것처럼 돋으라진 저부편이 몇점 보이고, 有孔把手片이 여러점이 보이는 것이 Ⅰ期 토기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문양은 형태상으로는 동남부지역의 太線文系 土器와 거의 일치되나 施文技法面에서는 東南部地域의 토기에서 보이는 押引技法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江上里系의 點列菱形文이 공반된 점도 Ⅰ期 토기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地境里遺蹟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中東部地域의 新石器時代 中期文化의 編年과 文化內容을 파악하는데 큰 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특히 中西部地域, 東南部地域, 東北部地域의 新石器時代 中期文化의 傳播 狀況이 地境里遺蹟에서 함께 檢出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부 록

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BETA ANALYTIC INC.

DR. M.A. TAMERS and MR. D.G. HOOD

UNIVERSITY BRANCH
4985 S.W. 74 COURT
MIAMI, FLORIDA, USA 33155
PH: 305-667-5167 FAX: 305-663-0964
E-MAIL: beta@radiocarbon.com

REPORT OF RADIOCARBON DATING ANALYSES

Mr. Hongkie Paik

University of Kang Nung, Korea

August 4, 1998

September 21, 1998

Sample Data	Measured C14 Age	C13/C12 Ratio	Conventional C14 Age (*)
Beta-120738	4590 +/- 70 BP	-25.0* o/oo	4590 +/- 70* BP

SAMPLE #: ND1 (No.4 floor, Gigeonglie-dwelling site, Korea)
ANALYSIS: radiometric-standard
MATERIAL/PRETREATMENT:(charred material): acid/alkali/acid

Beta-120739	4420 +/- 60 BP	-25.0* o/oo	4420 +/- 60* BP

SAMPLE #: ND2 (No.6 floor, Gigeonglie-dwelling site, Korea)
ANALYSIS: radiometric-standard
MATERIAL/PRETREATMENT:(charred material): acid/alkali/acid

Beta-120740	4600 +/- 80 BP	-25.0* o/oo	4600 +/- 80* BP

SAMPLE #: ND3 (No.7 floor, Gigeonglie-dwelling site, Korea)
ANALYSIS: radiometric-standard
MATERIAL/PRETREATMENT:(charred material): acid/alkali/acid
COMMENT: the small sample was given extended counting time

NOTE: It is important to read the calendar calibration information and to use the calendar calibrated results (reported separately) when interpreting these results in AD/BC terms.

Dates are reported as RCYBP (radiocarbon years before present, "present" = 1950A.D.). By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modern reference standard was 95% of the C14 content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Oxalic Acid & calculated using the Libby C14 half life (5568 years). Quoted errors represent 1 standard deviation statistics (68% probability) & are based on combined measurements of the sample, background, and modern reference standards.

Measured C13/C12 ratios were calculated relative to the PDB-1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RCYBP ages were normalized to -25 per mil. If the ratio and age are accompanied by an (*), then the C13/C12 value was estimated, based on values typical of the material type. The quoted results are NOT calibrated to calendar years. Calibration to calendar years should be calculated using the Conventional C14 age.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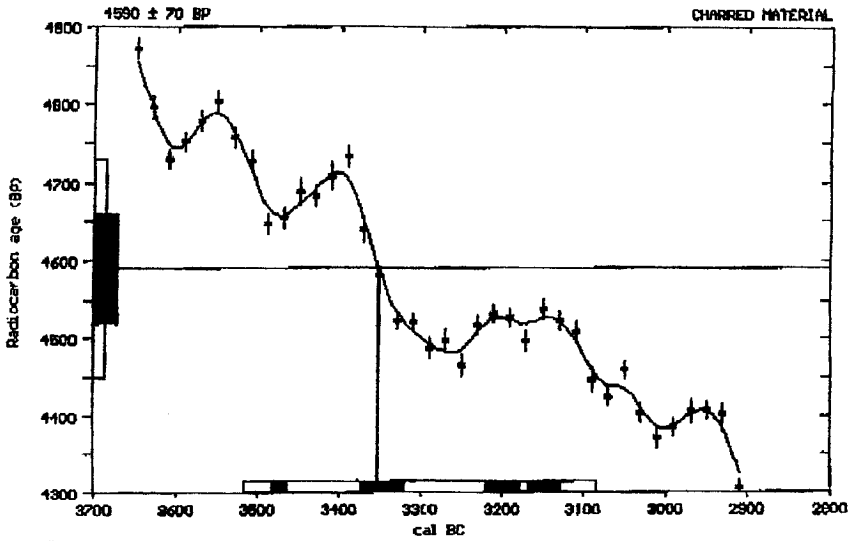
(Variables:estimated C13/C12=-25:lab mult.=1)

Laboratory Number:	Beta-120738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4590 ± 70 BP**
Calibrated results: (2 sigma, 95% probability)	**cal BC 3515 to 3085**

* C13/C12 ratio estimated

Intercept data:

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	cal BC 3350
1 sigma calibrated results: (68% probability)	cal BC 3485 to 3465 and cal BC 3375 to 3320 and cal BC 3220 to 3180 and cal BC 3165 to 3130



References:

Pretoria Calibration Curve for Short Lived Samples
Vogel, J. C., Fuls, A., Visser, E. and Becker, B., 1993, Radiocarbon 35(1), p73-86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lma, A. S. and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 p317-322

Calibration - 1993
Stuiver, M., Long, A., Kra, R. S. and Devine, J. M., 1993, Radiocarbon 35(1)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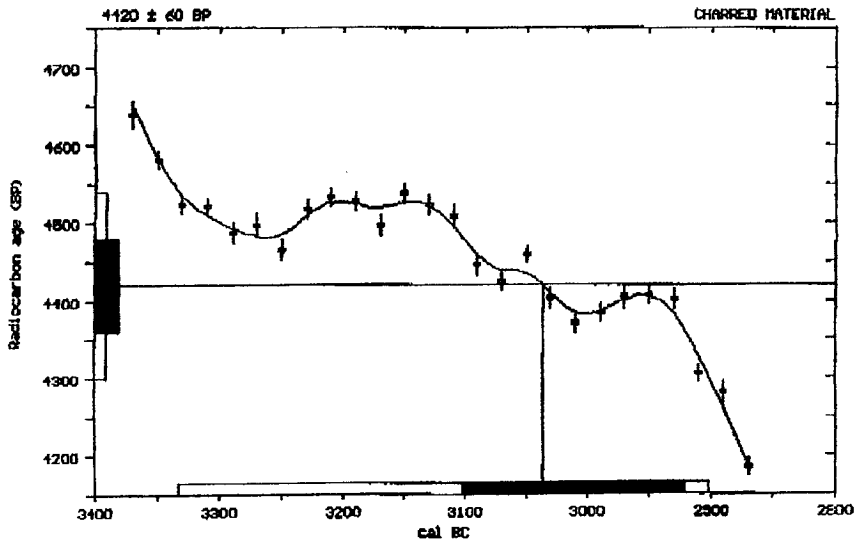
(Variables:estimated C13/C12=-25:lab mult.=1)

Laboratory Number:	Beta-120739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4420 ± 60 BP**
Calibrated results: (2 sigma, 95% probability)	**cal BC 3335 to 2900**

* C13/C12 ratio estimated

Intercept data:

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	cal BC 3035
1 sigma calibrated results: (68% probability)	cal BC 3100 to 2920



References:

Pretoria Calibration Curve for Short Lived Samples
Vogel, J. C., Fuls, A., Visser, E. and Becker, B., 1993. Radiocarbon 35(1), p73-86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lma, A. S. and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 p317-322

Calibration - 1993
Stuiver, M., Long, A., Kra, R. S. and Devine, J. M., 1993. Radiocarbon 35(1)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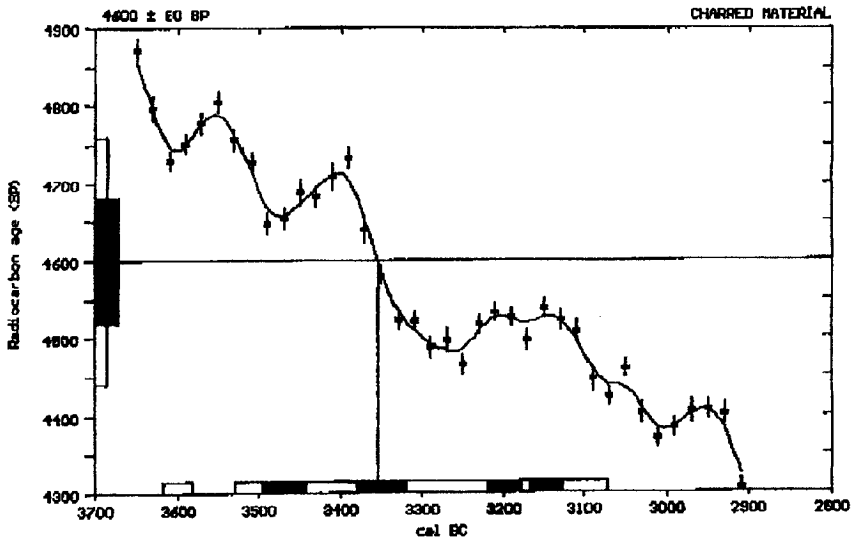
(Variables:estimated C13/C12=-25:lab mult.=1)

Laboratory Number:	Beta-120740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4600 ± 80 BP**
Calibrated results: (2 sigma, 95% probability)	**cal BC 3615 to 3580 and cal BC 3530 to 3070**

* C13/C12 ratio estimated

Intercept data:

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	cal BC 3355
1 sigma calibrated results: (68% probability)	cal BC 3495 to 3445 and cal BC 3380 to 3320 and cal BC 3220 to 3180 and cal BC 3165 to 3130



References:

Pretoria Calibration Curve for Short Lived Samples
Vogel, J. C., Fuls, A., Visser, E. and Becker, B., 1993, Radiocarbon 35(1), p73-86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lma, A. S. and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 p317-322

Calibration - 1993
Stuiver, M., Long, A., Kra, R. S. and Devine, J. M., 1993, Radiocarbon 35(1)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부 록

Ⅱ. 지경리 출토 토기에 대한 재료과학적 분석

지경리 출토 토기에 대한 재료과학적 분석

최 문 기(강릉대학교 세라믹공학과)

Ⅰ. 토기편의 준비 및 분석방법

i) 토기편 준비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지경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편으로서, 14개의 집자리에서 발굴된 35개의 토기편을 선정하여 발굴된 집터를 감안한 순번을 부여하였다. 각 토기편의 번호를 다음 표에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ii) 분석 및 결과 DATA

① 비짐함량(잔사량) 측정 및 소성성(흡수율 · 밀도) 분석

토기의 몸체를 구성하는 질흙에서 비짐의 함량은 소성과정은 물론 토기의 굳기와 세기, 수축률, 열감량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비짐이 석영질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잔사량 측정방법에 의하여 wt%를 계산하였다.

일정량의 토기를 유발에 곱게 갈아서 250ml의 비이커에 담은 후 미지근한 증류수를 붓고 저어준다. 상대적으로 입자가 미세한 점토질이나 그 외의 물질들이 부유하게 되는데 d 때 온수를 조심스럽게 부어낸 후 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맑은 물이 나올 때 까지 반복한 후 남은 잔사를 80℃의 건조기에서 건조시킨 후 그 질량을 측정하여 전체량에 대한 wt%를 계산한다.

소성성 분석은, 슬립부분을 조심스럽게 긁어낸 시료를 100℃의 항온기 중에서 건조하고 항량에 달하였을때의 무게를 기준무게(Wd)로 하여, 건조 무게를 단 시료를 물 속에 담가서 3시간 이상 끓이고 실온까지 식힌 후 이것을 포화시료로 하였다. 포화시료를 지름 1mm이하의 철사로 물 속에 매단 체로 달아 철사의 무게를 뺀 값을 포화시료의 수중무게(Wsusp)로 하고, 포화시료를 꺼내어 겉면을 닦고 무게를 달아 측정된 값을 Wsat으

표 1. 분석에 사용된 토기편 및 번호

번호	출토장소	두께(㎜)	부위	색조	시문	비고
1	1호 바닥	7	구연부	암갈색	압인문	
2		6	동체	흑색	·	강상리토기계로 동체부의무늬없는부분
3		10	〃	〃	어골무늬	
4	3호바닥	9	〃	암갈색	〃	
5		7	〃	흑갈색	〃	
6		9	〃	암갈색	〃	
7	3호주거지퇴적층	10	〃	황갈색	〃	
8		8	〃	적갈색	〃	
9	4호바닥	10	구연부	황갈색	〃	
10		9	동체	흑갈색	〃	
11		8	〃	흑색	단사선어골무늬	
12		10	〃	담황색	어골무늬	
13	5호바닥	9	구연부	흑갈색	단사선무늬	
14		7	동체	〃	어골무늬	
15	6호바닥	7	〃	〃	〃	활석이많이섞임
16		8	〃	적갈색	·	〃
17		8	〃	황갈색	어골무늬	
18		10	〃	적갈색	·	
19		9	구연부	〃	격자무늬	
20	6호퇴적1층	11	〃	황갈색	빗살무늬	
21		8	〃	흑갈색	〃	
22		9	〃	황갈색	〃	
23		9	〃	흑색	〃	
24	6호퇴적2층	7	동체	적갈색	어골무늬	
25	6호퇴적3층	11	구연부	적갈색	빗살무늬	
26		10	〃	담황색	〃	
27		88	동체	적갈색	격자무늬	
28	7호바닥	8	〃	흑갈색	어골무늬	
29		9	〃	담황색	〃	
30	8호바닥	7	〃	적갈색	·	
31	9호바닥	9	〃	담황색	단사선무늬	
32		6	〃	흑색	단사선어골무늬	
33	10호바닥	7	〃	담황색	사선무늬	
34		8	〃	적갈색	·	
35	6호생활면	7	〃	흑색	타래문	지탑리계통

로 하였다. 상기한 과정으로 제시된 측정치를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 흡수율(absorption) = {(Wsat - Wd)/Wd} × 100
- 밀도(Density) = Wd/(Wd - Wsusp)

표 2. 골재(잔사량) 측정 및 소성성(흡수율 · 밀도)측정 결과

번호	골재%	흡수율(%)	밀도(g/cm3)	번호	골재%	흡수율(%)	밀도(g/cm3)
1	4.89	15.83	2.67	19	22.26	26.15	2.54
2	·	22.88	2.55	20	·	22.88	2.55
3	·	19.35	2.50	21	15.63	27.85	2.53
4	26.46	19.21	2.58	22	·	18.59	2.61
5	4.88	20.00	2.55	23	9.13	18.24	2.57
6	·	14.90	2.46	24	6.49	18.27	2.51
7	8.66	17.66	2.59	25	27.16	22.50	2.58
8	·	21.76	2.54	26	·	22.18	2.62
9	29.14	21.29	2.54	27	16.10	23.29	2.60
10	6.44	19.26	2.59	28	10.45	19.18	2.43
11	·	17.12	3.01	29	·	20.51	2.65
12	·	21.54	2.56	30	21.18	17.66	2.60
13	15.63	17.31	2.54	31	3.55	18.73	2.58
14	·	17.93	2.55	32	·	18.57	2.60
15	1.14	16.14	2.57	33	·	19.44	2.64
16	1.25	19.84	2.70	34	16.47	17.94	2.58
17	21.50	18.47	2.57	35	·	16.77	2.84
18	·	19.93	2.61				

② 광학현미경 분석

토기에서 떼어낸 시료를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조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바탕흙과 비짐과 같은 비교적 굵은 입자의 파악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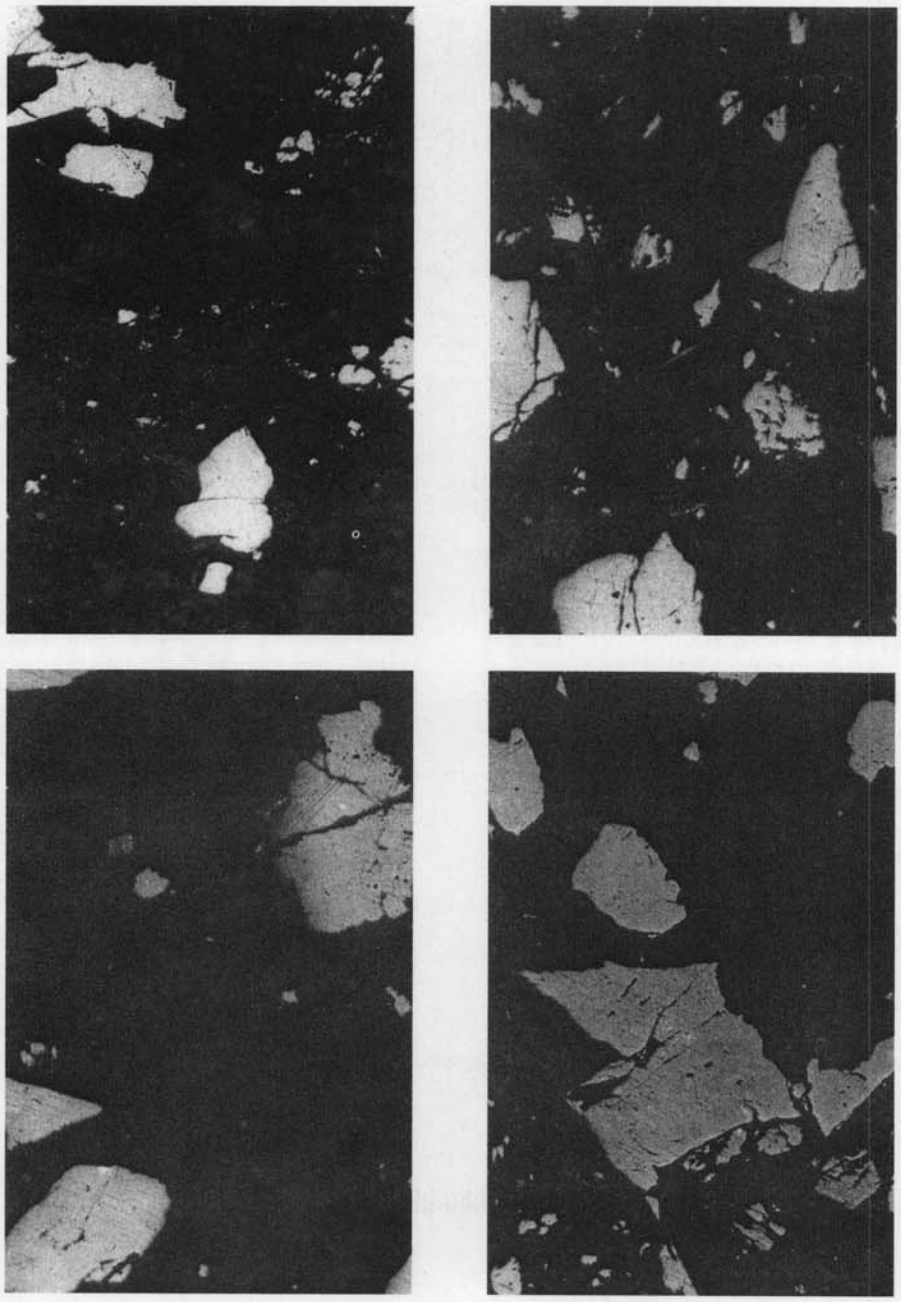


그림 1. 광학현미경사진(上左-1번시편, 上右-2번시편, 下左-3번시편, 下右-4번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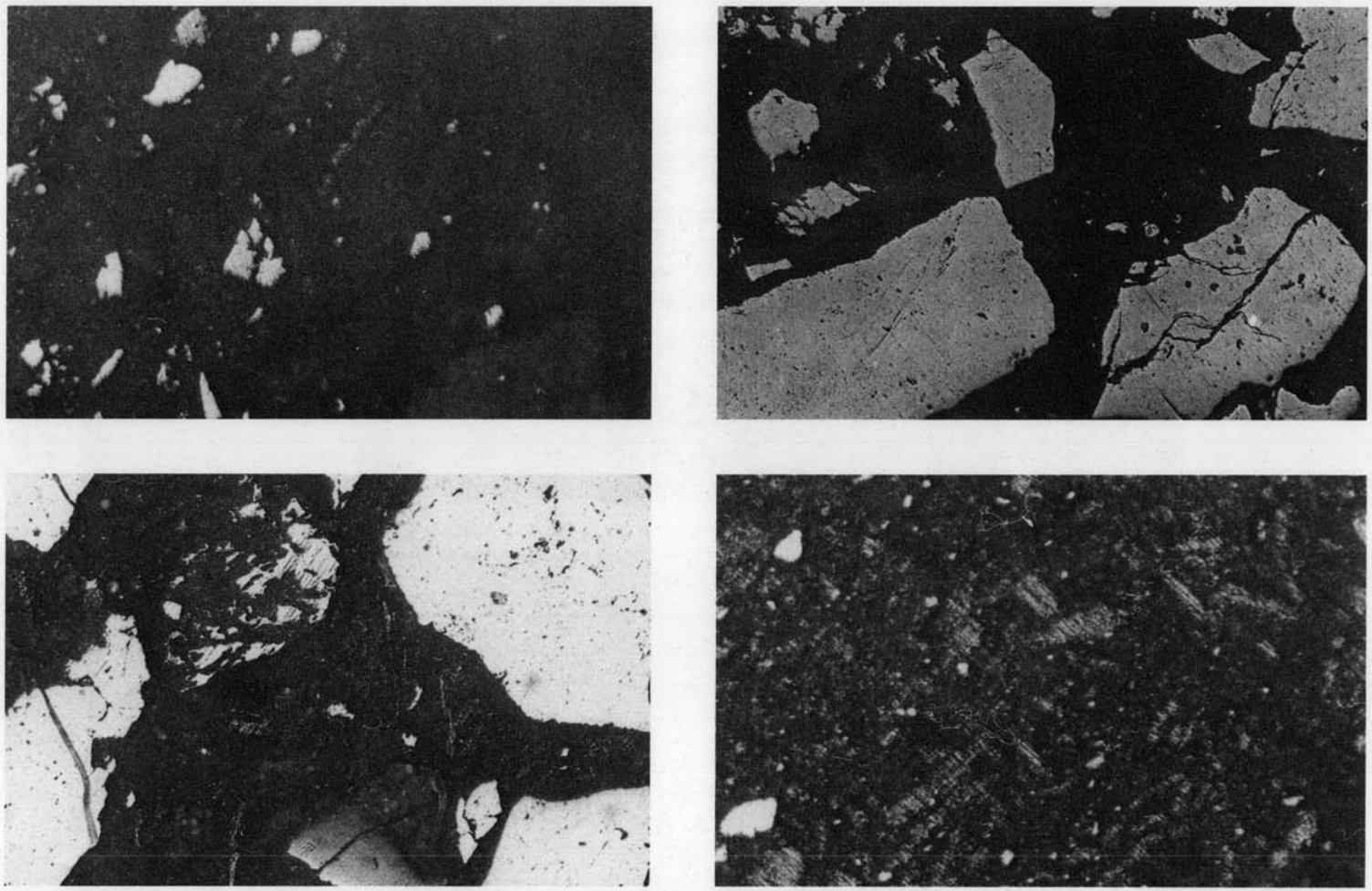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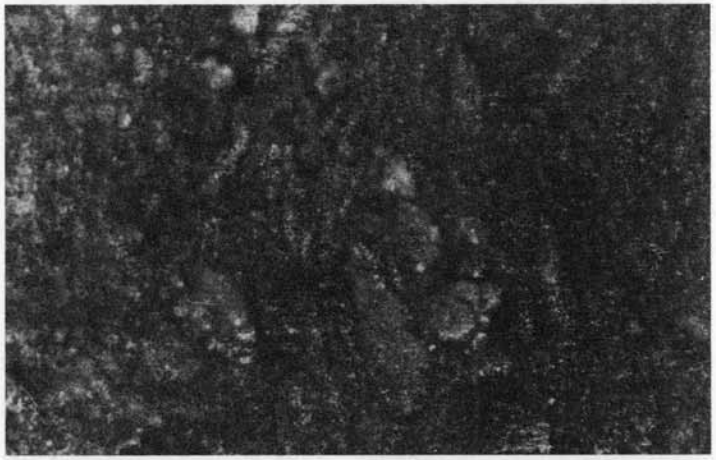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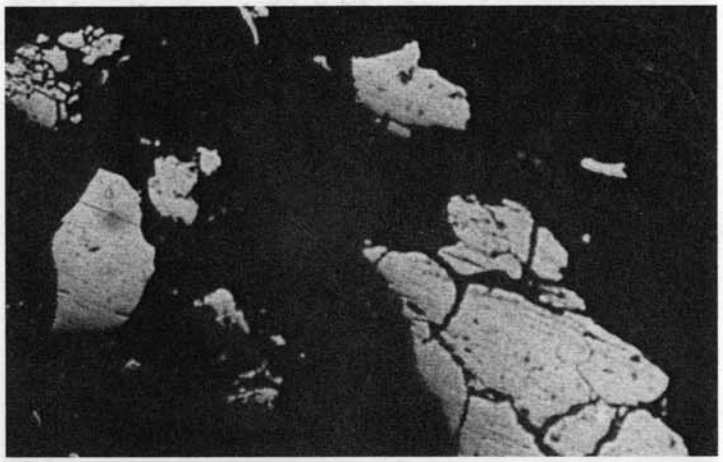


그림 2. 광학현미경사진(上左－5번시편, 上右－12번시편, 下左－13번시편, 下右－15번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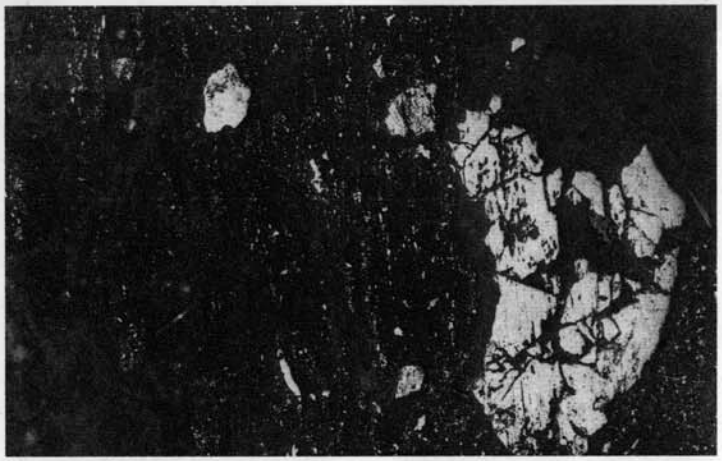


그림 3. 광학현미경사진(上左－16번시편, 上右－18번시편, 下－19번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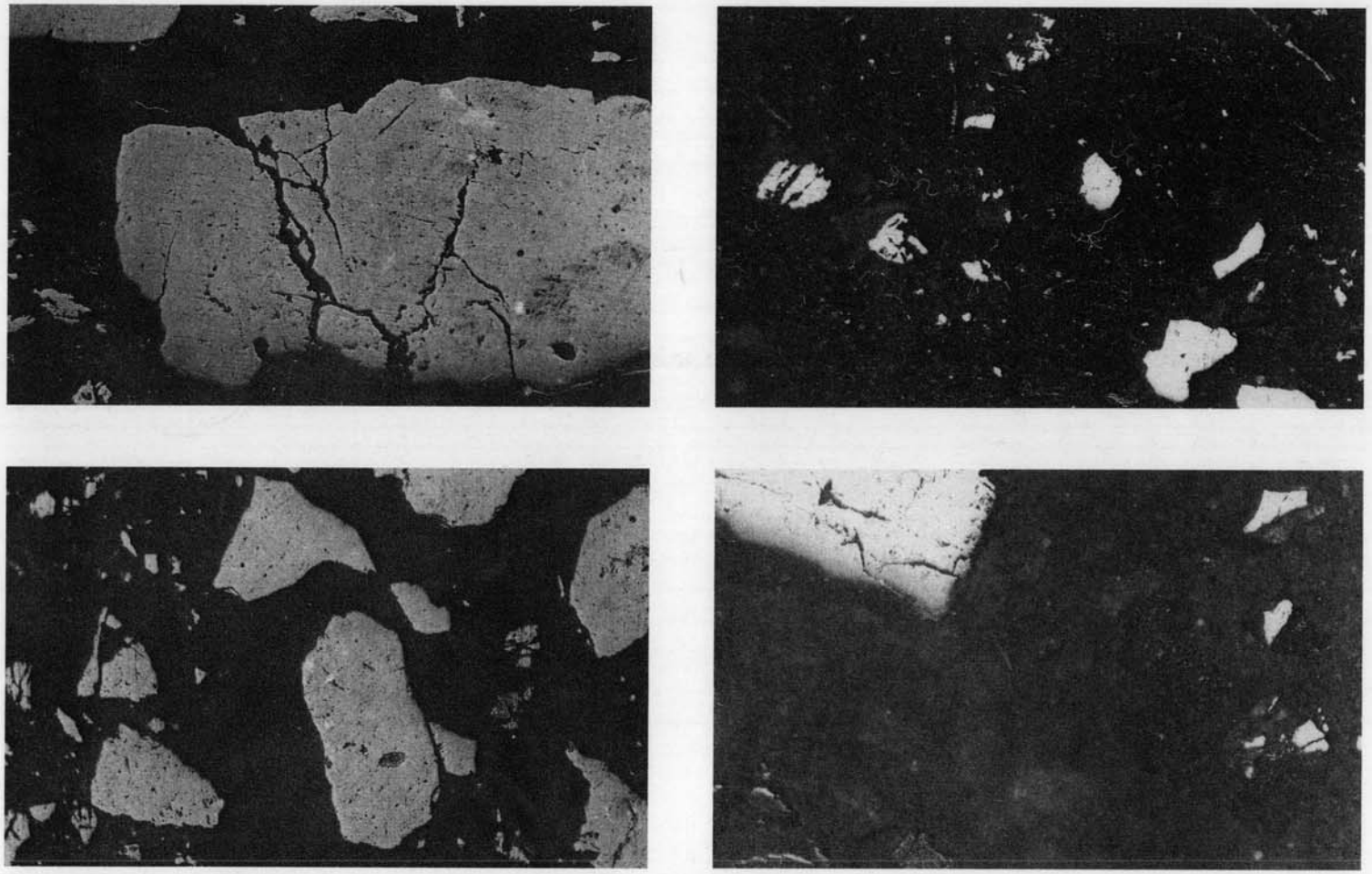


그림 4. 광학현미경사진(上左－14번시편(태토), 上右－14번시편(슬립),
下左－30번시편(태토), 下右－30번시편(슬립))

③ 수축률(Shrinkage)

소결온도 추정의 단서를 얻기 위하여 수축률 측정을 실시하였다. 건조 성형체는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크게는 15%까지 수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온소성토기의 경우 더 높은 온도로 재소성할 경우 수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이 수축이 일어나는 온도가 기존 소성온도의 근사치 일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수축률은 400℃의 전기로에서 2시간동안 가열 후 길이를 측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고 매 50℃마다 변화량을 측정하여 증감량을 퍼센트로 계산하였다. 길이의 측정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위하여 기준길이 방향의 수직이 되는 양 면을 알맞게 Cutting 하여 3부분을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값으로 하여 환산한 후, 수축이 시작되는 온도를 체크 하였다.

표 3. 각 토기편별 수축발생온도

번호	수축발생온도(℃)	번호	수축발생온도(℃)
1	750	20	750
2	750	22	750
3	650	23	850
7	650	24	850
8	850	25	800
9	800	26	750
10	850	27	750
11	850	28	650
12	850	29	600
15	650	31	750
16	700	33	700
18	650	34	700

④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Analysis : XRD)

유물에 X선을 조사하여 반사되는 각의 굴절유형을 통하여 유물속에 존재하는 광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정구조를 가진 물질의 정확한 분류와 점토광물의 분석, 토기 재료의 열효과의 조사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시편에서 일정량을 채취하여 유발에 갈아서 100매쉬의 체로 체거름 한 후, 4°/min으로 X-RAY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SEM) 분석

기공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구성물질이 매우 작을 경우, 광학 현미경을 통한 관찰은 불가능하다. SEM은 입사전자선을 가늘게 졸라서 시편면 위로 주사시켜, 그 주사진폭을 제어함으로써 브라운관 위에 반사 또는 2차 전자선에 의하여 확대상을 얻는 장치이다. 파면의 심한 요철도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토기의 소성상태와 조직의 관찰이 용이하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중인 미소부위영역에 조성되어 있는 4.Be~92.U까지의 정성 정량분석 및 조성에 따른 점, 선, 면 분석을 할 수 있어 미세조직의 특정영역을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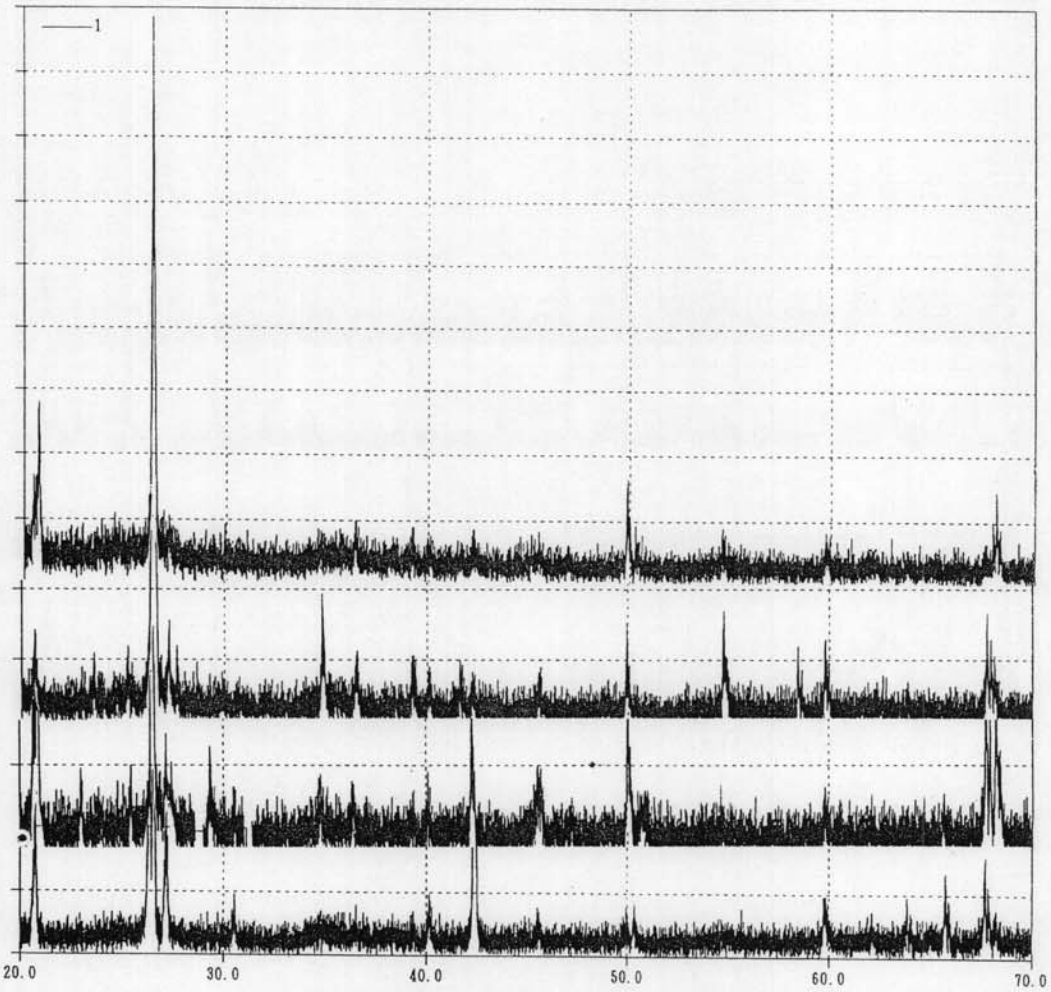


그림 5. XRD 분석결과(위로부터 1,4,8,13 번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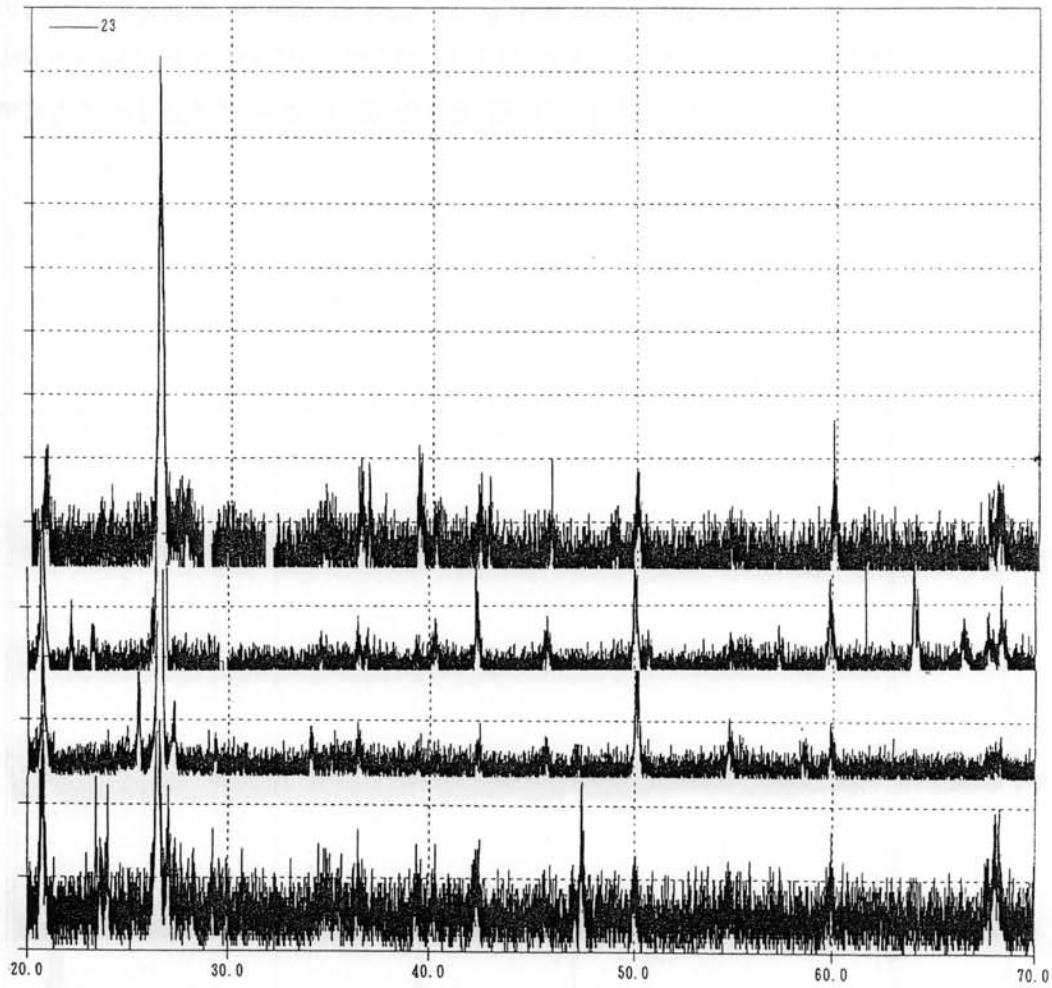


그림 6. XRD 분석결과(위로부터 23,28,31,34 번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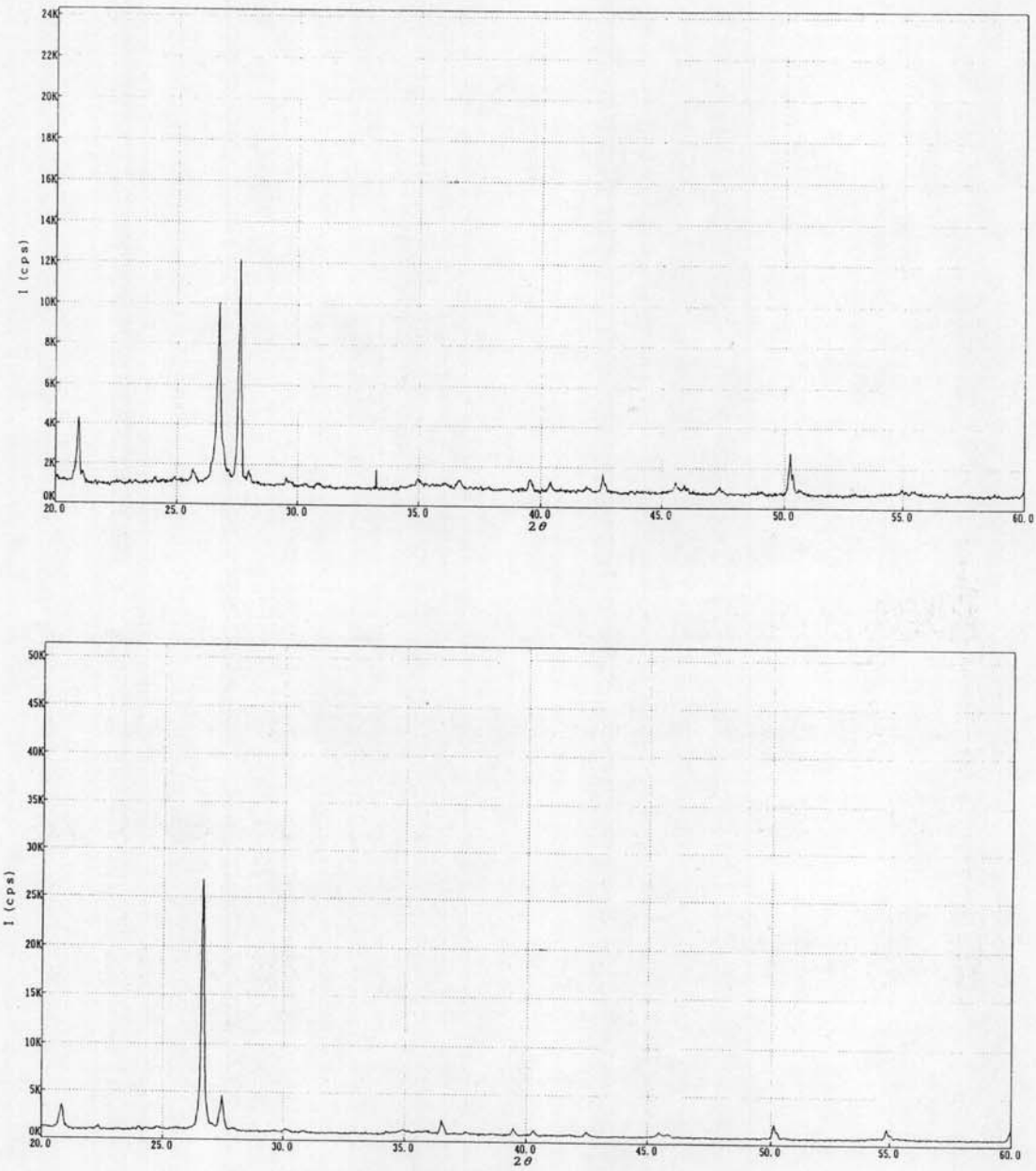


그림 7. XRD 분석결과(30번 시편 위:슬립, 아래: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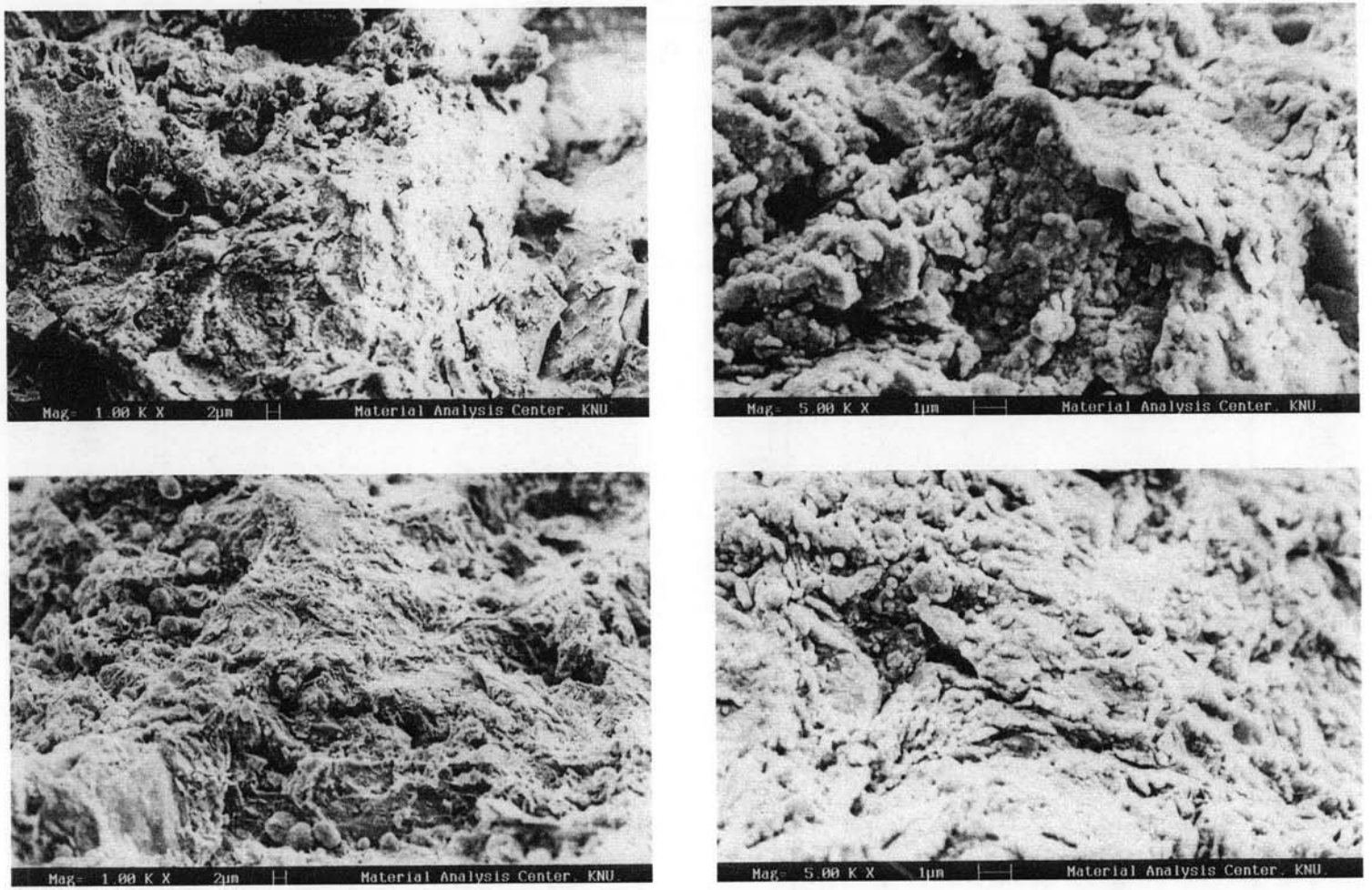


그림 8. SEM 분석결과(위:2번 토기편, 아래:10번토기편, 좌:×1000, 우:×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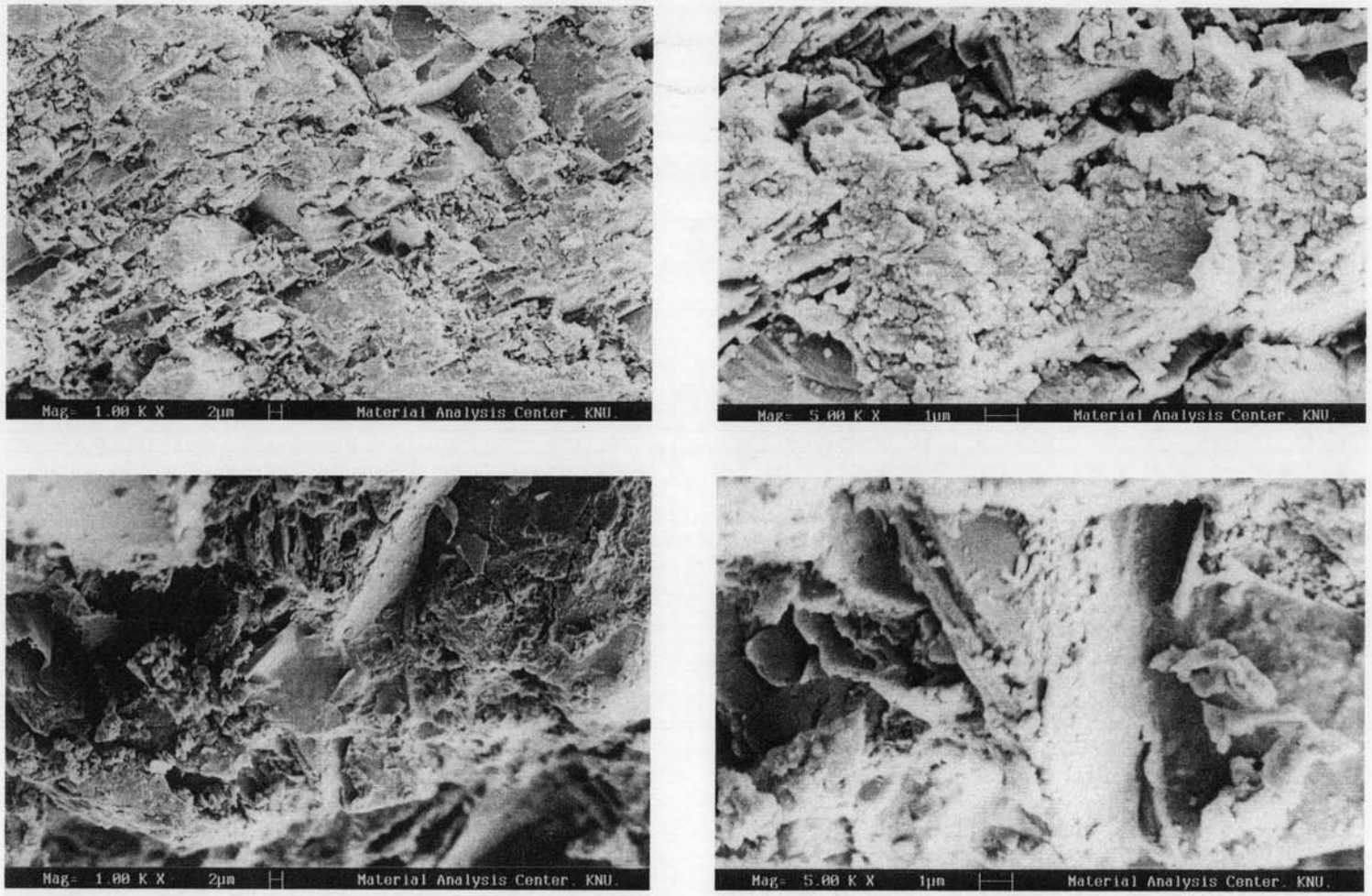


그림 9. SEM 분석결과(위:13번 토기편, 아래:15번토기편, 좌:×1000, 우:×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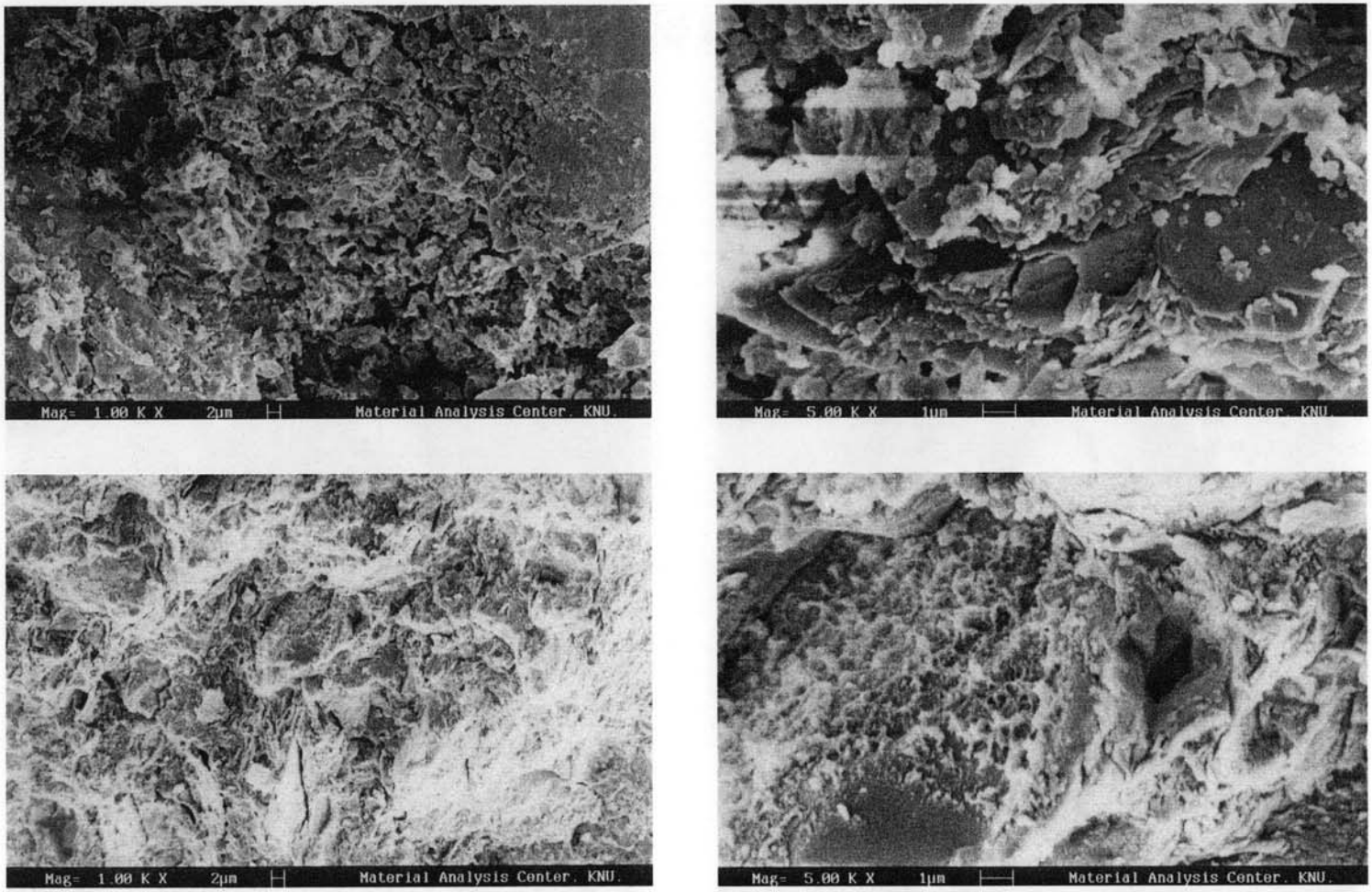


그림 10. SEM 분석결과(위:16번 토기편, 아래:23번토기편, 좌:×1000, 우:×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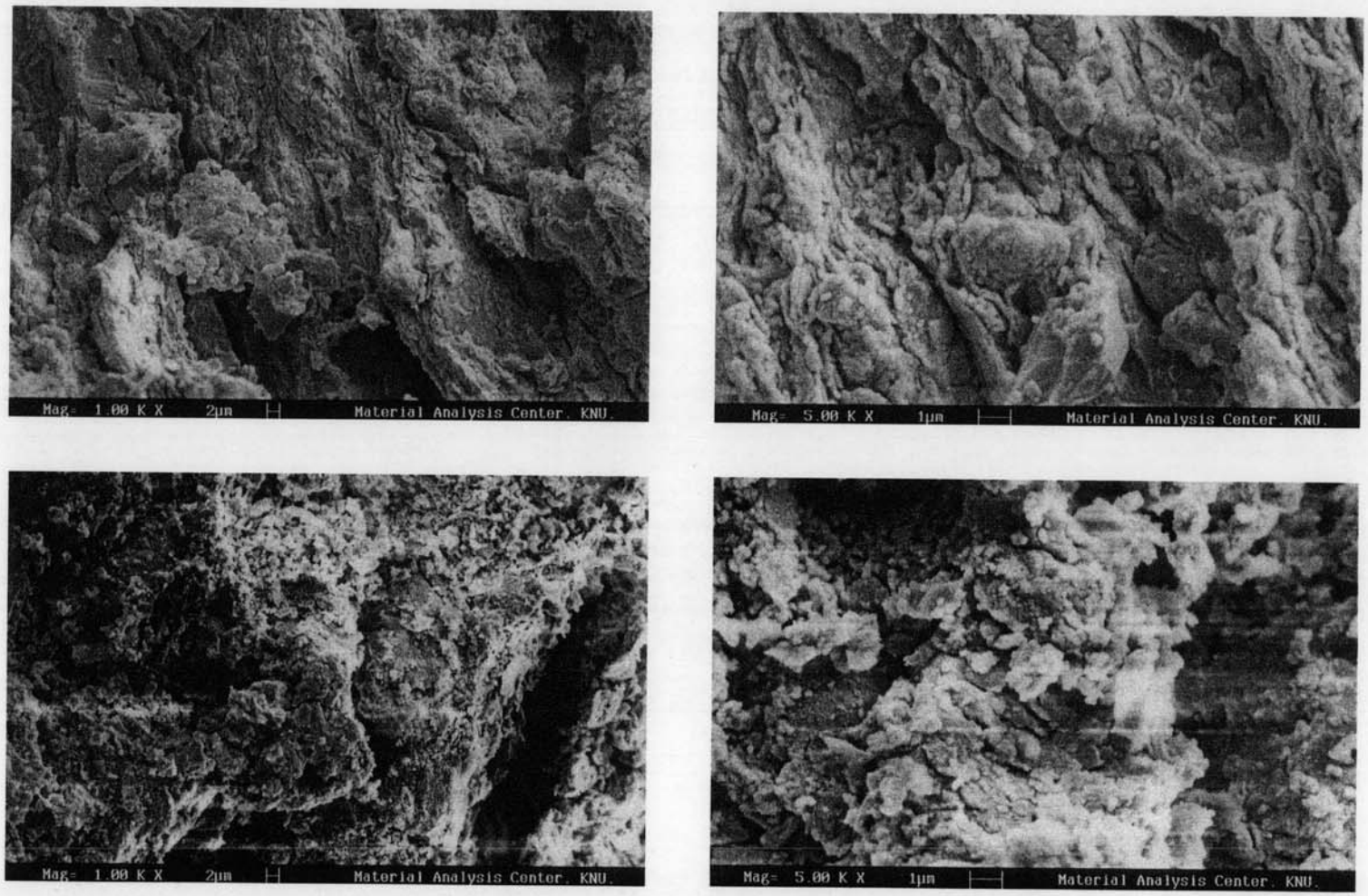


그림 11. SEM 분석결과(30번 시편, 위:슬립부분, 아래:태토부분, 좌:×1000, 우:×5000)

⑥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분석

본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과 병행하여 실시되는데,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중인 미소부위영역에 조성되어 있는 4.Be~92.U까지의 정성 정량분석 및 조성에 따른 점, 선, 면 분석을 할 수 있어 미세조직의 특정영역을 분석할 수 있다.

표 4. EDS 분석 결과 (1)

시편번호 / 성분	1	13	15	16
Al_2O_3	24.97	17.18	21.76	20.52
SiO_2	53.36	68.58	58.46	44.21
Fe_2O_3	14.90	14.24	10.32	16.30
Na_2O	1.94			
Cl	1.92			
MgO			8.51	18.97
K_2O	2.92		0.95	

표 5. EDS 분석 결과 (2)

시편번호	9		14		30		34	
부위	태토	비짐	태토	비짐	태토	비짐	태토	비짐
Al_2O_3	22.09	17.83	21.08	16.02	19.49	1.36	28.01	8.61
SiO_2	52.05	68.17	49.36	65.70	66.94	98.64	41.55	84.48
Fe_2O_3	13.64		24.11	6.68	10.95		27.55	6.92
Na_2O	0.16							
Cl	0.26							
K_2O	8.77	14.00	5.45	11.61	2.62		2.89	
TiO_2	3.02							

Ⅱ. 고 찰

토기 제작기술의 발달을 보여 주는 가장 뚜렷한 현상으로 입자의 미세, 조직의 치밀, 점토의 정련 그리고 소성온도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태토의 입도와 성분, 소성온도로써 발굴된 토기의 문화적 위치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토기는 일반적인 신석기 토기와 마찬가지로 산화철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갈색 계통으로, 산화 분위기에서 소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토기에는 비짐으로 석영질이 사용되었으나, 특이하게 15, 16번 시편은 활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석영질 비짐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질흙도 타 토기편에 비하여 정선된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유발에 분쇄를 해 보았을 때 부드럽고 균질한 미분말로 분쇄되었다. 또한 19, 21번 토기편은 다른 것들에 비하여 심하게 부식되어 있음으로 미루어 장석 등 수화반응을 일으키는 점토질이 함유된 저온 열처리 토기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잔사량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토기편중 20점을 선정하여 태토에 포함되어 있는 골재의 함량을 측정하여본 결과, 골재의 함량은 10% 미만이 9점, 10~20% 5점, 20% 이상 6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출토장소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토기제작기술의 발달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후대로 내려갈수록 골재의 함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토기의 사용용도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골재의 함량만으로 토기의 상대적인 편년을 부여하는 것은 여렵다. 골재 함량의 측정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6호 바닥에서 출토된 15, 16번 시편이다. 육안관찰에서도 나타났지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석영질 비짐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체질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정선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성 분석의 결과를 다음의 표에 나타내었다. 흡수율은 최저 14.90%에서 최고 27.85%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보통 20% 안팎을 보였다. 이 수치는 대부분의 신석기 토기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흡수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10% 미만의 흡수율을 보여야 조리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발굴된 토기는 액체를 담거나 조리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마른 곡식등의 저장용으로 쓰였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련된 점토를 사용한 15, 16번의 토기편도 흡수율이나 밀도값에 있어서 다른 토기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치밀한 소성체를 얻기 위해서는 태토의 조성이나 입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입자가 치밀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소성온도가 주어져야 한다. 비록 정련되고 미세한 입도의 질흙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온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흡수율 등에 있어서 조립질흙으로 만든 토기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소성온도를 올리는 기술보다는 점토를 정련하는 기술이 먼저 발달했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광학현미경을 통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토기가 불균질한 모양과 크기의 비짐이 함유된 다공질 토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활석질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 15, 16번 시편은 비짐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치밀도에 있어서도 다른 시편보다 우수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15, 16번은 자연적으로 채취한 점토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체질 등을 통항 원료를 정선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EH한 태토와 슬립을 분리하여 관찰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슬립이 관찰 가능할 만큼 두텁게 입혀진 2개의 시편(14, 30)에 대하여 분리 관찰한 결과, 태토에는 굵은 입자의 비짐이 균질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반하여, 슬립에는 거의 비짐이 보이지 않았다. 토기몸체의 유지와 강도는 태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소결시 몸체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낮은 소결온도에서 견고한 몸체를 얻기 위하여 많은 비짐이 태토에 첨가되었고, 질흙은 토기의 질감을 살린다는 본연의 역할을 살리기 위하여 정선하였거나 적어도 인위적인 비짐 첨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외적인 질감과 내적인 강도가 고려되었고 비짐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다공질 토기보다 발달된 제작기술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축율 측정에서는 보통 700℃에서 900℃사이의 온도에서 급격한 수축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소성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재소성 될 때 수축률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미루어 보아, 소성은 이 온도 범위 이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굽기의 결과를 전제한다면 800℃를 크게 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는 정련된 점토가 사용된 토기편에서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소성온도의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마구조의 발달에 앞서서 점토의 정련기술발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X선회절 분석결과, 대부분의 경우 석영(SiO2)이 주 피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미량의 장석과 운모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운모는 비짐으로 쓰일 수 있는 광물이기는 하나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바탕흙에 함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비짐으로는 석영이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두껍게

슬립이 입혀진 30번 시편에 대해서는 슬립과 태토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슬립에서 태토보다 훨씬 우세한 장석피크가 관찰되었다.

EDAX 분석을 통하여 토기의 성분을 파악함으로써 사용된 점토질의 종류를 추정해 보았다. 1, 13, 15, 16번 토기는 태토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함유된 비짐이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9, 14, 30, 34번에 대해서는 태토와 비짐을 같이 분석하여 그 성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시편 6, 9에서는 다량의 Fe2O3 성분이 측정되었으며, 다른 시편과는 달리 이 두 시편만이 Al2O3양이 Fe2O3보다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카올린에 포함된 Al2O3와 함께 철분이 철첨정석(Hercynite ; FeO · Al2O3)의 형태로 인위적인 첨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5, 16번 시편은 표면이 미려하고 반짝이며 미끌거리는 속성으로 이미 활석질(Talc ; 3MgO · 4SiO2 · 4H2O)의 첨가가 예상되었던 시편이나, 실제로 활석과 비슷한 효과를 냄으로써 활석으로 오해를 하게 하는 성분들도 있으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EDAX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활석성분인 MgO가 검출됨으로써 미려한 효과를 내기 위한 첨가물로 활석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미량의 Cl 성분과 소량의 탄소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이는 퇴적환경 속에서 침투된 것으로 기존의 점토질 성분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짐과 태토를 비교해 본 결과 30과 34번 토기편은 석영을 비짐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해 보이나 9와 14번의 경우 Al2O3의 비중이 30, 34보다 높고 K2O가 10%이상 함유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장석(K2O · Al2O3 · 6SiO2)나 견운모(K2O · 3Al2O3 · 6SiO2)가 비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襄陽 地境里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襄陽 地境里 住居址		發刊日	2002년 12月
發 刊 機 關	名稱	江陵大學校 博物館		
	住所	(210-702) 江原道 江陵市 池邊洞 123蕃地		
	TEL	(033) 640-2596	FAX	(033) 640-2593
執筆·編輯者	백홍기·고동순·심상육			
調 査 緣 由	주문진~인구간 7번국도 확장공사구간 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發 掘 調 査 者	백홍기·지현병·고동순·박영구·이창현			
遺蹟所在地番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리 8-13임 일대			
調 査 面 積	6,500㎡(약 2,000평)			

遺 構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주거지	신석기시대	10 기	·즐문토기 ·호형토기 ·석부·석측 어망추	
소할석유구	〃	1 기	즐문토기편	
야외노지	〃	2 기	즐문토기편	